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석사학위논문

도시 가로수의 경험에 대한 환경미학적 연구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박 소 영

도시 가로수의 경험에 대한 환경미학적 연구

지도교수 배 정 한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박 소 영

박소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가로수는 인간이 도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생물이자 가장 쉽게 지나치는 생물이다. 가로수는 도시 인프라로서 도시에 편재하며 도시민의 삶에 구조적, 미적, 기후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나 식물인 가로수는 움직이거나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도시민은 가로수를 간과하기 쉽다. 인문학 분야에도 '식물맹'의 경향이 나타나며 가로수는 인간과 동물에 비해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는 오늘날, 도시에서 가로수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가로수의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도시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가로수의 경험은 논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만 쉽게 무시되어 온 가로수에 주목해, 그와 관계 맺는 도시민의 삶의 영역을 환기하고 해명한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인간이 가로수를 개체보다는 환경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미학의 관점에서 가로수의 경험에 접근하고 해석한다. 먼저, 거시적 접근의 단계에서 이 연구는 가로수 경험이 놓인 역사문화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 검토를 수행했다. 근대화하는 유럽에서 가로수는 전근대 산책로의 가로수 모델이 공학적으로 표준화되어 전 세계 도시로 이식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표준형을 받아들였으나 수종 선정, 조성 및 관리 방법 등의 가로수 실천은 다르게 전개된다. 20세기 후반까지 정부는 녹지의 양적 확대에 목표를 두어 도시는 일부 수종으로 획일화된다. 이때 도시를 점하게 된 특정 수종에 관한 한국 사회의 독특한 경험이 나타났다. 근대 이전 유럽과 근현대 한국에서 각각 가로수의 형태와 수종을 획일화하는 양상은 역사문화적 조건으로서 동시대 도시민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 연구 단계는 미시적 접근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동시대 가로수 경험을 발굴하고 분석했다. 앞선 문헌 검토에서 확인한 가로수 경험 방식의 주요 조건으로서 교통수단을 고려해 보행, 주행, 기타 경험의 분류에 따른 반구

조적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의미한 가로수 경험의 양상을 도출하기 위해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IPA;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방법을 통해 진술을 의미의 연관에 따라 분석했다. 그에 따라 발굴한 도시민의 가로수 경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걸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계절에 따라 a) 공감각적으로 체험, b) 일상 속 축제로 기념, c) 이완을 위해 멍하게 응시, d) 개체로 식별해 특징을 감상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할 때, e) 풍경으로 감상, f), 부정적 평가, g) 만개한 가로수길을 체험, h) 울창한 가로수길을 체험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로수를 비행기나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조감의 경우, i) 원으로 평면화된 가로수를 보며 평가를 내리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해석의 단계에서, 이 연구는 다양한 가로수에 대한 감각, 인식, 정서를 일깨우고자 환경미학자 아놀드 벌리언트(Arnold Berleant)의 '기술적 미학(descriptive aesthetics)'을 활용해 심층인터뷰에서 수집한 경험을 기술했으며, 환경미학의 지각 모델과 인식 모델의 이론을 활용해 도시 가로수의 네 가지 미학적 의미를 발견했다. 첫째, 도시민은 도시에서 가로수라는 비인간 생물, 미기후, 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에 참여한다. 가로수가 연관된 환경 변화에 공감각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시각적 광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온 몸의 감각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촉감, 냄새, 공기, 소리 등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이때 가로수는 분리된 객체가 아니며 도시민은 유기체와 기후 환경에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도시민의 가로수가 있는 풍경 감상은 수동적 관조에서 시각적 참여로 이행한다. 가로수를 선과 면으로 환원하는 기하학적 배치는 주체로 하여금 가로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 도시민은 대체로 가로수를 수동적으로 관조한다. 하지만 가로수가 계절 변화에 반응하거나 개인이 미적 의지를 발휘할 때, 다시 말해 가로수와 주체가 역량을 발휘할 때 도시민은 가로수를 평면적, 추상적 요소가 아닌 구체적 실체로 경험한다.

셋째, 가로수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서 지식은 가로수에 대한 미적 지평을 열어주기도, 정해진 방식으로 고착시키기도 한다. 경험의 주체가 식물학이나 생태학 등 과학 지식을 가질 경우, 창조적 상상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가로수의 자율적 특성을 인지하고 미적 지각과 이해를 확장할 수 있다. 반면 심신 이완에 대한 실용적 지식은 가로수를 도구적 관점에 따라 표피적 대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가로수에 관한 부정적 평가의 잣대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발굴한 사례에 따르면 나무에 대한 이상형, 생태학 지식, 부정확한 통념, 사회적 감수성과 인식 등 지식에 따라 다양한 부정적 경험이 발생한다. 특히 가로수 경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때는 긍정적일 때 보다 도시민이 정치적 힘을 발휘해 문제를 개선하고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파급력을 가지며, 토대하는 지식에 따라 미적 판단은 도덕적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환기하고 해석한 가로수 경험의 양상은 곧 인간이 가로수와 관계 맺는 양상이다. 이 연구는 인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풍부한 미적 차원을 생성하는 행위주체(agent)로서 가로수를, 비인간-주체 가로수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도시를 '인간 너머의 도시'로 재발견한다. 이 연구가 규명한 가로수 경험은 도시 정책에서 인간과 가로수의 삶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룬 양상은 가로수 경험의 일부분이며 조명되지 못한 더 많은 사례가 있다. 이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가로수에 대한 연구가 환경미학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도시민의 가로수 경험에 주목하는 인문학적 연구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가로수, 식물, 도시 환경, 미적 경험, 환경미학, 공감각적 참여,
능동적 관조, 미적-도덕적 판단, 인간-너머 도시
학 번 : 2020-20954

목 차

국문초록 ····· i
목차 ····· iv
그림 목차 ····· vi
표 목차 ····· vii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관련 연구의 동향 ····· 5
3. 연구의 방법과 시각 ····· 10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 16

II. 가로수 경험의 역사문화적 맥락 ····· 19
1. 근대 도시의 가로수 도입과 변천 ····· 20
1.1. 초기 가로수의 양상 ····· 21
1.2. 프랑스 절대왕정의 가로모델 ····· 23
1.3. 도시 가로수의 보편화 ····· 26
2. 국내 가로수 환경의 전개 ····· 31
2.1. 근대적 가로수 도입 ····· 31
2.2. 국토 개발과 가로수 식재 ····· 34
2.3. 특색 있는 거리와 시민 참여 ····· 38
3. 소결 ····· 43

Ⅲ. 도시 가로수의 미적 경험의 양상 ····· 45
1. 심층인터뷰를 통한 미적 경험 수집 ····· 45
2. 미적 경험의 양상 ····· 51
2.1. 보행 경험 ····· 51
2.2. 주행 경험 ····· 67
2.3. 조감 경험 ····· 78
3. 소결 ····· 80

Ⅳ. 도시 가로수의 미적 경험 해석 ····· 83
1. 계절에 대한 공감각적 참여 ····· 86
2. 수동적 관조에서 참여로 이행하는 풍경 감상 ····· 92
3. 지식에 따라 안내되는 가로수 경험 ····· 99
4. 부정적 경험과 미적 판단 ····· 106

Ⅴ. 결론 ····· 113

인용 문헌 ····· 119
Abstract ····· 127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구의 구성과 흐름 ····· 18
[그림 Ⅱ-1] Villa Medici di Castello (1599) ····· 21
[그림 Ⅱ-2] Map of Utrecht (1649) ····· 24
[그림 Ⅱ-3] Le Cours de la Reine (1616) ····· 26
[그림 Ⅱ-4] Turgot’s Plan de Paris (1739) ····· 28
[그림 Ⅱ-5] Vue du boulevard prise de la Porte St. Antoine (18th century) ·· 28
[그림 Ⅱ-6] La Rue où l'on Pave (1866) ····· 29
[그림 Ⅱ-7] Profils des voles Publiques (1867-1873) ····· 29
[그림 Ⅱ-8] 가로수가 심어지기 전 경복궁 광화문 (1913) ····· 33
[그림 Ⅱ-9] 일제강점기 직후 가로수가 늘어선 광화문 거리 (1948) ····· 33
[그림 Ⅱ-10] 1970년대 강남역 일대 (1974) ····· 36
[그림 Ⅱ-11] Seoul 1988 Olympic Marathon | Marathon Week (1988) ····· 37
[그림 Ⅱ-12] 버섯 같은 독특한 모양의 복자기 가로수 (2021) ····· 40
[그림 Ⅱ-13] 가지의 대부분을 잘라낸 가로수의 모습 (2022) ····· 42

표 목차

[표 Ⅲ-1] 인터뷰 연구 참여자 ····· 46
[표 Ⅲ-2] 가로수의 미적 경험 목록 ····· 49
[표 Ⅲ-3] 의미 있는 진술에 따른 가로수 경험의 양상(보행) ····· 52
[표 Ⅲ-3] 의미 있는 진술에 따른 가로수 경험의 양상(주행 및 조감) ··· 68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로수는 인간이 도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생물이자 가장 쉽게 지나치는 생물이다. 등하교나 출퇴근을 할 때,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할 때 곁에 있는 존재, 도시의 길을 지난다면 거의 항상 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가로수다. 물론 도시에서 우리는 가로수뿐 아니라 반려동물, 길에서 생존하는 비둘기와 고양이, 새, 초파리와 모기, 상한 음식의 곰팡이도 우리의 일상에서 심심찮게 마주친다. 하지만 이들은 도시라는 건설된 환경(built environment)에서 공인된 존재는 아니다.

반면, 가로수는 도시의 적법한 거주자다. 가로수는 법적으로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1]으로서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등을 위하여 시가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 있게 식재"된다.[2] 가로수는 움직이는 동물과 달리 한 자리에 고정되어 사는 식물로 도시 인프라로서 도시 전역에 배치되어, 수관(canopy)으로 길의 지붕을, 몸통(trunk)으로 열주를 형성해 도시의 삶이 펼쳐지는 길의 구조를 형성한다. 가로수는 도시에서 인간이 지각 가능한 척도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생물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동물에 비해 도시민의 이목을 끌지 못한다. 우리는 동물을 마주칠 때 주로 개별적 존재(예를 들어 비둘기나 고양이), 개체 또는 개체군(비둘기떼나 고양이 무리)으로 마주한다. 하지만 노변의 가로

---

1) 가로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제외)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8. 5.]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정].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2) 산림청 (2019),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p.6.

수(들)는 의식적인 마주침의 대상보다는 환경으로 존재한다. 또한 동물 개체(군)를 만나면 그를 지칭하는 생물 종(또는 상위 분류군)의 이름을 부른다. 반면, 식물종을 막론하고 도로변에 배치된 나무는 '가로수'로 통틀어진다. 특정한 계절이나 명소에서 벚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메타세쿼이아 등 몇몇 종이 식별되고 호명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가로수로 통칭된다.

이처럼 가로수는 인간이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 중 가장 자주 만나며 영향을 받는 존재지만 쉽게 무시된다. 식물학자 제임스 완더시(James Wandersee)와 엘리자베스 슈슬러(Elizabeth Schussler)는 이렇듯 식물을 인간이나 동물에 비해 무시하는 경향 및 상태를 식물맹(plant blindness)이라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물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인간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3] 가로수는 익숙한 형식으로 도열되어 도시 생활에 별다른 위협이나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도시민은 가로수에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는 식물맹의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인간-너머(more-than-human) 관점은 인간 중심의 시각을 넘어 기술과 동물 같은 비인간과의 상호관계로 인문학의 범위를 확장하며, 나아가 동물에 비해 간과되어 온 식물을 인간의 매일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주목하기 시작한다.[4] 가로수는 역시 도시민의 삶과 긴밀

---

3) Mung Balding & Kathryn JH Williams (2016), "Plant Blindness and the Implications for Plant Conservation," *Conservation Biology*, 30(6), pp.1192-99.

4) 최근 포스트휴머니즘의 지적 조류 속에서 식물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자율성을 가진 비인간 행위자로 새롭게 등장한다. Owain Jones & Paul Cloke (2008), "Non-human Agencies: Trees in Place and Time," *Material Agency: Towards a Non-Anthropocentric Approach* (C. Knappett & L. Malafouris, eds.), Boston: Springer, pp.79-96은 인간의 계획을 변화시켜온 나무의 행위주체성(agency)에 주목하며, 행위주체성을 반복적 행위, 변형적 행위, 목적적 행위, 비반응적 행위에 따른 네 가지로 구분했다. Konijnendijk van den Bosch (2016), "Tree Agency and Urban Forest Governance", *Smart and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5(2), pp.176-88은 나무의 행위주체성과 도시숲 거버넌스의 상관 관계를 고찰했다. 가로수에 관해서는 Deborah Davies (2019), "Subterranean to Skyline—Street Trees as Boundary

히 관계하고 있다. 지극히 일상적 존재이자 식물인 가로수는, 일상미학자 유리코 사이토(Yuriko Saito)의 표현을 빌리면, 분명히 도시의 '삶에 어떤 질감과 리듬'을 제공한다.[5] 예를 들어, 길을 걸으면 가로수는 걷는 여정 내내 계속 머리에 그늘을 드리운다.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보도에 가까운 차선일수록 가로수를 옆에 두고 달린다. 버스 옆창으로 보든 차량 앞창으로 보든 바깥을 보는 이의 시야에 가로수 대열이 있어 우리가 향하는 쪽으로 시선을 유도한다. 강한 빛을 가려 우리가 시원하게 활동하도록 돕고 반대로 그늘을 더 음습하게 만들어 불쾌함을 유발하기도 한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공기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짙은 녹음으로 매캐한 공기를 가두기도 한다.

가로수는 도시 가로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길을 가는 인간의 감각의 장(field)에 항시 존재한다. 가로수는 길에서 살아가며 도시민이 보는 시야와 시선, 공간에서 느끼는 빛과 그늘, 온도와 습도 그리고 인간의 신체로 들어왔다 나가는 공기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가로수는 건축적이며 생태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을 구성한다. 길 위의 도시민은 가로수를 보고 느끼고 가로수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경험한다. 도시에서 가로수와 인간의 만남은 환경에 대한 경험으로 나타난다. 환경으로 경험되는 가로수는 도시민의 삶에 통합되어 있다. 도시의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생물이자 식물로서 가로수에 대한 경험은 필히 논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인간과 가로수와의 만남에 주목한다. 도시 인프라로서 가로수는 도시의 길에 뿌리내리며 도시민의 일상에도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Agentsin the Composition of the Street Section,"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Proceedings* 20(1), p.26의 가로 영역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가로수에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 Yuriko Saito (2017), *Aesthetics of the Familiar: Everyday Life and World-mak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26-27.

있다. 이 연구는 도시민의 삶에 일체화된 부분으로서 가로수에 대한 경험에 관심을 둔다. 도시의 길을 따르는 많은 도시민은 가로수가 존재하는 환경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는 언제 가로수에 반응하는가? 어떻게 가로수를 감지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가? 가로수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경험은 도시민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연구는 도시민의 가로수에 대한 경험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도시 가로수는 도시민의 인식 속에서 다른 도시 생물에 비해 간과되어왔으나 그 어떤 생물보다 도시민의 일상에 긴밀히 얽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 생활에 통합된 가로수에 대한 경험에 접근해 일상 속 가로수의 존재를 환기하고, 가로수의 경험을 미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가로수라는 비인간-생물이자 식물과 관계 맺는 도시민의 삶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다.

2. 관련 연구의 동향

가로수에 대한 연구는 공학과 응용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 가로수에 대한 역사 연구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나타난다.[6] 이 절에서는 공학 및 응용과학 연구와 역사 연구로 나누어 가로수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피고, 가로수를 환기하고 그와 얽힌 도시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선행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가로수 관련 과학 연구는 주로 가로수의 기능과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의 경우, 가로수 연구는 가로수를 대기오염 측정 지표로 사용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1960~70년대에 식재된 가로수의 현황 조사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도시에 식재된 기존 가로수의 실태 파악과 관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었다. 2000년대 전후로, 지리정보를 이용한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한편, 경관계획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도시 이미지와 도시 정체성을 제고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가로수를 활용한다.[7]

---

6) 1980년대까지의 전 세계 가로수의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국내 문헌으로 이석래가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제31권부터 제36권까지 게재한 “가로수의 역사(Ⅰ~Ⅵ)”가 가 있다. 이석래의 문헌은 기원전 중국, 이집트 등지의 가로수의 탄생부터 북유럽 및 서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소련 및 동부 유럽의 가로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1980년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직할시를 중심으로 한국 가로수의 현황을 기록했다. 이석래의 문헌은 자료의 출처가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학술 자료로 활용하기 한계가 있어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가로수의 역사를 개괄하기에 좋은 참고 문헌이다(이석래 (1988), “가로수의 역사Ⅵ,”『고속도로』36, 한국도로공사, pp.71-77).

7) 공학 및 응용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1980년대 대기오염 및 가로수 내연성에 대한 연구로 성민웅 (1976), “진주시 가로수의 연(Pb) 오염에 관하여,”『식물학회지』, 19(4), pp.107-110 그리고 배정오 외 3인 (1986), “대기오염에 대한 가로수의 내연성 연구,”『환경위생공학』1(1), pp.97-107이 있다. 1980년대 도시 내 가로수 현황 파악 및 생육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로 권상수 외 3인 (1980), “부산시 가로수의 생태에 관한 연구,”『석당논총』4, pp.75-84.과 김정환 (1982), “서울시내

2000년대 후반, 감성공학 연구를 통해 과학 분야에서 도시민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한 첫 유의미한 고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성공학 연구는 도로폭과 가로수의 높이에 따라 가로환경에 대한 운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며,[8] 보행자의 경우 가로수의 높이가 높고 녹지 폭과 보도 폭이 넓을수록 보도 경관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보고한다.[9] 이러한 환경 인지에 대한 연구는 가로수가 도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2010년대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저장이 연구 주제로 부상한다.[10]

이러한 류의 공학과 응용과학 연구는 가로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며 가로수를 이용해 도시 문제를 경감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학과 응용과학 분야에서 간주하는 가로수는 인간이 매일 직접 보고 느끼는 존재이기보다 대부분 대기오염의 지표·열섬현상 완화·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수단이다. 공학과 응용과학 연구는 호흡이나 광합성 등 식물의 생명 현상을 공기 정화, 미세먼지 흡착, 탄소 저장 등의 기능으로 환원해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가로수는 오염물질 농도·미세먼지 감소량·탄소저장량으로 수치화되고, 이러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추상적 '그린인프라'로 관리된다.

가로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1990년대 본격화된 지리정보 이용 가로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대관 & 윤여창 (1996), "한국의 가로수 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산림경제연구』4(2), pp.37-50 그리고 정성관 외 3인 (2000), "가로수관리정보체계를 위한 코드부여방법에 관한 연구,"『한국지리정보학회지』3(1), pp.57-68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자체별 경관계획에는 경북산림포럼 (2011),『경북명품가로수를 활용한 도시이미지 제고방안』과 대원엔지니어링 (2012),『옥천군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8) 박상명 외 2인 (2006), "감성공학에 의한 운전자의 가로경관 평가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대한교통학회지』24(3), pp.10-22.

9) 이병주 외 2인 (2006),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보도경관 설계모형에 관한 연구,"『대한교통학회지』24(6), pp.119-27.

10) 2010년대 부상한 가로수 탄소 저장 연구는 박은진 & 강규이 (2010), "경기도 도시가로수의 탄소저장량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한국환경생태학회지』24(5), pp.591-600; 최병길 외 2인 (2014), "GIS를 이용한 가로등 및 가로수의 저탄소 정보 관리,"『대한공간정보학회지』22(1), pp.55-62가 있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는 인간의 직접적 경험을 간과하는 한계를 내재한다. 감성공학 연구는 인지 경험을 다루기는 하지만 실험을 통한 '가로 이미지'에 대한 반응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시 실제 경험과 괴리가 있다. 이상 살펴본 과학적 연구는 인간에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으로서 가로수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로수를 도구적 수단으로 정량화·추상화하기 때문에 공학과 응용과학 연구에서 도시민의 실제 경험에 대한 이해는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가로수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조경과 도시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영미권과 국내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가로수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서 헨리 로렌스(Henry Lawrence)는 『City Trees』에서 유럽 중심으로 가로수의 역사를 서술했고,[11] 루시 로리안(Lucie Laurian)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프랑스 파리에서의 가로수 실천의 변천사를 정리했다.[12] 두 연구는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개발과 발맞추어 구축되고 확산되는 가로수 식재의 역사를 개관하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소냐 듀플만(Sonja Dümpelmann)과 앤 비미쉬(Anne Beamish)는 사회사·미시사적 접근을 통해 근대 도시에서 가로수가 도입되고 도시민의 일상에 자리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듀플만의 『Seeing Trees』는 20세기 전후 뉴욕과 베를린에서의 가로수의 과학적 관리, 도시 임업의 발달, 소수자 권리 투쟁, 전쟁과 이념 대립이 야기한 가로수 논쟁 등 가로수에 관한 넓은 스펙트럼의 사회적 경험을 조명한다.[13] 비미쉬는 도시미에 대한 새로운 의식, 나무의 효용을 강조하는 의학 이론, 화재 보험 도입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19세기 전

---

11) Henry Lawrence (2008), *City Trees: A Historical Geography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2) Lucie Laurian (2019), "Planning for Street Trees and Human-Nature Relations: Lessons from 600 Years of Street Tree Planting in Paris,"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8(4), pp.282-310.

13) Sonja Dümpelmann (2019), *Seeing Trees: A History of Street Trees in New York City and Berl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후 보스턴과 뉴욕에서 가로수가 도시의 필수 요소가 되는 과정을 살핀다.[14]

국내에서도 2010년대 후반 가로수에 대한 역사 연구가 등장한다. 김해경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에 따라 경성에서 가로수 식재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과정과 당대 도시인들의 가로수 인식을 검토했다.[15] 송석호와 김민경은 고문헌과 일제강점기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가로수 수종의 변천사를 정리했다.[16] 두 연구는 서울의 가로수의 변천을 도시계획과 식재의 관점에서 정리해 국내 가로수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김해경의 연구가 발굴한 가로수 경험에 대한 당대 증언은 가로수가 도입되며 도시 주체에게 다양한 감수성과 사회적 행위를 촉발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역사 연구는 가로수가 도입되고 확산되는 양상을 추적하고 가로수과 인간이 역사적으로 맺어온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 로렌스, 로리안, 김해경, 송석호와 김민경의 가로수 연구는 중세부터 근대 시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미시 경험에 대한 기록의 양이 현대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또한 경험의 주체 역시 일반 대중이 아닌 가로수 식재를 실행한 소수 유산층과 권력층에 한정된다. 한편, 듀플만과 비미쉬의 근현대 가로수에 대한 연구는 가로수 실천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일상 속에서 가로수를 만나는 도시민의 경험을 밝힌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밝힌 가로수 경험은 20세기 이전 과거의 것이며 인간의 사회적 경험에 비해 가로수에 대한 직접적 인지 경험은 주변적으로 나타난다.

과학과 역사, 국내외를 망라하는 가로수 연구에서 동시대 가로수를 경험하

---

14) Anne Beamish (2018), “A Garden in the Street: the Introduction of Street Trees in Boston and New York,”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8(1), pp.38-56.

15) 김해경 (2018), “일제강점기 경성 내 가로수에 대한 일고찰,”『서울과 역사』98, pp.145-185.

16) 송석호, 김민경 (2020), “서울시 가로수 역사와 수목 고찰,”『한국전통조경학회지』38(4), pp.58-67.

는 현상을 탐구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과학 연구와 같이 현재의 가로수와 도시에 주목하되 환경미학적 해석을 통해 도시 가로수와 관계 맺는 동시대 도시민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과 시각

이 연구는 도시 가로수 경험에 대한 접근과 그에 대한 해석의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접근 단계는 문헌 조사를 통한 가로수 경험에 대한 거시적 맥락 파악(Ⅱ장), 심층인터뷰를 통한 미시 경험의 수집(Ⅲ장)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접근 단계에서 성취한 역사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와 수집된 실제 경험 데이터를 토대로 환경미학적 시각에서 가로수와 관계 맺는 도시민의 경험을 해석한다(Ⅳ장).

이 연구는 도시민의 미시 경험에 접근하고 해석하기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가로수 경험의 역사문화적 조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가로수는 도시계획에 의해 극도로 인간의 영향을 받은 생물이자 동시에 문화적 산물이므로 가로수 경험은 가로수가 도시에 특정한 방식으로 편재하게 된 문화적 맥락 속에 놓인다. 이 연구는 먼저 국외 가로수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 르네상스 시기부터 근대까지 가로수가 정원에서 도시의 인프라로 확산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Ⅱ장 1절). 다음으로 근대의 표준화된 가로수 실천이 근현대 한국이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국내의 경우 가로수의 도입과 변천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로수에 대한 법과 제도를 한 축으로 두고 다른 한 축으로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국내 특정적인 가로수 경험을 조사했다(Ⅱ장 2절).

다음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동시대 도시민의 실제 가로수에 대한 경험을 수집한다(Ⅲ장). 직접적 가로수 경험은 선행 연구에서 지엽적으로나마 탐구되었다. 또한 시와 소설, 노래 가사, 자연 문학(nature writing), 미술 및 영화 등 여러 매체에 가로수 경험에 대한 기록이 흩어져 존재하지만,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가공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가로수 경험은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보여주지만 경험의 일면만을 보여준다. 이렇듯 기존 연구 및 자료는 총체적 가로수 경험의 일부만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심층적이고 다양한 가로수에 대한 미적 경험을 수집하고자 다섯 명의 동시대 도시민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때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IPA;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을 활용해 개인이 실제 겪은 경험의 다양한 양상을 도출해 미적 경험을 채록할 것이다. 구체적인 심층인터뷰 및 기술 기법은 Ⅲ장 1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미학적 데이터를 원료로 환경미학의 시각을 통해 가로수와 마주치는 도시민의 경험을 해석한다(Ⅳ장).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가로수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벌리언트가 제시한 기술적 미학(descriptive aesthetics)을 활용한다. 기술적 미학은 시, 소설, 자연 문학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미적 기술, 즉 생생하고 세밀한 묘사를 이론적 도구로 차용하는 것이다. 기술적 미학은 "공감각적이고 총체적 인지 경험"을 서술해 간과된 "대상, 경험의 과정과 특질을 포착"하게 만든다.[17] 이 연구는 수집된 경험을 재구성해 기술한 환기적 글쓰기를 통해 가로수에 대한 기술적 미학을 시도한다. 벌리언트의 언어로 말하자면, 가로수의 기술적 미학은 "우리의 지각을 안내해 [가로수에 대한] 미적 영역의 이해를 넓히는 진지한 시도"로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도구를 제공한다.[18]

Ⅳ장에서 이 연구는 가로수의 기술적 미학을 통해 가로수 경험을 환기하는 동시에 환경미학의 관점에서 가로수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한다. 환경미학은 감각을 이용해 직접 지각하는 모든 경험을 미적 경험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가로수 역시 인간이 느끼고 살아가는 미적 장(aesthetic field)으로서 환경이며, 가로수에 대한 경험은 곧 가로수에 대

---

17) Emily Brady (2022), "Global Climate Change and Aesthetics," *Environmental Values* 31(1), pp.27-46.

18) Arnold Berleant (1992), "Descriptive Aesthetics,"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p.25-39.

한 미적 경험이다. 이 연구는 환경미학적 시각에서 도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가로수가 가지는 미학적 의미에 주목하여 가로수와 관계하는 도시민의 삶의 영역을 해석한다. 가로수는 통상적 의미의 자연환경에 속하지 않지만 유기체로서 기후환경을 만든다. 동시에 가로수는 명백히 인공 환경을 구성하며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결부된 존재이다. 환경미학은 자연, 인공, 일상 환경을 포괄하는 여러 환경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미적 차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복합적 속성을 가지는 가로수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경험을 환경미학의 양대 모델인, 인식 모델과 지각 모델의 관점을 통해 해석한다. 자연을 적절히 감상하기 위한 미적 모델에서 출발한 환경미학은 크게 두 갈래, 즉 과학적 인식 모델(scientific cognitive model)과 지각 모델(perceptive model)로 발전한다. 알렌 칼슨(Allen Carlson)의 자연환경모델[19]과 아놀드 벌리언트(Arnold Berleant)의 참여 미학[20]으로 대표되는 초기 환경미학의 두 입장은 미적 경험의 필수 요소로서 과학 지식과 신체 감각에 중점을 둔다. 과학적 인식 모델(칼슨)과 지각 모델(벌리언트)은 각각 지식과 감각에 초점을 맞추어 미적 경험에 심도 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로수에 대한 경험의 인식적 차원과 지각적 차원을 이해하는 데 통찰을 제공한다.

인식 모델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깊을수록 더 풍부한 미적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견해를 공유하며,[21] 유기체 자연인 가로수에 대해 지식이 강한

---

19) Allen Carlson (1979), "Appreciation and the Natural Environmen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7(3), p.267-75. 칼슨의 환경미학 이론은 다음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상세히 검토된 바 있다. 배정한 & 조정송 (1996), "A. Carlson의 객관주의적 자연 감상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조경학회지』 24(2), pp.25-42.

20) Arnold Berleant (1985), "Toward a Phenomenological Aesthetics of Environment," *Descriptions* (H. Silverman and D. Idhe ed.), Albany: SUNY Press, pp.112-28. 벌리언트의 미학에 대해서는 조정송 & 배정한 (1994),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 19(10), pp.225-59 그리고 김상연 (2019), "환경, 신체, 참여: '적절한 자연 경험'을 위한 벌리언트와 뵈메의 제안," 『미학』 85(1), pp.37-68을 참고할 수 있다.

21) 과학적 인식주의 입장을 공유하는 다른 이론은 일부를 소개한다. 이들은 칼슨의 모델보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적 경험에 대한 이해를 열어준다. 지식을 중시하는 입장을 선도하는 칼슨은 과학 지식이 동원될 때 더 풍부한 인식, 인상, 정서를 얻는다고 설명한다. 과학 지식은 환경의 비형식적 속성, 이를테면 산맥의 힘, 생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계곡의 안전함 등을 드러낸다. 주체는 자연을 피상적으로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자연을 '그 자체로' 감상하도록 한다.[22] 마르시아 이튼(Marcia Eaton)은 생태학적 지식을 강조하며 역시 지식이 환경의 새로운 미적 차원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가령 어떤 딱정벌레가 난초류의 꽃가루를 옮겨 수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지식을 알고 있다면, '환경이 다소 생기 있게 보이기 시작'하며 미적 감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23]

반면, 벌리언트의 참여 미학을 필두로 하는 지각 모델은 환경의 감각적 특질을 풍부하게 지각할수록 더 풍부한 미적 경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계절과 장소, 수종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질을 지닌 가로수에 대한 지각 경험에 대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감각 중심 모델은 신체의 감각을 이용한 환경과의 지각적 만남을 강조한다. 현상학에 기반해 벌리언트는 감각적 특질들에 공감각적으로, 총체적으로 몰입하는 환경 경험, 그의 용어를 빌려 환경에 대한 '참여(engagement)'를 적절한 미적 감상으로 본다.[24] 예를 들어 홀로 카누

상대적으로 과학 지식 외 미적 경험의 구성 요소에 개방적이다: Glenn Parsons (2002), "Nature Appreciation, Science, and Positive Aesthetic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2(3), pp.279-95; Patricia Matthews (2002),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0(1), pp.37-48; Holmes Rolston III (1995), "Does Aesthetic Appreciation of Landscapes Need to be Science-based,"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5(4), pp.374-86.

22) Allen Carlson (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pp.131-72.

23) Marcia Muelder Eaton (2001), *Merit, Aesthetic and Ethic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175-96.

24) Arnold Berleant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를 타고 좁고 잔잔한 개울을 유유히 지나고 있을 때, 주체는 '풀과 덤불의 덩어리, 해안가의 울퉁불퉁함, 햇빛을 받아 눈부신 노란색으로 빛나는 서리를 맞은 잎이 달린 나무'를 분리된 대상으로 관조하기보다 그에 감각적으로 몰입한다.[25]

과학적 인식 모델과 지각 모델은 미적 경험을 이해하는 명확한 모델을 제시하며 환경미학을 하나의 분야로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들 모델에서 과학 지식과 감각 이외 미적 경험의 구성 요소, 이를테면 비과학적 지식, 정서, 상상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졌다. 이후 환경미학은 비과학 지식도 중시하는 준-인식주의적(quasi-cognitive) 관점,[26] 지각을 경험의 근본적 토대로 고려하지만 정서나 상상력의 역할을 제고하는 이론을 포함하는 비-인식주의적 관점으로 분기한다.[27] 후속 세대의 환경미학은 단초점의 두 모

---

25) Arnold Berleant (1992), pp.25-39.

26) 역사문화적 전통, 민속 문화, 자연 신화 등 과학 지식 외의 지식 역시 미적 경험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Yrjö Sepänmaa (1993), *The Beauty of Environment: A General Model for Environmental Aesthetics*, Helsinki: Environmental Ethics Books; Yuriko Saito (1998), "Appreciating Nature on its Own Terms," *Environmental Ethics* 20(2), pp.135-149; Thomas Heyd (2001), "Aesthetic Appreciation and the Many Stories about Nature,"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1(2), pp.125-37.

27) 지각을 기반으로 지각과 인식을 상호보완, 통합하는 입장으로 다음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예로 다차원적 미학을 표방하는 Robert Hepburn (1996), "Landscape and the Metaphysical Imagination," Environmental Values 5(3), pp.191-204가 있다. 지각 및 인식보다 정서적 반응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Noël Carrol (1993), "On Being Moved By Nature: Between Religion and Natural History," *Landscape, Natural Beauty and the Arts* (S. Kemal & I. Gaskell,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4-66가 있다. 지각과 지적 구성요소와 함께 상상력, 무관심성의 개념으로 통합미학을 전개하는 Emily Brady (1998), "Imagination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pp.139-47, 미적 경험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John Andrew Fisher (1998), "What the Hills Are Alive With: In Defense of the Sounds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pp.167-79, 그리고 Malcolm Budd (2002),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델에서 비교적 고려하지 않은 정서, 상상력 등 구성 요소를 추가하고 기존 모델의 이론적 자원을 상호보완한다. 이 연구는 동시대 환경미학의 시각에서 지각 모델, 인식 모델을 토대로 감각 또는 지식을 중심으로 가로수의 경험을 해석하되, 문화적 맥락과 정서, 상상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이 연구는 일상 속 가로수를 환기하고 가로수에 얽힌 도시의 삶의 본질적 측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접근과 해석이라는 두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다. 가로수의 미적 경험에 대한 접근은 또한 두 단계로 나눠 Ⅱ장 '가로수 경험의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조건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Ⅲ장 '가로수의 미적 경험 기술'에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경험을 수집한다. Ⅱ장과 Ⅲ장에서 검토하고 기록한 가로수 경험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Ⅳ장 '가로수의 미적 경험 해석'에서는 실재하는 가로수 경험을 환기하고 가로수가 도시민의 삶에 통합된 부분으로서 갖는 의미를 해석한다[그림 Ⅰ-1].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가로수란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수목"을 포괄한다.[28] 가로수가 존재하는 환경은 시가지와 교외뿐 아니라 농촌, 산간, 해안, 강변 지역 등 다양하며, 이는 도시와 비도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 연구가 중점을 두는 가로수 경험은 도시 지역에서의 경험이지만 도시민의 광역생활권 안에 있는 범위, 즉 도시 내부 혹은 근교에 있는 산간, 해안, 강변의 가로와 도시 간 도로에서 경험까지 포함한다. 또한 가로수는 전 세계 도시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나 연구자 본인과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도시민이 살아가는 시공간적 맥락이 동시대 한국에 놓이므로 이 연구에서 다루는 미적 경험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는 21세기 초반 한국으로 한정한다. 다만 Ⅱ장은 동시대의 미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역사적 검토이므로 근세 유럽과 근현대 한국의 맥락을 두루 살펴본다.

Ⅱ장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경험이 형성되는 문화적 맥락에 대해 개관한다. 1절에서는 가로수가 근세 유럽에서 도시 외곽 또는 교외에 존재하다 프랑스 절대 왕정의 가로모델에 통합되어 점차 도시성과 공공성을 띠는 공간에 도입되고 나아가 근대 도시의 인프라로서 전세계 도시에 보편화되는 과정을 추적

28) 산림청 (2018),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p.6.

한다. 2절에서는 한국의 가로수가 근대 도시화 시기에 경성을 중심으로 도입된 후 국토 개발 그리고 범국가적 행사의 유치에 따라 도시에 광범위하게 식재되고 확산되는 과정과 시대별 주요한 가로수 경험을 검토한다.

Ⅲ장은 도시민의 실질적 가로수 경험에 접근하는 이 연구의 핵심 단계로, 이 장에서 가로수에 대한 다양하고 총체적인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수행한다. 1절에서 심층인터뷰 기법과 미적 양상(aesthetic aspects)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IPA기법을 설명하고, 2절에서 보행, 주행, 조감 경험의 큰 분류에 따라 가로수 경험의 미적 양상을 채록한다. 3절에서는 도출된 미적 양상을 요약해 서술한다. Ⅲ장에서 이 연구는 가로수에 대한 경험의 대다수가 계절 인지와 연관된다는 점을 드러내며, 보행의 경우 구체적 특질의 공감각적 지각이 우세하고 주행의 경우 가로수를 풍경으로 감상하는 경향을 확인한다. 또한 선입관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식으로 가로수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양상을 발견한다.

Ⅳ장은 가로수에 대한 미적 경험을 해석하는 단계로, 도시의 비인간-생물이자 식물인 가로수에 얽힌 도시민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수집한 실제 가로수 경험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한 생생한 기술을 제시해 가로수의 존재를 환기한다. 또한 환경미학의 지각 모델과 인식 모델을 논의의 두 중심축으로 삼아 지각 중심 경험과 인식 중심 경험으로 나타나는 가로수의 미적 차원을 해석한다. 1절과 2절은 지각 중심 경험에 대한 해석이다. 1절에서는 미적 주체가 계절 및 기후 현상에 따라 유기체로서 가로수와 미기후, 환경에 공감각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해명한다. 2절에서는 주로 주행 경험에서 가로수를 풍경으로 감상함에 있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능동적 관조로 이행하는 양상을 추적한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인식 중심 경험을 논의한다. 3절에서는 과학 지식이 주체를 더 풍부한 미적 차원으로 인도하는 양상과 특정 상식이 가로수의 대상화를 강화하는 대조적 양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서 인식이

작용하여 미적,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경험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도시의 비인간-생물이자 식물인 가로수와 도시민의 다양한 '관계 맺음'에 대해 밝힌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고찰하면서 연구를 매듭짓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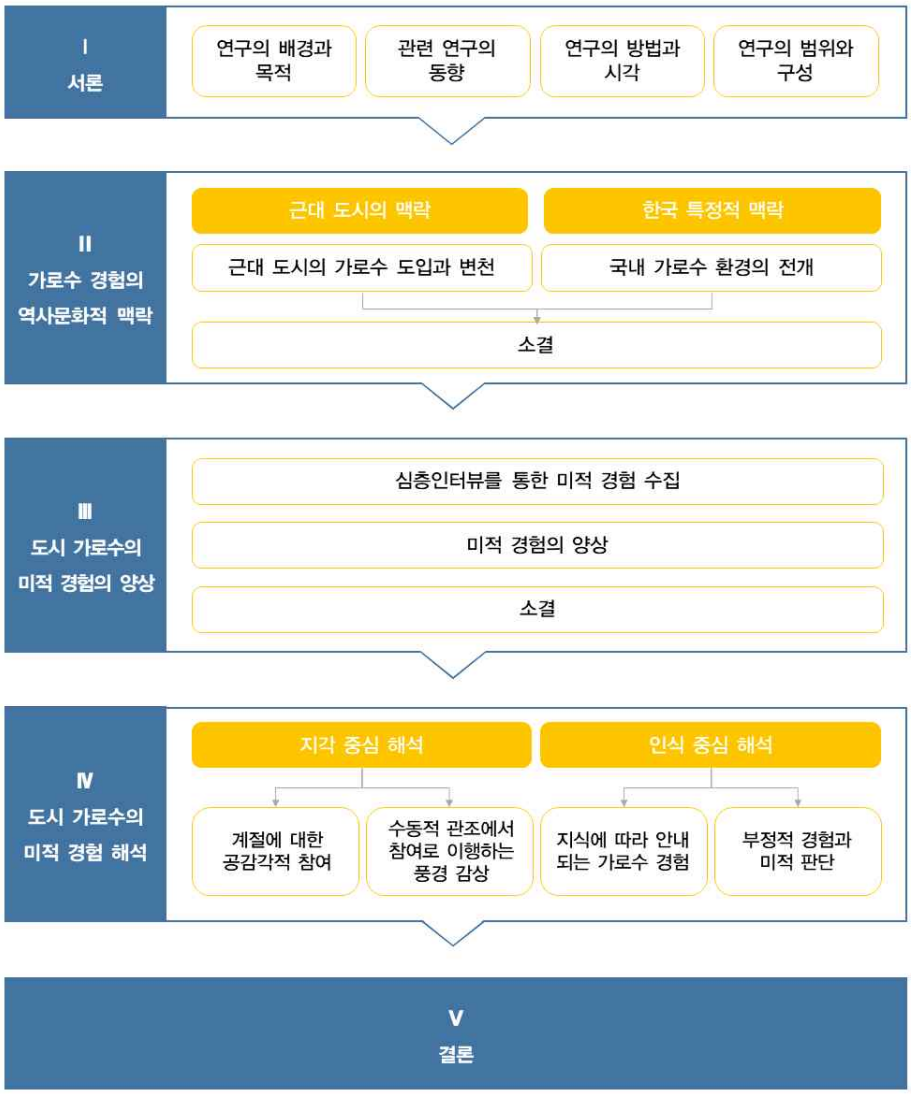

그림 Ⅰ-1. 연구의 구성과 흐름

Ⅱ. 가로수 경험의 역사문화적 맥락

가로수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인 동시에 철저히 인간의 의도에 따라 도시에 도입되고 관리되며 살아왔다. 이 연구의 초점은 개인의 가로수 경험에 있으나 그 미시적 경험의 배경에는 인간이 도시 안팎에서 나무를 길에 도열해 온 역사와 문화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로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가로수를 전 세계 도시로 수출하는 근대 이전 서구 유럽의 맥락과 근현대 한국의 지역 특수적 맥락을 검토한다.

가로수는 근대기에 표준화되어 전 세계 도시에 이식되었다. 따라서 어떤 가로수에 대한 경험에 작용하는 문화적 맥락은 그 경험이 실제 일어나는 특수한 시공간의 맥락을 넘어 가로수 및 도시 환경의 전형이 탄생하는 근대 이전의 유럽의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인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가로수의 역사를 서술한 선행 문헌을 검토해 먼저 서구 유럽에서 가로수가 도시에서 지금과 같은 모델로 표준화되기까지의 변천사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가 수집하는 미적 경험의 공간으로서 한국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에서 근현대 가로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법제,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토대로 가로수가 한반도에 도입되고 확산되는 시대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특히 도시민 일반의 경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의 도시라는 특정한 시공간이 가지는 가로수 경험의 맥락을 독해하고자 한다.

1. 근대 도시의 가로수 도입과 변천

1.1. 초기 가로수의 양상

전근대 시기 가로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길, 정원의 산책로인 알레(allée), 교외 도로로서 애비뉴(avenue), 성채 위, 도시 운하 및 도로에 심어졌다. 정원과 교외 도로, 성채를 중심으로 나무를 열식하는 전통은 16세기 전후 유럽에서 확산된다. 네덜란드 등지의 저지대 자유도시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 대륙에서 가로수는 도시의 바깥, 즉 교외나 도시 외곽을 따라 확산된다.

르네상스 정원이나 애비뉴에서 길은 주로 직선의 축으로 조성되었다. 나무는 길의 기하학적 형식을 조직하는 틀로 활용되었다.[1] 르네상스가 성숙한 16세기에 이탈리아 빌라정원이 유행하면서 나무는 기하학적 공간의 구성 요소로 유럽 각지에 식재된다(그림 Ⅱ-1). 기하학적 대칭과 축선을 강조하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미적 규범을 따르는 르네상스 정원의 산책로에서 동일한 크기와 수종의 나무는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배치되었다. 정원의 가로수 원형은 산책 및 사교활동을 위한 공간의 축을 구성하는 동시에 전망(vista)을 위한 시각적 축을 생산하는 관상 요소로 식재되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 프랑스 농촌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은 애비뉴가 확산되는데, 애비뉴는 본래 귀족의 영지, 농장이나 마을로 접근하는 도로였다.[2] 애비뉴에서 나무는 정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선의 길을 강조했으며, 애비뉴에 나무를 심는 실천은 주요 역로를 따라 퍼져 나간다.[3]

---

1) 코스토프 (양윤재 역, 2009),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서울: 공간사. p.250. (S. Kostof [1991], *The City Shaped: Urban Patterns and Meanings through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Ltd.)
2) Kevin Lynch (1984) *Good City Form*, Cambridge, MA: MIT Press, pp.374-75.
3) 코스토프 (2009), p.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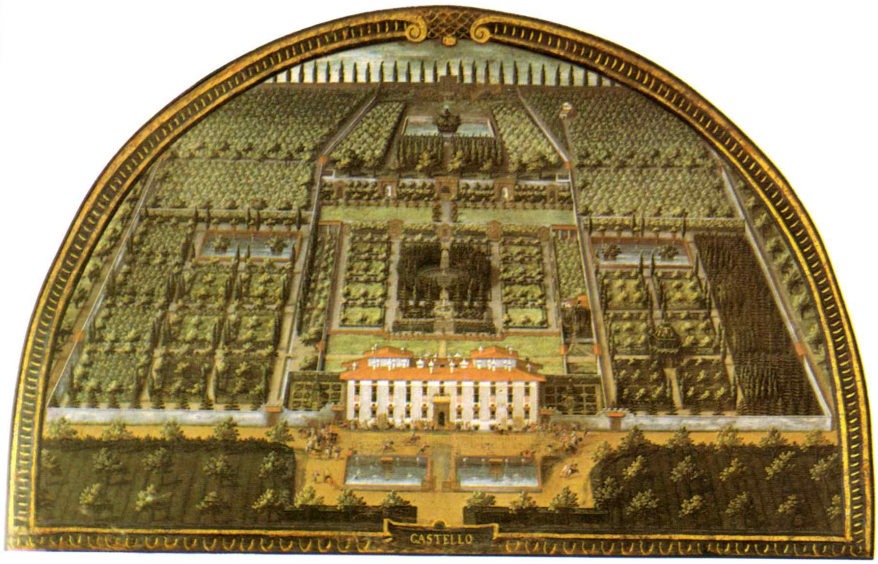

그림 Ⅱ-1. Giusto Utens (1599), 「Villa Medici di Castello」
in the collection of *Museo di Firenze Com'er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astello_utens.jpg

정원 알레의 나무가 정교한 예술적·건축적 형식을 강화하는 특성을 가졌다면, 애비뉴의 나무는 전원을 꿰뚫으면서도 비교적 주변과 동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4] 그러나 두 유형의 가로수는 모두 '자연'의 요소를 길들여 인간, 이를테면 정원의 주인이나 지역 영주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축을 생산했다. 지배계급은 정원과 애비뉴의 열식된 나무의 조성 주체이자 주요 이용 주체였다. 산책자이자 전망을 소유하는 감상자로서 이들에게

4) 빌라 정원의 주변부에는 내부의 기하학적 알레보다는 외부 전원 도로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가로수길이 조성되었다. 외부의 전원적·자연적 환경과 인접한 구역에서 나무는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모습으로 보존되기도 했다. 특히 제대로 된 정원에는 삼림지(barco; bosco)가 조성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역의 통행로에는 완전히 자란 교목이 열식되었다(Claudia Lazzaro & Ralph Lieberman (1990), *The Italian Renaissance Garden: from the Conventions of Planting, Design, and Ornament to the Grand Gardens of Sixteenth-century Central Italy*,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p.109-30).

나무는 녹음을 제공하는 실용적 수단이자 시각적 축을 장식하는 감상의 대상이었다.

성벽 위 나무와 저지대 자유도시의 사례는 16~17세기를 거치면서 산책과 미적 감상이라는 전형적 경험 방식을 정원의 사례와 공유한다. 독일 북부 등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중세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성벽 위에 나무를 심었다.[5] 나무가 심어진 성벽은 평시나 혹은 도시 팽창으로 성벽의 방어 기능이 퇴색되는 시기에 산책로로 이용된다.[6] 상공업이 발달한 저지대 자유도시에서는 부유한 상인들이 경제적 번영이 정점을 찍던 17세기에 가로수로 도시의 운하와 거리를 장식했다.[7]

영국의 작가 에블린(John Evelyn)의 방문 기록은 성벽 산책로와 저지대 도시 가로수길에 대한 당대인의 경험을 보여준다. 그는 앤트워프(Antwerp)의 성벽 산책로에 대해 "기분 좋은 그늘과 웅장한 나무가 있는 산책로가 나를 더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 나무들은 비길 데 없이 요새화된 도시의 보루를 유럽에서 가장 달콤한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증언했다.[8] 거의 모든 도

---

5) 이탈리아 중부 도시 루카(Lucca)의 성벽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나무는 첫 번째 방벽(curtain walls)이었으며…주요 기능은 벽을 구성하는 거대한 양의 토양을 압축하고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나무는 유사시 땔감이나 말뚝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Roberta Martinelli & Giovanni Parmini (1996), *A Renaissance Fortification System: The Walls of Lucca*, Maria Pacini Fazzi Editore, p.78).

6) Lawrence (2008), p.38.

7) 상공업이 발달한 저지대 자유도시에서는 강력한 군주제와 계급제가 존재하는 국가와 달리 호화로운 사유정원 대신 도시의 통로, 즉 운하와 거리에 가로수가 등장한다.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들은 건물이 즐비한 운하에 나무를 줄지어 심기 시작했고 몇몇 운하는 메워 나무가 있는 거리를 조성했다. 네덜란드 전역에서 공공 도로의 나무는 일반적 특징이 되었다. 이러한 녹음이 우거진 도시에 대한 동경은 국제적 교류를 통해 다른 유럽 도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로렌스에 따르면 다른 유럽 도시에서 공공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모방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현대 도시 가로수는 공공 교통시스템과 나무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16세기 네덜란드 자유도시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프랑스의 선례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었다(Lawrence (2008) p.38.; Henry Lawrence (1988), "Origins of the Tree-Lined Boulevard," *Geographical Review* 78(4), p. 360).

8) Lawrence (2008), pp.25-26 재인용(John Evelyn (1879) *The Diary of John Evelyn*.

로에 가로수가 심어진 위트레흐트(Utrecht)를 조망한 에블린은 '숲 속 도시' 또는 '도시 속 숲'이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그림 Ⅱ-2).[9]

정리하자면, 유럽에서 가로수는 르네상스의 문화적·경제적 부흥을 거치며 도시의 바깥에서 기하학적 형식의 길과 결합했으며, 그 목적은 대개 그늘 제공과 미화(beautification)였다. 16~17세기 나무가 열식된 빌라정원, 에비뉴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고 성벽 산책로와 저지대 도시 가로가 유럽에서 화제가 되었다. 나무가 심어진 산책로의 유행과 함께 특권층을 중심으로 그러한 길을 걷고 감상하는 방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1.2. 프랑스 절대왕정의 가로모델

17세기는 절대 왕정이 활약하던 시기이자 르네상스에 촉발한 국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때 유럽 전역에서 정원의 알레, 교외 애비뉴, 성벽 위 길이라는 세 유형이 확산되고 절대주의, 교통수단의 발달 등과 맞물려 여러 유형이 혼합된다. 특히 프랑스 절대왕정 시기 수도 파리와 베르사유에 조성된 공간들이 강력한 모델로 부상하며 유럽 전역의 도시와 타 대륙의 식민 도시에서 모방된다.[10]

17세기 전후로 나무는 정원 밖 대규모 선형 공간을 조직하는 틀로 확장된다. 16세기 말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출범하며 절대군주와 왕실의 핵심 인물들은 파리 성벽 외곽에 여가 공간을 조성하며 정원 알레의 형식을 차용한다. 앙리 4세가 펠멜(palemail) 게임장을 길 양쪽에 나무를 심은 알레로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왕녀와 왕비는 마차산책을 위해 여러 나무열이 있는 큰 규모의 알레, 쿠르(cours)를 도입한다. 루이 14세는 파리 성벽의 일부 구간에 나무를 심어 차후 '블러바드(boulevard)'로 통칭되는 나무가 심어진 넓은

Bickers, p.38).

9) Lawrence (2008), p.44 재인용(Evelyn (1879), pp.27-8).

10) Lawrence (2008),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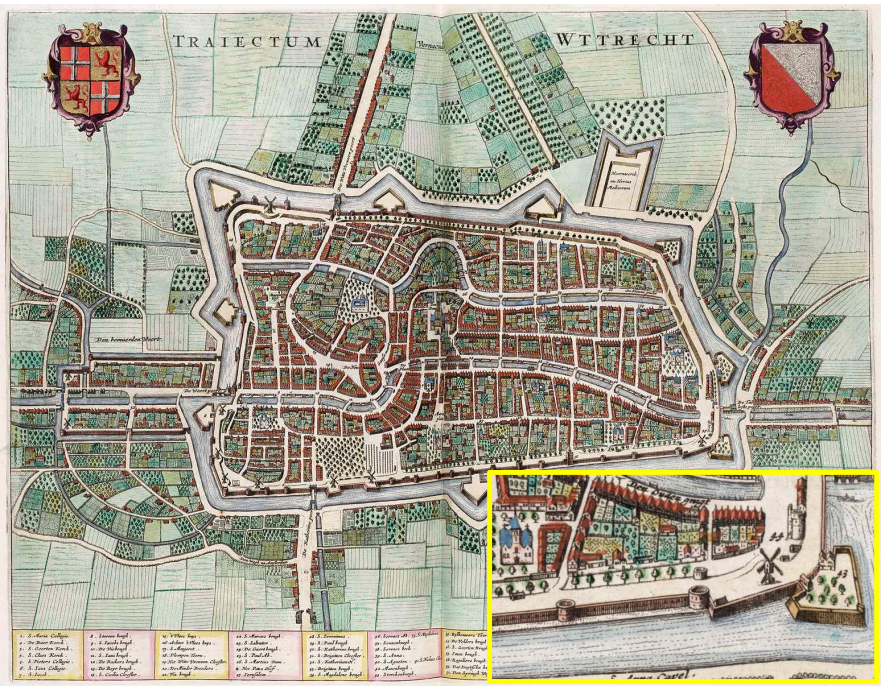

그림 Ⅱ-2. Unknown author (1649), 「Map of Utrecht」,
출처: *Atlas van Loo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raiectum_-_Wttecht_-_Utrecht_(Atlas_van_Loon).jpg

산책로를 조성한다.

나무 식재는 왕실의 법적 특권[11]이었으므로 나무로 '미화'된 펠멜, 쿠르, 블러바드는 왕실의 '관용'으로 가능한 여가 및 사교 활동의 장이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나무가 열식된 공간의 조성 주체는 여전히 왕가의 일원이었으나 실질적 이용 주체는 왕족 및 귀족 계층 너머로 확대된다. 루이14세의 블러바드는 "부르주아 계급과 도시 주민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할 목적이었으며,[12]

11) Lawrence (2008), p.58.
12) Mary Forrest & Cecil Konijnendijk (2005) "A History of Urban Forests and Trees in Europe," *Urban forests and trees*, Berlin; Heidelberg: Springer, pp.23-48.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의 쿠르 역시 부르주아 계층과 대학생도 출입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공공성을 띤다.

또한 루이14세는 베르사유를 개발하며 정원뿐 아니라 궁전으로 진입하는 세 갈래의 장대한 애비뉴에 가로수를 심었다. 가로수는 기하학적 형식과 대칭을 이루는 두 사선이 중앙축으로 합치되는 모양을 조직했다. 다시 말해 가로수는 태양왕의 절대 권위에 대한 상징적 축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왕은 주변 건축물 높이를 나무의 수고 아래로 제한해 '녹색 전망'을 전유했다.[13] 또한 베르사유의 애비뉴는 네덜란드 운하 도로를 제외하고, 농촌이 아닌 도시의 공공 도로에 나무를 열식한 서구 최초의 사례였다.[14]

나무가 심어진 길은 공공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새로운 이동 수단과 결합한다. 마차가 대중화되고 차량의 통행량이 늘면서 나무는 도보 산책로를 차량 통행을 위한 길을 구성하게 된다. 예컨대 앙리4세의 왕비 마리 드 메디시스(Marie de Médicis)의 마차산책로인 쿠르라헨느(Cours de la Reine)는 느릅나무 4열의 알레가 1km 넘게 이어져 있는 3차선 도로였다(그림 Ⅱ-3). 이상 언급한 두 쿠르는 차량용 도로에 나무를 도입한 유럽 최초의 사례 중 하나이다.[15] 이후 루이14세는 블러바드와 애비뉴를 도시에서 물자나 군대가 이동하기 쉽도록 넓은 대로로 조성한다.[16]

17세기 절대왕정의 가로모델에서도 도시 외곽에 그늘을 드리우고 선형의 길을 조직하고 장식하는 가로수의 특성은 지속된다. 그러나 정치·사회·기술의 변화에 따라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가로수가 있는 길은 일부 공간에 한해 이용계층이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이때 절대왕정이 조성한 마차 산책로나 애비뉴에 가로수가 통합되어 새로운 가로수 경험이 유럽 각지로 전파된다. 이

---

13) Lawrence (2008), p.58.
14) 코스토프 (2009), p.233.
15) Lawrence (2008), pp.34-36.
16) Laurian (2018), p.11 재인용(François-André Isambert et al (1829), "Recueil Général des Anciennes lois Françaises Depuis l'an 420," *jusqu'à la Révolution de 1789, t. XIV*, Paris: Belin-Leprieur).

그림 Ⅱ-3. Pierre-Alexandre Aveline (1616), 「Le Cours de la Reine」 in the collection of *Muse´e Carnavalet d'Histoire de Paris*, https://www.parismuseescollections.paris.fr/fr/musee-carnavalet/oeuvres/veue-du-cours-de-la-reine

제 차량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가로수를 마주치는 경험이 발생한다.

1.3. 도시 가로수의 보편화

18세기 파리에서는 나무가 열식되는 새로운 공간 유형이 탄생하기보다 블러바드, 쿠르 등 기존 공간을 확장·개선하는 실천이 주로 진행된다. 또한 이 시기는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기존 가로수가 있는 교외 공간이 도시적 성격을 띠게 되며, 계몽주의의 도시 담론에 가로수가 포함된다. 결국 19세기 유럽의 근대화에 따라 가로수는 도시 인프라에 통합되어 전 세계로 이식된다.

먼저 기존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8세기 인구 증가 추세가 심화되며

샹젤리제 거리(그림 Ⅱ-4)[17]나 파리 북서부 블러바드 등 교외 산책로 주변이 개발되고 가로수가 열식된 공간이 대중의 통행로가 된다(그림 Ⅱ-5).[18] 프랑스혁명이 왕가 사유지의 문을 대중에게 개방하면서 가로수가 식재된 공간은 특권층 전용 공간에서 공공 산책로로 거듭났다. 한편 앙시앙 레짐 말기 루이 15세와 16세는 성벽에 국소적으로 존재하던 블러바드를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대로로 확장한다. 블러바드는 여전히 지면 높이가 아닌 성벽 위에 존재했지만 교통 체계로서 면모를 띠기 시작했다.

유럽에 가장 영향력 있는 가로모델로서 대규모의 알레, 블러바드, 애비뉴는 18세기 공공 공간으로 변화한다. 여전히 이러한 공간은 성벽이 규정하는 도시의 바깥, 즉 교외 지역이었으나 도시 팽창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시 조직에 편입된다. 절대왕정의 산책로가 공공 가로(public street)로 거듭나면서 나무는 말 그대로 가로를 구성하는 '가로수(street tree)'로서 면모를 띤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이 거주하는 18세기 파리의 도심부에서는 나무를 찾기 어려웠다. 중세의 도시 환경을 가진 도심부는 인구 폭증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한 마차가 대중화됨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도로는 교통 체증과 사고의 온상이 되어 개선이 요구되었다(그림 Ⅱ-6). 이때 나무의 공기정화 기능에 대한 의학 이론이 알려지면서 가로수 식재가 장려되었다.[19] 19세

---

17) 튈르리 애비뉴(Avenue des Tuileries)는 루이14세 재위기에 만들어진 튈르리정원에 진입하는 대규모 알레이다. 18세기 초 튈르리애비뉴는 성벽 바깥으로 더욱 연장되고 샹젤리제(Champs-Élysées)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Par Noëlle Dorion (2013), "Petite histoire des alignements a` Paris du XVIe` sie`cle au XIXe` sie`cle," *Jardins de France* 626, pp.7-9).

18) 특히 18세기 후반 도시 북서부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여가 인구를 위한 카페, 극장, 레스토랑이 즐비하게 되면서, 기존에 도시 외곽에 존재하던 블러바드는 이 시기 야외산책로를 넘어 위락 구역의 통행로가 되었다. 샹젤리제 역시 18세기 후반이 되면 근처에 고급주택이 개발되고 레스토랑, 카페, 무도실 등이 생겨나며 대중에게 인기 있는 위락 구역 사이의 길이 된다(Frederick Marshall (1852), "The Champes Elysees: From the French," *Ainsworth's Magazine* 22, pp.401-03).

19) Anne Beamish (2018), "A Garden in the Street: the Introduction of Street Trees in Boston and New York,"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8(1), pp.3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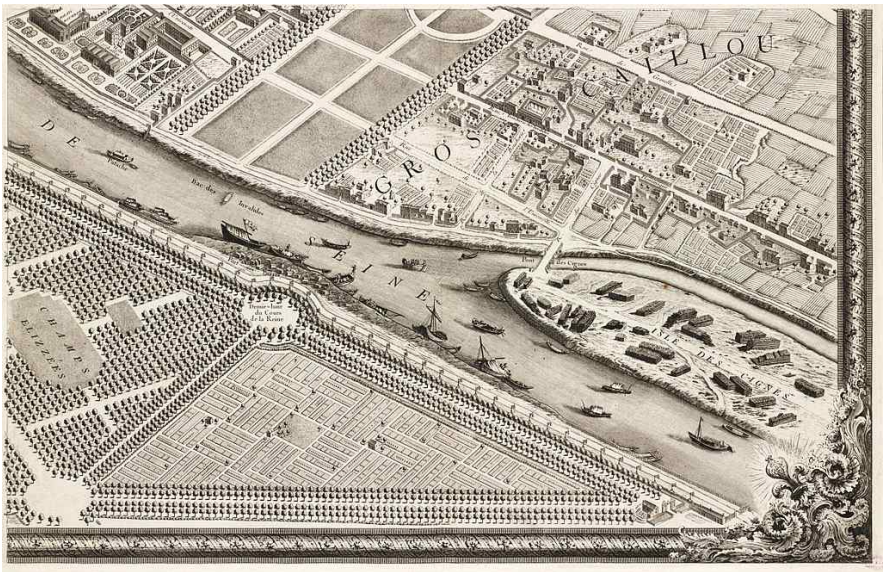

그림 Ⅱ-4. Louis Bretez & Claude Lucas (1739), 「Turgot's Plan de Paris」 in the collection of *Norman B. Leventhal Map Center*, https://en.wikipedia.org/wiki/File:Turgot_map_of_Paris,_sheet_20_-_Norman_B._Leventhal_Map_Center.jpg

그림 Ⅱ-5. Louis-Joseph Mondhare (18th century), 「Vue du boulevard prise de la Porte St. Antoine」 in the collection of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https://data.bnf.fr/14531157/louis-joseph_mondhare/

그림 Ⅱ-6. Dessin de M.Crafty (1866), 「La rue où l'on pave」
in the collection of *Musée Carnavalet, Histoire de Paris*,
https://www.parismuseescollections.paris.fr/en/node/394603

기 중후반 나폴레옹 3세의 파리 지사, 오스만(Baron Haussmann)는 파리 개조사업을 실행해 도심부를 방사형으로 가로지르는 너비 26m가 넘는 광대한 대로의 블러바드 체계를 구축한다. 이때 도시 가로는 지금과 같이 하수구, 가로등이 완비되고 가로수가 좁은 보도와 넓은 차도를 구분 짓는 형태를 갖게 된다. 공중보건과 효율적 교통이 중대한 과제였던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가로수는 공기를 정화하고 도시를 미화하며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틀로써 도시에 안착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역시 19세기 도시 인프라에 가로수가 대규모로 통합된 선례를 제공하는데 역시 절대왕정의 가로모델을 따른 것이었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가로모델을 체계적으로 확장한 19세기 후반 파리와 비엔나는 이후 근대 도시의 전범이 되었으며, 가로수를 포함한 도로의 공학적 표준이 성문화된다(그림 Ⅱ-7). 근대화하는 전 세계 도시에서 이러한 모델을 따르면서 가로수는 도시의 필수 요소로 보편화된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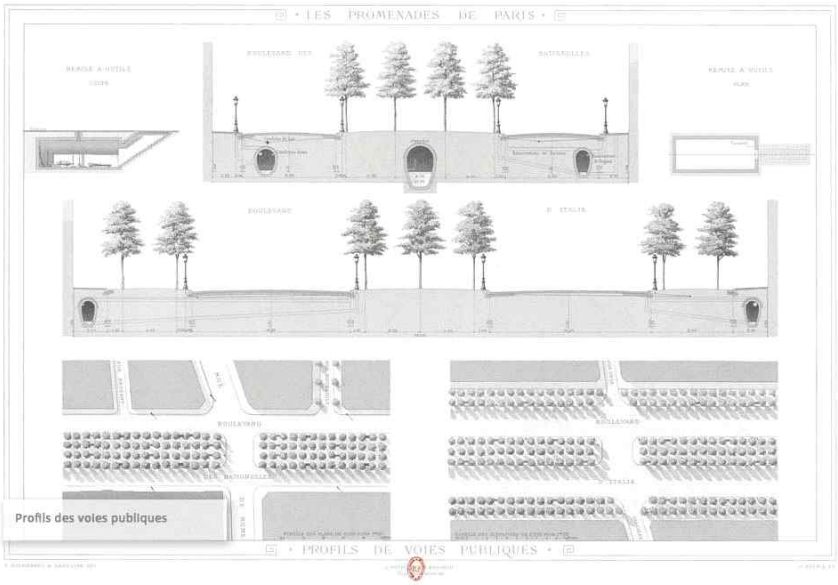

그림 Ⅱ-7. Jean-Charles Adolphe Alphand (1867-1873),
「Profils des Voles Publiques」,
출처: 『Les Promenades de Paris(vol II)』
in the collection of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6276852z

20) Lawrence (2008), p.254.

2. 국내 가로수 환경의 전개

2.1. 근대적 가로수 도입

한반도에도 근대도시화와 함께 가로수가 등장한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가로 모델을 체계적으로 확장한 19세기 후반 파리와 비엔나는 이후 근대화하는 많은 도시의 모델이 되며 가로수가 통합된 도로 체계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모방되는데 동북아시아의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21]

근대 시기 첫 가로수는 명성황후 국장이 치러질 무렵인 1897년에 등장한다. 혜화동 주민 홍태윤은 서울 동대문 밖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에 이르는 도로의 양쪽에 백양수(白楊樹)를 가로수로 심었다".[22] 이 가로수는 대한제국이 탄생한 해에 심어졌으나 근대적 행정주체의 도시계획이 아닌 개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조선왕조와 연관된 길을 장식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르봉 왕조의 샹젤리제 거리가 그러했듯 도시가 팽창하고 전찻길이 깔리며 홍릉 가는 길은 20세기 초반 서울 시민의 산책로로 거듭난다.[23]

근대기 조선에게 전근대 국가에서 탈피하고 독립된 문명국가를 구축하려는 치도(治道)는 중요한 과업이었고 가로수 식재는 그에 포함되었다. 1895년 개화파 박영효는 "아국(我國)의 고유한 독립기초를 세우고 모든 제도의 혁신을 위하여 백폐(百弊)를 예제(乂除)하는 건"이라는 내무아문(內務衙門) 훈시에서 도로의 건설 및 침수 방지 등 내용과 함께 '도로 좌우에 수목 식양'을 권장했다.[24]

그러나 국권 침탈로 인해 도시 인프라로서 가로수 식재는 식민권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제는 서구식 표준을 따랐으므로 가로수는 아스팔트 도로와 보도, 가로등, 전봇대, 전차 등 선형 인프라에 통합되어 신작로를 따라 늘어섰

---

21) Lawrence (2008) p.254.
2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2), 『국역 경성부사』 제1권, p.631.
23) 『동아일보』 (1934. 05. 26.), "명일요는 어디로 첫여름의 들에서 록음은 부른다".
24)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3월 10일 신사.

다.[25]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틀로서 도로 인프라와 함께 도시의 공간 질서를 변화시켰다. 가령 조선시대 광화문 앞 육조 거리는 일방향적 이동을 위한 직선의 길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마당에 가까웠다(그림 Ⅱ-8). 그러나 일제강점기 가로수는 녹색 '미관'을 생산하며 도로를 따라 육조 거리를 잘게 분리한다(그림 Ⅱ-9).

일제강점기 초반에 가로수는 광화문을 비롯한 남대문, 을지로 등 정치, 경제의 중심지를 미화하는 데 활용된다. 1930년대 말이 되면 가로수는 도시 전역과 간선도로에 확산되어 도시의 길을 오가는 많은 도시민의 일상에 자리하게 된다.[26] 정지용의 시 "아스팔트"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새로운 서울 거리를 걷는 산책자의 경험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가로수 이파리마다 발발하기 물고기 같고 유월 초승 하늘 아래 밋밋한 고층건물들은 삼나무 냄새를 풍긴다'며 근대 도시의 산물을 흠뻑 느낀다.[27] 상전벽해의 도시에서 도시민은 '도회의 가로수'를 인지했으며, '도시미'의 필수 요소로서 가로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28]

또한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들에서 당대 경성인들이 가로수를 매개로 계절 변화를 인지하고 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서울의 도시민은 봄에 가로수의 개엽을 보고 꽃 구경을 하며 여름에는 무더위 속 가로수 그늘에서 쉬며 단풍과 낙엽을 보면 가을을 실감했다.[29] 한편 새로운 교통수단인 전차에 빠르게 적응한 경성인들은 달리는 전차 안에서 가로수를 경험한다.[30]

---

25) 김백영 (2006),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 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향", 『일본연구논총』 23, pp.407-49.

26) "대경성부대관"은 1935년에 찍은 항공사진을 토대로 그린 입체적인 조감도 형식의 지도로서, 기존 파노라마 지도보다 왜곡이 적고 건물 입면뿐 아니라 가로수 입면까지 파악할 수 있다(서울역사박물관 (2015), 『대경성부대관』).

27) 정지용 (1941), "아스팔트", 『백록담』 제5권, p.11.

28) 『동아일보』 (1937. 07. 03.), "위생시설을 완비하라"; 『조선일보』 (1932, 05. 04,) 도시미 보식육백주의 가로수륙천본".

29) 『동아일보』 (1933. 05. 01.),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 『동아일보』, (1935. 08. 03), "가로에 하훼재배"; 『조선일보』, (1939. 11. 08), "금일이 입동".

30) 서울역사박물관 (2019), 『서울의 전차』,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p.4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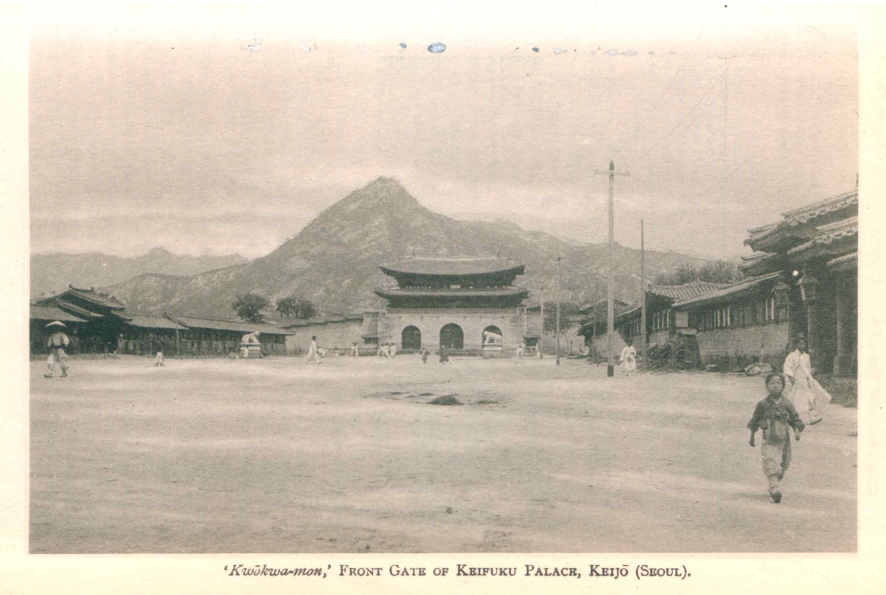

그림 Ⅱ-8. 가로수가 심어지기 전 경복궁 광화문 (1913),
출처: 『Manchuria & Chosen』(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Railway ed.), 서울역사아카이브 제공

그림 Ⅱ-9, Day, US Army Signal Corps (1948),
일제강점기 직후 가로수가 늘어선 광화문 거리,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제공

당대 소설 속 경성에서 전차를 탄 주인공에게 보이는 창밖 풍경은 '어른거리는 눈에 익은 건물과 길나무[가로수]들이 뾰족한 잎사귀를 내민 모습'이다.[31]

정리하자면, 근대기 한반도에서 가로수는 도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며 국권 침탈 이전부터 식재가 요청되었고 식민권력에 의해 서구 유럽의 표준 형태로 주요 도시에 도입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도시 팽창, 전차의 도입, 서구식 도로 건설은 전근대 사회를 살던 조선인의 도시에 대한 경험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가로수와의 조우는 근대화하는 도시의 새로운 경험 중 하나였다.

2.2. 국토 개발과 가로수 식재

유럽에서 일본을 경유해 한반도에 이식된 도시 가로수는 근대식 포장 도로를 건설하는 데 동반되는 시설물로 취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도로령에서와 마찬가지로 1961년 제정된 도로법은 가로수를 각종 표지판과 가로등과 함께 도로부속물로 규정한다.[32]

가로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빈곤을 겪는 와중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도시민이 일상에서 죽거나 병든 가로수를 마주치게 되자 가로수를 메꾸어 심자는 여론이 형성된다. 1960년대 후반 이러한 요구가 절정에 이른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심어지고 전쟁에서 생존한 서울의 가로수의 삼 분의 일 가량이 수명이 다해가던 때였다.[33] 한 서울시민은 죽어 없어진 가로수가 듬성듬성 있는 거리를 '나이 많은 노인들의 이가 빠진 것처럼 가로수가 군데군데 없어진 곳'에 비견하며 비판했다.[34] 한 전문가는 가로수를 보식하지 않아 도시가 '정연미'

---

31) 현빙허 (1934), "적도", 『조선중앙일보』.
32) 『도로법』 [법률 제1281호, 1963. 2. 26.] 국토교통부.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20220308,18555,20211207)/제2조.
33) 『동아일보』 (1967. 08. 07.), "노후 가로수 30% 연대 고사 우려".
34) 『경향신문』 (1966. 09. 19.), "자취 감춘 가로수 언제심나".

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질식에서 구원할 수도 있는 가로수 행정의 청사진'을 요구했다.[35]

비슷한 시기 불거진 다른 문제는 외래종 가로수 해충 피해였다. 1958년 일본을 거쳐 유입된 북미 원산의 미국흰불나방은 봄의 가로수 잎을 모조리 갉아 먹었다. 시민은 '봄이 되었는데도 도시 가로수의 잎 구경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며 한탄했다.[36] 1960년대 전국 가로수의 잎이 전멸하는 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해충이 부화하기 전에 나무를 강전정하는 물리적 방제로 대응한다.[37] 이 시기 도시민의 경험 속 가로수는 '흰불나방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기고 갉아먹은 가로수'[38] 또는 가지치기된 '벌거숭이 가로수'[39]로 나타난다.

국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1970년대가 되어야 가로수 조성이 본격화된다. 박정희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는 1972년부터 가로수 식재에 박차를 가한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전국 국도에 대한 가로수 경신계획이 발표되었으며, 1973년에 가로수 업무가 현재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건설부에서 내무부 산하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다음 해 산림청은 「가로수정비10년계획」에 착수하며 전국 국도의 가로수를 바꾸거나 새로 심도록 했다. 수도 서울의 경우, 1978년에 「가로수심기6개년」 계획을 통해 가로수를 보식하는 한편 새로 건설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가로수를 새롭게 식재했다. 1979년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존재하는 309개의 노선의 절반 이상인 177개 노선에 이미 가로수가 제대로 심겼다는 것이 확인된다(그림Ⅱ-10).[40]

---

35) 『경향신문』 (1969. 10. 18.), "가로수".
36) 『경향신문』 (1963. 03. 29.), "봄이 지나도 가로수의 잎구경을 할 수가 없다".
37) 『경향신문』 (1962. 06. 06.), "다시 고개 든 흰불나방".
38) 『동아일보』 (1963. 08. 28.), "흰불나방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기고 갉아먹은 영등포의 가로수".
39) 『조선일보』 (1961. 01. 14.), "벌거숭이 가로수".
40) 『동아일보』 (1979. 01. 27.), "푸른 가로, 9억 들여 조성".

그림 Ⅱ-10,「1970년대 강남역 일대」(1974), 출처: 압구정향후회, 아카이브강남 제공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은 1980년대 도시 녹화를 추동했다. 두 범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서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식수가 이루어졌다(그림 Ⅱ-11).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전국에 심어진 가로수는 약 144만 그루로서 8년 동안 심은 식재량이 정부 수립 이래 1979년까지 심은 가로수 총량 128만여 그루를 상회했다.[41]

이 같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가로수의 양적 확대는 부작용을 낳는다. 1976년에는 서울시가 해당 연도에 심은 가로수의 12%가 살아남지 못한 사실이 기사화되었고 '토질, 수종 선정 잘못한 탓 가로수 관리에 허점'이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다.[42] 이와 유사하게 1980년대 가로수의 물량 공세에 따라

41) 산림청 (1985),『임업통계요람』, 제15호, pp,159-60. ; 산림청 (1989),『임업통계요람』, 제19호, pp,171-72.

그림 Ⅱ-11, 「Seoul 1988 Olympic Marathon | Marathon Week」(1988)
영상 갈무리, 출처: 올림픽 공식 유튜브, https://youtu.be/fvLH9ut_k0Y

'전시효과 위주 행정'으로 가로수 식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다.[43]

또한 1980년대에는 소수 수종이 도시를 점하면서 가로수에 따른 불편이 공론화된다. 1979년까지 심어진 전체 가로수의 70%가 빠른 녹화 효과를 자랑하는 이태리포플러, 현사시나무, 수양버들, 양버즘나무의 네 수종이었다.[44] 특히 당대 도시민의 경험 속에서 현사시나무와 수양버들의 솜뭉치 같은 씨앗은 봄철마다 쉽사리 눈에 띄고 피부에 닿기도 했는데 이것이 질병을 유발하

42) 『조선일보』(1981. 03. 27), "말라 죽어가는 가로수"; 『동아일보』(1979. 05. 22.), "전시효과에 치우친 즉흥자연보호".
43) 『경향신문』 1984년 5월 24일, "전시용 가로수 한달못돼 고사"; 『매일경제』 (1982.06.07.), "푸른 서울가꾸기" 사업 속성수에만 집착".
44) 산림청 (1973), 『임업통계연보』, 제6호, pp,169-71.

는 꽃가루로 오인되어 불결하게 여겨졌다. 결국 1980년대 중반 서울시를 중심으로 현사시나무와 수양버들은 '봄철 꽃가루로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며, 심지어 '인질이나 피부병'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가로수에서 퇴출된다.[45] 실상 꽃가루로 알려진 씨앗은 알레르기나 눈병 등 질병의 원인이 아니었다. 당대 전문가들이 이미 이 사실을 주장했으나 서울시는 수종 교체를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민은 잘린 가로수 밑둥이 즐비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경을 목격했다.[46]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토 개발과 범국가적 이벤트에 따라 가로수가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질적 관리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된 가로수 조성에 따라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1980년대까지 도시에 일반적인 수종이었던 수양버들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 공유되면서 부정적 경험이 야기되고 급기야 가로수에서 퇴출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2.3. 특색 있는 거리와 시민 참여

20세기 후반 활발한 국토와 도시 개발에 따라 전국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가로수가 심어졌으며 20세기 초 근대적 감각을 제공하던 가로수는 소수 수종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일상에 안착한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가로수 식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분다.

1990년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법령상 여전히 중앙 정부였으나 가로수에 대한 국고지원이 부재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한 탓에 지자체 대다수가 가로수를 직접 관리하는 실정이었다.[47] 지자체가 주도해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벚나무 종류가 화려한 꽃으로 장소에 특색을 부여하여 인기를 끌게 된다. 1980년대 전체 식재량의 10%도 되지 않던 벚나무 비율은

---

45) 『동아일보』 (1988. 04. 11.),"수양버들 현사시 교체; 『동아일보』, (1977.05.21.), "꽃가루 날리는 수양버들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
46) 『동아일보』 (1991. 10. 17.), "꽃가루 가로수 퇴역".
47) 산림청 (2009) "가로수 조성·관리 대책", p.1.

1990년대 후반부터 2005년까지 매해 30%를 상회했다. 특히 2002 한일월드컵이 개최된 해에는 약 23만 그루의 벚나무가 도시의 길을 장식했다. 그 이전 모든 수종을 합산한 총 식재량이 연간 29만여 그루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 없이 많은 양이었다.[48]

벚나무와 같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꽃나무'로서 이팝나무와 배롱나무는 2002년을 기점으로 가로수의 주요 수종으로 등장한다.[49] 2000년대 말이 되면 벚나무는 전국에서 도시민이 가장 자주 만나는 가로수가 되며 이팝나무와 배롱나무는 각각 다섯 번째, 일곱 번째로 도시의 길을 차지한다.[50] 이로써 2000년대를 전후해 도시에서 봄과 여름의 개화기에 가로수의 꽃을 감상하는 경험이 도시민에게 일반적인 일이 된다.

2000년대 지자체는 관광 명소로서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지역 가로수길에서는 벚나무로 획일화되는 추세와 다양한 수종에 대한 시도의 두 가지 경향이 확인된다. 영동군 감나무길, 충주시 사과나무길, 천안시 호두나무길과 같이 특산물을 내세운 가로수길이 생기는가 하면, 서귀포시 후박나무 가로수길이나 먼나무 가로수길 등 향토수종이 가로수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2006년 가로수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역별로 가로수를 특화 조성해 지역브랜드화하는 추세"가 심화된다.[51] 2000년대 후반에는 수종뿐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 독특한 수형으로 가로경관에 특색을 부여하는 시도가 이루어진다(그림 Ⅱ-12).[52] 지자체는 가로수를 특색 있는 거리를 구성하는 관광자원, 경관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48) 산림청 (1986); 산림청 (1991), 『임업통계연보』, 제21호, pp,181-82.; 산림청 (1996), 『임업통계연보』, 제26호, pp,179-80; 산림청 (2001), 『임업통계연보』, 제31호, pp,167-68; 산림청 (2006), 『임업통계연보』, 제36호, pp,197-98.
49) 산림청 (2002), 『임업통계연보』, 제32호, pp,169-70.
50) 산림청 (2009), p.2.
51) 산림청 (2009), p.4.
52) 『매일경제』 (2008. 12. 18.), "직사각형, 반원형, 타원형... 서울시 가로수도 디자인".

그림 Ⅱ-12, 버섯 같은 독특한 모양의 복자기 가로수 (2021),
출처: 한국일보, 단양군 제공,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73016520001039

2000년대를 전후해 가로수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도 증가한다. 청주 플라타너스길,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은 각각 1996년, 2000년에 벌목 위기에 처했으나 주민 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명소로 보존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가로수를 구명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계속해서 전개되며[53],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가로수를 베어버리는 지자체에 대한 비판도 지속된다.[54] 또한 가로수와 관련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과도한 가지치기 이슈다. 이는 1960년대부터 '벌거숭이 가로수', '몽당 가로수'[55], '닭발 가로수'[56]로 이름을 달리하며

53) 『한겨레』(2016. 09. 04.), "90살 향나무 제멋대로 벤 대전…53살 양버즘 살리기로 한 서울"; 『새성북신문』"플라타너스 나무 지켜낸 성북동 주민들 '자축'".
54) 『오마이뉴스』(2004. 05. 29). "멀쩡한 플라타너스 61그루, 왜 베었을까?".
『뉴스』(2004. 05. 04). "진주 수십년된 플라타너스 자르자 때아닌 '가로수 논쟁'".
55) 『조선일보』(1983. 02. 19.), "몽당 가로수".

계속되어 왔다(그림 Ⅱ-13).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까지 실제 가로수 민원에서 가지치기 문제는 낮은 비중을 보였는데 2020년에는 전체 가로수 민원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57]

가로수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높아짐과 더불어 시민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를테면 부산에서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연대가 '나무 권리 선언'을 통해 가로수가 인간과 함께 생태계의 일원이자 도시의 시민임을 강조했다.[58] 서울에서는 산림청이나 지자체의 조례에서 제공하는 가로수 관리 매뉴얼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 주도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를 발행하기도 했다.[59]

가로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수양버들과 현사시나무를 대체한 은행나무에 관한 문제가 1990년대 이후 부상한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공공재로서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해 사유화하는 일부 시민의 '몰염치한' 행태가 문제시되었다.[60] 그러나 2010년대에 오면 열매의 공공연한 '악취'에 대한 항의가 빗발친다.[61]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낙과 전 가지치기 혹은 진동 기계를 이용한 열매걷이를 실시하거나 은행나무 암나무를 솎아내고 수나무를 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시민 참여 사례는 도시민이 가로수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 주체의 가로수 실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56) 『강원도민일보』(2010. 04. 10.), "봄마다 '닭발 가로수' 흉물".
57) 산림청 (2009), p.3; 산림청 (2022), 『가로수 조성·관리 추진계획』, p.1.
58) 『라펜트』(2021. 12. 17.), ""우리는 나무와 숲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부산 나무권리 선언".
59) 서울환경연합 (2022),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 https://seoulkfem.or.kr/.
60) 『동아일보』(1994. 09. 09.), "한밤 가로수 은행 훑어가 몰염치한 행위 자제하길".
61) 『국민일보』(2002. 10. 04.), "길 위에 떨어진 은행열매 악취로 관광객에 불쾌감"; 『서울신문』(2007. 09.15), "은행 따기 행정 잣대 각각".

그림 Ⅱ-13, 가지의 대부분을 잘라낸 가로수의 모습 (2022),
출처: 한겨레,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제공,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37321.html

3. 소결

도로에 단일 수종을 열식하는 가로수 식재 실천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도 존재했다. 그러나 전 세계 도시에서 나타나는 표준화된 도시 가로수의 형태는 16세기 르네상스 정원 모델, 17·18세기 프랑스 절대왕정의 경관 모델, 19세기 파리의 도시계획 등이 광범위하게 모방·적용된 결과였다.[62] 전근대 유럽에서 가로수는 선형의 기하학적 공간을 조직하고 장식하는 틀로서 도보 산책로에서 차도로, 사유지에서 공공 도로로, 교외에서 도시로 확장·적용되며 녹음과 미관을 제공한다. 교외에서 소수 특권 계층이 전유하던 가로수에 대한 경험은 근대 도시화를 거치며 도시민 일반의 것으로 확장된다. 근대 이전 대중이 전원이나 야생의 숲에서 경험했다면 근대 도시 가로수의 등장은 나무를 도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근대 도시의 대중은 나무가 늘어선 도시 가로를 산책·이동·감상하게 되었다. 또한 길이 차도와 보도로 분리되며 가로수 경험의 방식 역시 보행 및 주행 경험으로 이원화된다.

한반도에도 근대 유럽의 수출품으로서 표준화된 가로수가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도 근대 유럽 가로수의 형식과 주행과 보행으로 이원화된 경험의 특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 도시 가로수는 한반도의 도시민에게 새로운 감각을 가져왔고, 이후 국토 개발과 범국가적 이벤트가 한국의 가로수 식재를 추동하며 빠르게 자라는 일부 수종이 전국 도시에 빠르게 뿌리내린다. 국내 도시를 점하는 대표 수종은 시대에 따라 변하며 다양한 가로수 경험이 보고되는데, 이는 가로수가 자라고 병들고 죽음에 따라, 꽃피우고 열매를 맺음에 따라,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에 의해 베어지고 부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가로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가로수

---

62) Lawrence (2008); 하비 (김병화 역, 2019),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자본이 만든 메트로폴리스 1830-1871』, 파주: 글항아리. (D. Harvey [2004], *Paris, Capital of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김백영 (2006), pp.407-49.

가 도시민의 일상에 보다 중요한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가로수의 표준 형태에 따른 경험의 통시적 특성도 존재하지만 근현대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하는 가로수 경험에 대한 직접적 인지 경험은 이러한 거시적 맥락과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 이전 유럽과 근현대 한국에서 각각 가로수의 형태와 수종을 획일화하는 양상은 역사문화적 조건으로서 동시대 도시민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 검토한 가로수 경험이 놓인 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가로수 경험에 접근하며 이를 인식과 지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Ⅲ. 도시 가로수의 미적 경험의 양상

1. 심층인터뷰를 통한 미적 경험 수집

이 절에서는 가로수 경험을 도시민이 실제로 가로수를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채록한 자료는 가로수 경험에 대한 미학적 데이터로서 미적 경험의 과정과 지각, 인식, 정서적 차원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도시민의 삶 속 가로수를 환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일차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도시 가로수에 관한 경험은 특정한 인물이 경험하는 현상이 아니라 도시에서 활동하는 보편적 주체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로수 경험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다. 미적 경험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 연구 단계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이고 보편적 진실(universal truth)이 아닌 현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실제(specific reality)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하는 '수집'은 차후 기술적 미학을 위한 재료로써 체험적(heuristic)이며 성찰적(reflective) 목적이 있다. 도시 가로수의 경험이 가진 다양한 미적 양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 도시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주체의 실제 경험에 접근했고, 이를 위해 깊이 있는 질적 인터뷰를 진행했다.

실제 가로수 경험에 대한 설명력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이다.[1]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 모집 광고를 통해 도시 가로수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할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지원한 21명 중 연구의 표본 틀에 맞는 대상 5명을 선정했다. 표본 틀은 세 가지 측면에 따라 설정했는데, 먼저 앞선 문헌 검토에서 확인한 특정 방식으로 가로수 경험을 조건 짓는 요인으로서 교통수단을 고려했다. 또한 인터뷰 역시 보행, 주행, 기타 경험의 분류에 따른 반구조적 인터뷰로 진행했다. 두 번째

---

1) 박동숙 (2019), 『질적 인터뷰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7.

표 Ⅲ-1 인터뷰 연구 참여자

참여자 코드	운전경력	직업(전공)	식물지식 관련	거주 도시
A	없음	대학원생 (미술이론 전공)	없음	서울 특별시
B	없음	초등교사	없음	서울 특별시
C	9년	대학원생 (조경학 전공)	조경설계, 식물재료학	○○ 광역시
D	2년	예술계 직장인 (연극학 전공)	산림교육학, 가드닝	◇◇군
E	4년	임업직 공무원 (산림학 전공)	식물학, 생태학, 가드닝 등 다방면의 전문 지식 보유	□□시

로 환경미학의 시각에서 지식의 유무가 가로수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식물 관련 지식의 수준과 종류를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시·군에 거주하는 참여자를 두루 모집해 도시의 다양성도 고려했다. 미적 경험의 다양한 차원을 드러내기 위해 목적적 표본 틀로, 이용 수단·거주 도시·식물 지식의 종류와 수준을 설정해 세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대상자를 선정했다(표 Ⅲ-1).

심층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로수 경험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심층인터뷰에 앞서 라포르(rapport) 형성을 위한 대면 만남과 사전 서면 설문을 진행했다. 인터뷰 당일 이전 대면하여 인터뷰에 관해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벼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참여자의 긴장을 해소하고 비교적 단시간에 라포르를 형성했다. 이후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편안한 시간과 공간에서 신중히 회상할 수 있도록 서면 설문을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반구조적 인터뷰로서 전 과정을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으

며, 연구자는 인터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참여자의 진술에 호응하고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연구 참여자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이 겪은 현상을 다채로운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가로수의 경험에서 유의미한 미적 양상을 발굴하기 위해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의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PA)을 참고해 인터뷰에서 얻은 미적 경험에 대한 진술을 분석했다. IPA는 심리학 분야에서 발달했으나 개인이 실제 겪은 경험에 주목하는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이다.[2] IPA는 주체의 경험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에 명확한 절차를 제공하며, '해석적' 현상학으로서 연구자의 재귀적 사고를 인정한다. 이는 주관적인 미적 경험에 심도 있게 접근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두 가지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IPA는 특히 심리학에 토대를 둔 연구에서 개인의 지각(perception)보다 인식(cognition)의 차원에 주목하며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인식론을 강화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연구는 지각과 인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일부 IPA 연구의 이원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체의 지각과 인식, 즉 미적 경험에서 느낀 바와 생각한 바에 대한 균형 있는 답변을 얻고,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연속적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현상학적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를 마친 후 이 연구는 도시 가로수 경험에 대한 주요 양상과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현상의 유의미한 주요 측면을 규명하는 주제 분석 방식의 IPA를 참고해, 자료 익숙해지기, 의미단위 규명하기, 의미단위를 묶어 유의미한 미적 양상 정의하기의 세 단계로 진행했다. a) 자료 익숙해지기 단계에서는 먼저 녹취 기록을 반복 청취하며 제스처, 침묵, 호흡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내용을 전사했으며, 필사 기록을 주의 깊게 반복 독해하고 진술에 담긴 의미를 연관시키고 구별하는 주석 작업을 시행했다. b) 다음으로

---

2) Jonathan Smith, (2011),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Health Psychology Review* 5(1), pp.9-27.

개별 사례별로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는 진술을 묶어 의미단위를 도출했다. 이러한 의미단위는 가장 낮은 층위의 미적 양상(aesthetic aspects)이다. c) 다음으로 종합적 사례 분석에서 앞서 도출된 주제를 의미군으로 통합해 상위 양상을 도출했다.

미적 양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환경미학 관련 일반적인 이론적 관심이 반영될 수는 있으나 특정 이론 및 개념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구체적인 현상을 개념적 틀로 환원되지 않도록 주의했다.[3] 또한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인터뷰와 분석의 전 과정에서 삼각검증법을 실시했다. 연구자는 1) 인터뷰 전사 및 반복 청취 과정을 통해 내용의 왜곡이 없도록 확인하고, 2) 연구 참여자에게 전사 및 분석 결과가 본인이 의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으며, 3) 환경미학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심층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 5명은 개인에 따라 최소 7개, 최대 10개의 다양한 가로수 경험을 상세히 진술했다. 수집된 경험은 총 45개로서 크게 보행, 주행, 조감 경험으로 나뉘었다(표 Ⅲ-2). 경험에 대한 진술을 IPA 기법을 이용해 의미의 연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최종적 미적 양상은 보행 경험의 경우 공감각적 체험, 일상의 축제, 이완을 위한 감상, 개별 가로수의 식별의 네 가지를 발견했고(표 Ⅲ-3), 주행 경험의 경우 역시 4가지로 일과 속 풍경 감상, 일과 속 부정적 경험, 만개한 가로수길 경험, 울창한 가로수길 경험이 나타났다. 조감 경험은 평면화된 가로수 조감, 평가와 생명인식의 미적 양상이 확인된다(표 Ⅲ-4).

---

3) 나이절 킹, 크리스틴 호록스 (김미영 외 역, 2013)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서울: 현문사., pp.289-295. (N. King & C. Horrocks, [2010],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표 Ⅲ-2 가로수의 미적 경험 목록

참여자 코드	토픽	이용 수단	경험 코드
A	주거지 벚꽃 체험	보행	A-W01
	여름 등하굣길 버스 풍경	주행	A-D01
	여름 교외 가로수길 드라이브	주행	A-D02
	대학 시절 산책길	보행	A-W02
	은행나무 열매	보행	A-W03
	가을 낙엽 관련 보행 일반	보행	A-W04
	가로수 응시 경험 일반	보행	A-W05
	○○산 버스 벚꽃 체험	주행	A-D03
	무더위 속 가로수 밑 보행	보행	A-W06
B	감성에 따른 가로수 경험 일반	보행	B-W01
	봄/여름 비갠 뒤 경험 일반	보행	B-W02
	휴일 ◇◇천길 산책	보행	B-W03
	가을 낙엽 관련 보행 일반	보행	B-W04
	출퇴근길 버스에서 본 벚꽃	주행	B-D01
	일상 속 벚꽃 체험 일반	보행	B-W05
	대학캠퍼스 은행나무길 체험	보행	B-W06
	눈 온 날 본 니트 입은 가로수	보행	B-W07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관광	보행	B-W08
	해외여행에서 본 야자 가로수	주행	B-D02
C	주행 중 본 겨울 가로수	주행	C-D01
	사각 전정 가로수	보행	C-W01
	신사동 가로수길 니트 가로수	보행	C-W02
	대학캠퍼스 은행나무길 주행	주행	C-D02
	대학캠퍼스 은행나무길 체험	보행	C-W03
	도시고속도로에서 이팝나무 감상	주행	C-D03
	초등 등굣길 메타세쿼이아길	주행	C-D04

	대학캠퍼스 내 벚꽃길 체험	보행	C-W04
	□□호수길 조감	조감	C-B01
D	가로수 관찰 경험 일반	보행	D-W01
	은행나무 열매 및 버찌	보행	D-W02
	‘묘목장’ 같은 도로 가로수	주행	D-D01
	평택 출장길 나무 울창한 도로	주행	D-D02
	△△산 벚꽃 드라이브	주행	D-D03
	가로수를 멍하게 바라보는 경험 일반	보행	D-W03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도시	조감	D-B01
E	퇴근길 벚꽃 풍경	주행	E-D01
	소나무길	주행	E-D02
	본가 메타세쿼이아길	주행	E-D03
	깍둑썰기 플라타너스 감상	주행	E-D04
	고등 하굣길 계수나무길	보행	E-W01
	동네 이팝나무길	보행	E-W02
	제주도 올레길 귤나무 비교	보행	E-W03
	제주도 멀구슬나무	보행	E-W04
	제주도 먼나무	주행	E-D05
	제주도 도토리 밟은 경험	보행	E-W05

* 위 표는 각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의 순서대로 목록화한 것이며, 옅게 칠해진 경험은 주행, 짙게 칠해진 경험은 조감 경험이다.

2. 미적 경험의 양상

2.1. 보행 경험

1) 공감각적 체험

연구 참여자 A, B, D는 가로수에 관한 경험으로 일상에서 도보로 이동할 때 특별히 즐거움을 느꼈던 상황을 떠올렸는데 이러한 경험은 공감각적 체험의 특성을 띤다. A, B는 각각 등하굣길과 출퇴근길로 현재 또는 가까운 과거에 일상적으로 이동했던 구체적인 경로를 떠올렸다. 현재 일상에서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E는 약 10년 전 하교 때 걸었던 특정한 도로를 회상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물리적 장소에 대한 정보보다 신체로 느낀 감각 정보가 주로 설명되었다.

a) 계절·기후 조건과 공감각

연구 참여자 A, B는 특정한 계절과 기후 조건에서 가로수와 관련된 긍정적 경험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두 참여자는 알맞은 계절과 날씨가 전제되었을 때 가로수가 심어진 길을 걸으며 시각뿐 아니라 촉각·후각·청각을 활용하여 바람·햇빛·공기·냄새·소리 등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A, B의 경험은 시각적 대상으로서 가로수를 보는 경험을 넘어 가로수를 심어진 환경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느끼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 "기분 좋은 경험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해요. 날씨가 좋아야 하고, 비 오면 소용없고,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살짝 불고, 모든 게 완벽할 때 벚꽃을 딱 보면 너무 좋죠."(A-W01)

> "그런 경험이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랑 기분이랑 그 장소랑 삼박자가 갖추어지는 게 흔하지 않아요."(B-W01)

표 Ⅲ-3 의미 있는 진술에 따른 가로수 경험의 양상(보행)

진술의 키워드				의미단위	주제
전제 조건, 날씨, 하늘, 바람, 공감각(A-W01)		삼박자, 날씨, 기분, 장소, 촉감, 감각과 냄새가 다같이(B-W01~2)		계절·기후 조건과 공감각	공감각적 체험
쌓여있는 낙엽, 빠삭, 발의 느낌(A-W04)	벚꽃 향기, 풀냄새, 물비린내, 복합적 느낌, 감정이입, 떨어지는 낙엽, 바스락, 맑은 냄새(B-W01~4)		가을, 달큰한 향기, 길, 계수나무, 솜사탕내, 추억(E-W01)	특정 계절 연관 감각적 특질	
벚꽃, 상반기, 설렘, 기대, 은행 냄새, 송별회, 하반기, 한해, 계절 인식(A-W01)	가을, 일년의 시간, 계절변화, 생명체, 계절감(B-W01,4)		은행 냄새, 시간의 흐름, 가을(C-W03)	가로수 지각에 따른 계절 인식	
은행 열매, 냄새가 심함, 길목, 피해 감(A-W03)	은행 열매, 재수없이 맞을 때, 밟을 때 우두둑(B-W06)	은행 열매, 바닥 지저분(C-W03)	보도 더러움, 시커먼 것, 버찌, 은행 열매, 까치말, 다른 길로 감(D-W02)	가을철 낙과로 인한 부정적 경험	
은행, 평소 그냥 나무, 가을에 존재감, 트레이드마크(B-W06)	벚나무, 평소 다른 길, 그 시기에 일부러 지나감(C-W04)		가로수 눈에 잘 안 띔, 존재감, 5월, 평소에는 못 봄(E-W02)	계절 변화에 따른 일상 공간의 장소화	일상의 축제
아이들, 자극, 동심, 날리면서 놀았음, 신남, 쾌감, 축제같은 느낌(B-W06)		봄, 소소한 축제, 설렘, 신남, 벚꽃이 휘날리는 체험, 꽃비, 소리(C-W04)		공감각적 집단 경험과 계절제	
흰색 꽃 무더기, 특이한 경관, 감탄, 한해에 한번 축제, 눈꽃치즈, 솜뭉치, 신남(E-W02)				경관 감상	
시야를 멀리, 사람과 건물 보기 어색함, 길에 펼쳐진 가로수 쳐다봄(A-W05)	쉬어주는 날, 자연을 더 많이 느끼려 함, 긴장과 피곤을 풀어줌, 일상, 냄새, 멍하니, 더 많이 앉음(B-W03)		멈춤, 바라보기 편한 나무, 명상, 생각을 비움, 멍(D-W03)	휴식/안정을 위한 응시	이완을 위한 감상
초점을 흐림, 흐물흐물한 덩어리, 뜯어보지 않음, 시야에 걸림(A-W05)		푸른 거 보는 게 좋다고 함, 멍때림, 냄새나 모양 의식 못함(D-W03)		단순화/추상화 된 가로수 지각	
하나에 꽂히면 서서 쳐다봄, 상태 안 좋은 것, 특이한 일, 신기, 발 밑(D-W01)		새로운 것, 재밌음, 신기함, 발에 밟히는 것, 아래 흔적(E-W03, 4, 5)		개체의 진기한 특징 식별	개별 가로수의 식별
신사 가로수길, 월동, 니트 장식, 화려함, 마음에 드는 나무(C-W02)		제주도 올레길, 개체마다 특성, 색깔, 열매(E-W03)		개체별 비교를 동반한 감상	
옷 입었다는 것, 살아 있는 생명, 대우, 무생물, 살아있음 인식 못함, 애정, 무의식적(C-W02)				가로수에 대한 발화와 지칭	

"걸을 때는 더 공감각적으로 느끼죠. 푹신푹신한 감각이나 가끔 후각적으로 냄새를 느낄 때도 있고 벚꽃나무 향긋함도 없잖아 느껴지고요. 소리, 발의 감각, 햇빛 그런 것도 느껴요."(A-W01)

"공기라고 하는 게 감각과 냄새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어요. 냄새이기도 한데 느껴지는 촉감 같은 것인가 싶기도 하고, 몸에 닿는 느낌이 있잖아요. 공기랑 낙엽 냄새랑 닿는 느낌이 섞여 들어오니까…"(B-W02)

b) 특정 계절 연관 감각적 특질

연구 참여자 A, B가 걸을 때의 공감각적 경험은 봄의 경우 '벚꽃', 여름은 '녹음', 가을은 '낙엽' 및 '은행 열매'와 연관되었다. 진술들은 특정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특질을 반드시 포함했는데 대부분 공기와 햇빛 등 기후 조건과 관련되었다. 특히 B의 경우 미기후에 대한 지각과 '낙엽 냄새', '꽃향기', '햇빛 냄새' 등 후각적 특질을 복합적으로 지각하며 두 가지 감각을 함께 진술했다. 또한 A, B는 모두 가을철 낙엽을 밟을 때의 상황에서 '빠삭', '바스락', '바사삭' 등의 의성어를 동반해 청각적·촉각적으로 미적 쾌감을 느낀다고 진술했다.

"낙엽이 지면 일부러 그럴 때 있어요. 빠삭빠삭한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일부러 가서 밟아요. 밟을 때 빠삭하는 발의 느낌이 좋아서. 쌓여있는 낙엽 밟으면 호기심이 들지 않나요? 재미있잖아요. 눈처럼 질척이거나 묻어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하지는 않고 산책가서 사람 없을 때, '빠삭!'."(A-W04)

"버스에서 벚꽃 보면 뛰어내리고 싶어요. 차는 너무 빨리 가니까 저는 그 길을, 그 속에 천천히 오롯이 있고 싶은 거죠… 말 그대로 꽃향기가 나요. 상쾌하기보다는 포근한 쪽에 가까운 냄새예요. 은은하고 강하지 않은데 일반적인 나무에서 나는 냄새보다 따뜻해요. 안정감이 느껴진달까… 걸을 때 옴팡 느껴요. 차에 타면 시각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걸을 때는 다른 감각들도 다 같이 활용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좋아요. 그럴 때는 감

정이입도 더 잘돼요."(B-W01)

"봄이나 여름이나 비가 딱 오고 나서 다음 날에 좀 갠 날. 햇볕은 쨍하고 비 온 뒤라 공기는 맑아지고 물기를 머금고 있는데 그렇다고 축축하지도 않고, 습기가 있는 게 아니라 '촉촉'한 상태일 때, 그 냄새가 있어요. 풀냄새가 나고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 온 다음 날에 물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도 좋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초록색!', '푸르다!'. 그게 좋아요…가로수가 쭉 있어서 녹음이 우그러진 게 좋아요. 그 속을 지나가면 상쾌해지고 느껴지는 공기 자체가 서늘해지는 것도 좋아요."(B-W02)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낙엽이 '싸악' 떨어지면서 끈적하지 않고 밑에서 '사르르르' 날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낙엽 속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낙엽을 밟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소리가 좋거든. '바스락-', '바사삭-'. 그런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일부러 그쪽으로 걸어요. 바람 부니까 시원하고 공기는 개운하고… 낙엽 냄새가 있어요. 이것은 인공첨가물은 하나도 없는 맑은 냄새인데, 절대 설명할 수 없어요."(B-W04)

"아늑해서 걷고 싶어요. 노란색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이 다 노랗게 물드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잎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푹신푹신해 보여요. 겉으로 봤을 대 상당히 푹신푹신하고 이불 같아요. 이불 같으니까 아늑하고. 그러니까 '저 속에 들어가서 걷고 싶다'. '가을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B-W06)

이상의 경험에서 A, B는 대체로 촉각·후각·청각의 다중의 감각을 이용해 복합적으로 환경을 지각하고 있었다. 한편 D가 가을마다 고등학교 하굣길에서 했던 경험은, 가로수의 독특한 향기에 대한 것으로서 후각이라는 단일한 감각이 경험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경험들과 구별된다.

"가을쯤이면 달큰한 향기가 떠오르는 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하굣길, 원래 차를 타고 등하교했는데 가을이 되면 거기가 생각나서 더 짧고 조용한 골목길 대신 차가 쌩쌩 달리는 4차선 대로가로 갔어요. 오직 계수나무가 내뿜는 솜사탕 내를 맡고 싶어서요. 이렇게 '흡-' 들이키면서 갔어요. 냄새 말고는 나무 기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무 키가 너무 커서 그 길에 대해 떠오르는 건 곧고

굵게 뻗은 기둥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억을 향기가 채우고 있어요. 비슷한 향기를 맡으면 그때 그 길, 추억을 불러와요."(E-W01)

c) 가로수 지각에 따른 계절 인식

연구 참여자 A, B의 진술에 따르면 이상 살펴본 다양한 감각적 특질들은 계절에 대한 인지를 촉발했다. 즉 두 참여자는 환경을 공감각적으로 '느낌'과 계절을 '앎'을 포괄하는 지각 과정을 통해 계절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절 인지는 계절 주기와 연동된 시간의 지각을 동반했다. 이를테면 A는 벚꽃에 관한 경험을 통해 봄을 인식하며 '햇빛을 쬘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감각적 차원의 시간 지각과 한 해의 일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시간 지각을 동시에 하며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B와 D는 각각 낙엽과 은행 열매에 관한 경험을 통해 가을을 인지하며 '시간이 지났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벚꽃을 보면 햇볕도 따뜻하게 내리쬐고 색감도 하늘색, 분홍색이 예쁘잖아요. 바람도 살랑살랑 살짝 불고 내 옷차림도 가볍고, 저는 햇빛 쬐는 걸 좋아하는데 앞으로 더 쬘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게 설레요. 또 머릿속으로는 '아직 상반기다!' 그리고 '한 해가 가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작되는 이벤트, 일정들이 기대되면서 또 설레죠."(A-W01)

"가을에는 단풍, 낙엽도 있겠지만 은행 열매의 냄새를 맡으면서 확실히 계절이 바뀐 것을 인식해요. '아, 가을이네', '아, 하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별회 하면서 한 해를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죠."(A-W03)

"가을에 이파리가 떨어지면 위를 보면서 잡아보려고 해요. 그 와중에 '아, 언제 이렇게 또 일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 '벌써 가을이 왔구나' 싶죠."(B-W04)

"[은행나무 열매의] 냄새는 별로인데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C-W03)

또한 B, D는 반대로 '계절 인식'을 위해 걸을 때 가로수를 주시하거나 계절을 체감하기 위해 가로수가 있는 환경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두 참여자 모두 식물로서 가로수가 갖는 생태적 특성에 주목해 계절을 인지하고 체감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A는 식물이 인간보다 계절 변화에 민감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가로수를 관찰해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B는 인공 환경과 달리 '푸릇푸릇한 생명체'가 있는 환경에서는 날씨와 결합하여 계절을 체감, 즉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생명체로서 가로수가 심어진 환경을 방문한다고 진술했다.

> "2월쯤 되면 목련 꽃봉오리가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3월 말쯤이 되면 개나리가 슬슬 눈에 밟히고, 가로수에 연두색이 좀 보인다든가 하면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걸을 때 길에 심어진 가로수를 잘 보고 다니는 편이에요. 식물이 온도 변화에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거나 지금이 몇 월인지 떠올리는 것보다도 식물의 달라진 외관을 살펴보는 것이 계절을 인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A-W01)

> "가로수가 심어진 길에서 계절이 변했다는 사실이 확 느껴져요. 일반적인 집, 도로, 교실 같은 곳에서는 일 년 동안 확연히 달라지지 않아요. 온도 차이만 있죠. [계절 변화를 느끼려면] 나무 같은 푸릇푸릇한 생명체가 많아야 해요. 그러면 주변 날씨와 어우러지면서 [계절 변화가] 확 다가와요. 그래서 계절별로 가줘야 돼요. 봄에는 벚꽃 보러, 여름날에 이파리가 확 올라온 때 가줘야 돼요. 가을에 낙엽 있으면, 가을에 눈 왔으면 가야 돼요. 그러면 계절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B-W04)

특히 연구 참여자 B는 벚나무에 관한 경험에서 생물 가로수와의 접촉을 포함했다. 그는 봄에 막 생겨난 벚나무의 새 가지, 새잎의 모습을 '아기' 혹은 '손'에 비유하며 '귀엽고 기특하다'고 평가했다. 만개한 벚나무의 신체에 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통해 살아 있는 존재로서 대상에 대한 인식과 애착을 나타냈다.

"벚나무 아래 가면 꼭 꽃잎이나 얇게 나온 가지를 만져 봐요. 아기같이 연약하게 나와 뻗어있는 손처럼 돼서 잡아주고 싶어요. 굳이 꽃이 달려 있지 않아도 돼요. 손으로 스윽 쓰다듬고 그러죠… '봄이라고 또 그새 나왔구나.' 귀엽고 기특하고 그래요."(B-W05)

d) 가을철 낙과로 인한 부정적 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떠올린 대다수의 가로수에 관한 경험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으나, 은행나무 열매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 4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진술했다. 이때 부정적 반응은 열매의 냄새와 밟는 촉감이 야기한 것으로, 대체로 주체는 은행 열매를 밟지 않도록 조심히 걷거나 아예 그것이 떨어지는 길을 기피했다. 또한 은행나무 열매의 경우와 유사하게 D는 벚나무 열매인 버찌를 밟는 것 역시 기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학교에 [은행 열매의 냄새가] 진짜 심한 구역이 있어요. □□□삼거리. 거기에서 버스 내려서 ◇◇대 가는 길목에 냄새가 진짜 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길은 피해서 가는 거죠."(A-W03)

"은행나무 길을 걸을 때의 경험이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밟았을 때 '우두둑우두둑'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냄새도 나고 머리에 가끔 재수 없이 맞을 때가 있어요. 우우둑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길이 너무 예쁘니까 걷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걷다가 은행 밟아가지고 신발 '득득-' 긁고 나오는 거죠."(B-W06)

"걸어간 적도 있긴 있는데 잘 안 가요. 항상 바닥이 은행으로 지저분해져 있고, 냄새가 좋은 냄새도 아니니까. 만에 하나 밟기라도 하면 신발에 묻고 잘못 밟으면 미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잎이 노래서 너무 예쁘기는 한데 그 냄새가 코끝에 스치면 '(탄식하며)아… 올해도 벌써 시작이네'."(C-W03)

"보도가 엄청 더러운 거예요, 시커먼 것이 터지고 번져서. 뭔가 했더니 벚나무에서 떨어진 버찌인 거죠. 그러면 비켜서 조심해서 가요. 은행나무도 그렇고. 은행 열매는 이미 밟아서 기분이 짜증 났던 경험이 있어서 최대한 안 밟

으려고 까치발로 조심히 지나가죠. 완전히 은행잎으로 다 덮여있다면 다른 길로 가요."(D-W02)

2) 일상의 축제

a) 계절 변화에 따른 일상 공간의 장소화

연구 참여자 B, C, D는 '평소' 특별히 인식하지 않던 평범한 길이 꽃이 피거나 단풍이 드는 특정한 계절적 시기에 미적 체험의 장소가 된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공통으로 '축제 같다'고 각자의 경험을 표현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하는 장소는 지극히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길로서 B, C의 경우 대학교 캠퍼스의 도로, E의 경우 이팝나무가 심어진 거주 동네의 길이었다. 와 D는 특정 시기에 가로수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며, 평소 지각 대상이 아니던 가로수가 은행이 물들거나 '흰색 꽃이 무더기'로 필 때 감상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경우 가로수가 있는 특정 장소, '그 길' 또한 특별한 인지의 대상이 되었다. B는 학교에 대해 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다가 가을에 그 길에 은행 단풍이 들면 학교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었고 '학교가 예쁘다'고 집단으로 공유하는 미적 평가를 했다고 진술했다. C는 평소 지나가지 않던 길을 가로수의 꽃이 필 때 일부러 지나간다고 진술했다. E는 해당 길을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길'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팝나무 개화 시 '특이한 경관'으로 감상한다고 설명했다.

"평소에는 그냥 나무인데 은행이 물드니까 가을에 존재감이 '화악' 와요. 평소에 우리 학교가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가을에 그 길 보면 우리 학교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교생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을의 이 길이 우리 학교의 트레이드마크라고."(B-W06)

"대학교 안에 벚나무가 '쭈우욱' 조성되어 있는 길이 있었어요… 원래는 평소에는 이쪽으로 사람들이 잘 안 다니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평소에는 다른 길로 지나가는데, 그냥 (벚꽃이 피는) 그 시기만 되면 일부러 그 구간으로 지나가게 되고."(C-W04)

"그 길을 배경으로 가로수는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존재감을 내뿜는 시기가 바로 날이 막 따뜻해진 5월이었어요… 평소에는 못 보고 다른 나무에서도 못 보는 모습이 특히 거기 있으니까."(E-W02)

b) 공감각적 집단 경험과 계절제

연구 참여자 B와 C의 경험은 특히 타인과 집단적으로 경험한 상황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두 참여자가 '축제'를 언급한 맥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특정 시기의 집단 경험에 대해 진술하고 있었다. C는 '매년 봄의 소소한 축제'라고 언급하며 해당 경험을 일종의 계절 행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드레스코드를 맞추거나 함께 사진을 찍는 집단적 기념 의식을 수행했다.

B 역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축제에 비유했다. 그는 당시 학교 은행나무길에 야외 수업을 나온 유치원생들의 모습에 자극받아, 학우들과 함께 마치 공연의 '피날레'처럼 극적으로 은행잎을 던지며 노는 행위를 행했다. B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쾌감'이 있었다고 언급했으며 B, C 모두 설렘, 신남, 쾌감, 행복 등의 감정 표현을 통해 '축제'와 같은 경험에서 미적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와 친구들의 행위는 장소에 견학하러 온 유치원생들의 행위를 보고 자극을 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미적 경험의 사회적 특성이 확인된다.

"매년 봄의 소소한 축제 같았어요. 1, 2학년 때는 엄청 들떠서 같이 가기로 한 전날 '옷 뭐 입지? 맞춰 입자!' 이렇게 드레스코드도 정하고 그랬어요. 3, 4학년 때는 그렇게 들뜨지도 않고 언제 가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수업 끝나고 한번 가볼까? 멀리는 못가도 우리도 벚꽃 사진이라도 찍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긴 했는데 설레고 신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C-W04)

"아이들이 은행잎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친구들

이랑 은행잎을 모아가지고 '촤라락' 날리면서 놀았는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좋았어요. 엄청 신나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쾌감이 있었어요. 피날레로 '촤악' 날리고 우리는 다 웃고 있고 너무 행복했어요. 축제 같은 느낌인 거예요."(B-W06)

집단적 경험을 한 연구 참여자 B와 C는 또한 공감각적 지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시각 중심적인 E의 경험과 대조적이다. C는 '벚꽃이 휘날리는 체험'을 '빗속이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꽃비를 전체적으로 느끼는' 경험이라고 묘사하고 시각 이외의 요소인 소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주체는 날리는 꽃잎·바람·소리가 만드는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미적 체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B의 경우, 은행잎을 모아서 던지는 행위에 다양한 감각이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유치원생들이 다양한 감각 놀이를 수행하고 잎을 던지며 노는 행위에서 자극을 받아서 유사한 공감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언덕 사이에 묻혀있어서 바람이 가끔 세게 불 때가 있어요. 꽃 피는 봄에 그 [바람 세게 부는] 타이밍 잘 맞춰서 가면 그 안에서 벚꽃이 휘날리는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빗속이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그 꽃비를 전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지만 바닥에 깔려있던 꽃잎도 회오리치듯이 살짝 '도로록~' 날았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꺄르르 꺄르르! 야, 이것 봐~' 이런 소리도 들려오고 재밌죠."(C-W04)

"병설 유치원에 아이들이 [그 길에] 자주 와요. 직접 만져보고 그런 활동을 하러 온 거예요… 아이들이 즐겁게 그림도 그리고 나뭇잎 모아가지고 만져보면서 '노랗게 변했네~', '만졌을 때 미끌미끌해요~' 이러면서, 별것도 아닌데 뛰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저와 친구들의 마음도 설레고 간질간질해지는 거예요."(B-W06)

c) 경관 감상

E가 이팝나무가 만개한 경관을 감상한 경험에서 시각 이외 다른 감각이

관여했음을 암시하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그는 흰색 이팝나무꽃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묘사했으며 '여러 그루가 군집'과 '경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신체적 체험보다는 전체적인 길의 모습에 대한 시각적 감상의 경험을 진술했다. E도 다른 두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험을 축제에 비유하며 연중 특정 시기에 찾아오는 계절제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는 '특이한 것', '새로운 것'으로서 일상 경관을 재발견하고 감상하는 경험을 통해 '감동'을 받고 기분이 들뜨고 신나는 등 정서를 느낀다고 진술했다.

> "흰색 꽃이 무더기로 있는데, 감탄밖에 안 나와요, 특이한 경관이라. 거기는 건물 다 세워져 있고 밀집된 공간인데 이팝나무 여러 그루가 군집되어 있으니까 감탄밖에 안 나와요… 한 해에 한 번 축제 같은 거죠. 나무에 소복하게 흰 꽃이 쌓여 낮은 구름처럼 뭉글해질 때면 기분도 좋죠. [이팝나무꽃으로 덮인 수관의 형태가] 눈꽃치즈 같기도 하고, 솜뭉치 같기도 하고… 특이한 것을 보면 감동을 받는 성격이라, 기분이 방방 뜨고 신이 나요. 새로운 것 봐서 기분이 좋죠. 신나고 신기하고." (E-W02)

3) 이완을 위한 감상

a) 휴식·안정을 위한 응시

연구 참여자 B와 D는 긴장, 피로 등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에 따라 가로수를 본다고 밝혔다. B와 D의 경우 '자연' 또는 '푸른 잎'을 보면 피로가 풀어진다는 인식에 따라 휴식을 목적으로 특정한 가로수를 바라본다고 진술했다. 두 참여자의 대상을 '멍하니', '멍 때리는' 방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체가 지각 대상 자체의 특질에 흥미를 기울이기보다 자기 자신의 신체와 내면의 안정을 느끼기 위해 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D의 경우 푸른 잎을 보고 '멍 때리는' 행위는 생각을 비우기 위한 것으로서 지각 대상에 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두 참여자는 걷다가 잠시 서거나 앉는 등 정지한 상태로 가로수를 응

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의 휴식 상황은 ‘온몸을 쉬어주는’ 것으로서 냄새를 맡고 자연을 느끼는 감각적 체험을 포함한 반면 D는 응시의 상황에서 가로수에 대한 시각 이외 감각이 절연된 상태를 묘사했다.

> “휴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을 쉬어줘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자연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해요. 일부러 더 많이 앉아서 쉬고 안가는 길로 가보기도 하고요. 긴장되고 피곤한 나의 일상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꽃이나 나무를 보면 멍하니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앉아 있다 보면 냄새도 좋고.”(B-W03)

> “길을 걷다가 멈춰서 서서 편하게 바라보기 좋은, 내 시선이 힘들지 않을 법한 위치에 있는 나무를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잎 머리통을 보는 거죠. 명상이 비우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생각이 비워져요. 그냥 '멍~'… 어디론가 향할 때이거나 길에 있으니까 멈춰 서서 오래는 못하지만 그 순간에는 생각을 비울 수 있어서 좋아요… 가만히 바라볼 때는 오히려 감각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아, 춥다!’하고 다시 길을 갈 때가 있어요.”(D-W03)

A는 위의 두 참여자와 달리 휴식을 목적으로 언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가로수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다. 그의 경우 보행 시 대인 접촉이나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지향함에 따라 가로수가 ‘시야에 걸린다’고 진술했다. 그는 D가 ‘시선이 힘들지 않은’ 위치의 가로수를 ‘편하게’ 바라본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불편함이 야기되지 않는 자세로 가로수를 응시했다. 그는 가로수가 ‘길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지각하려 의도하지 않음에도 가로수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며, B, D와 대조적으로 특정 나무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가로수를 집합적으로 지각했음을 알 수 있다.

> “보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마주 걸어오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기에도 어색하고, 앞으로 가는데 옆에 구경하는 것도 고개가 어색하고 그래서 시야를 좀 멀리해서 길에 펼쳐진 가로수들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A-W05)

b) **단순화·추상화된 가로수 지각**

연구 참여자 A, B, D는 지각한 가로수의 형태를 묘사할 때 각각 '흐물흐물한 덩어리', '자연', '푸른 것'으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세 참여자의 진술에서 가로수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부재했다. 이에 따라 주체들은 바라보는 가로수의 구체적인 특징을 관찰하기보다는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형태로 가로수를 지각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B, D의 경우 가로수를 지각하면서 그것이 피로를 풀어주는 '자연' 또는 '푸른 것'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에 투영하고 있었다.

> "가로수를 의식적으로 쳐다보는 건 아니고, 그냥 시선을 멀리에 두고 눈에 초점을 좀 흐리면서 다니다 보면 길이 쭉 이어져 있으니까 눈높이에 자연스럽게 가로수가 흐물흐물한 덩어리처럼 제 시야에 걸려요. 잎 하나하나 뜯어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야에 크게 걸리잖아요."(A-W05)

> "걸을 때나 실내에서 그 푸른 잎에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을 비우게 되죠. 푸른 거 보는 게 좋다고 해서 나무를 보는 거지… '아, 저런 나무다. 나뭇잎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어느 순간, 그냥 멍때려요. 그때는 냄새나 잎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의식 못하죠."(D-W03)

4) 개별 가로수의 식별

a) **개체의 진기한 특징 식별**

연구 참여자 D와 E는 평소 길을 걷다 일반적이지 않은 독특한 특징을 가진 가로수를 발견하고 관찰하는 경험에 대해 진술했다. D의 경우 가로수 잎의 구멍이나 변색 등 건강하지 못한 징후를 발견할 때 멈춰서 바라보는 일상적 경험에 대해 진술했다. 그는 또한 일반적 개화 시기가 아닌 때 핀 꽃을 보고 '신기함'을 느끼며 관찰했다. '못 보던 것'에 주목하는 D의 경험과 유사하게 E는 일반적으로 '신기한', '새로운' 특징을 발견할 때 쾌감을 느끼며 관

찰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개체의 구별되는 특징을 비교하며 새로운 특징을 발견하는 관찰 행위를 특별히 즐기고 있었다.

> "도롯가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의식하게 되죠. 주위를 둘러보며 가다가 무언가 하나에 꽂히면 그냥 서서 쳐다봐요. 가로수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이나 더러워 보이는 것, '썩었나?'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요. 잎이 벌레 먹은 것처럼 뚫려있다거나 색이 누렇게 바래져 있다거나 이러면 봐요… 집 근처 길 가는데 가을인데 벚꽃이 핀 거예요. '꽃이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피었네' 생각하면서 쳐다본 적도 있죠. 특이한 일이니까 신기해서 쳐다봤어요. '어? 못 보던 게 있네?' 이럴 때"(D-W01)

>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해서 방금 본 거랑 다르면 재밌어요. 같은 나무인데 얘는 완전 커, 수관도 예뻐요. '와 이 나무가 대박이다' 이러다가도 이따 나온 나무가 더 이쁘면 신기하고 또 사진 찍고 그러죠."(E-W03)

이상 살펴본 경험들은 가로수의 수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지각 경험이었다. 반면, 가로수 아래에 떨어진 가로수의 일부 기관을 지각하고 가로수 개체를 식별하는 경험도 존재했다. 앞에 보았듯 D는 바닥의 더러운 특질을 지각하고 그의 원인이 된 버찌 열매를 떨어뜨린 벚나무를 식별했다고 진술했다. E는 가로수를 식별하게 하는 주요한 감각적 자극이 발밑 흔적이라고 진술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주체는 꽃, 잎, 열매 등 나무에서 떨어진 부분을 보는 시각적 자극, 발에 밟히는 촉각적 자극에 의해 가로수를 지각했다. 대부분의 경험은 시각 중심적 관찰이나 열매를 바로 주워 만지며 관찰하는 등 공감각적 측면도 경험에 따라 존재했다.

>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을 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시멘트 바닥인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버찌인지 몰랐어요. 시커먼 게 너무 떨어진 거예요. 뭔지 하고 봤더니 벚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라서 나무를 쳐다본 적이 있죠."(D-W02)

"걸어갈 때는 눈높이에 수관이 있지 않는 이상 기둥만 보이니까 볼거리가 없는데, 발에 밟히는 게 열매라거나, 특이한 꽃이나 잎사귀가 있으면 한 번씩 봐요. 생각나는 게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주워서 손에 한 다섯 개 조물딱거리면서 위에 올려다보고, '아, 참나무류 많네' 이러고 갔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만약에 수관 높으면 아래에 있는 흔적 보고 더 확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E-W05)

b) 개체별 비교를 동반한 감상

연구 참여자 E는 새롭고 여행지에서 가로수의 진기한 특징을 더 많이 발견하며 즐기고 있었다. 그가 진술한 경험 속 가로수는 귤나무, 멀구슬나무, 먼나무 등 여행지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국내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로수로 잘 쓰이지 않는 종류의 나무였다. 특히 E는 귤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진 올레길을 걷는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일상의 경험을 설명할 때보다 유사한 분류군 속 다양한 개체들의 구별되는 경험을 묘사했다. 이를 통해 주체가 여행의 경험에서 일상 공간에서보다 독특한 특징을 많이 관찰했음을 알 수 있었다. C는 상업 거리에서 가로수에 씌운 형형색색의 니트 덮개를 비교하며 선호하는 가로수 덮개를 '입은' 개체를 선별하는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제주도 올레길 여행할 때 걸어가면서 본 귤나무 개체마다 특성이 달랐어요. 귤이 주황색인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나무 키가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고, 열매가 낑깡처럼 작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열매 색깔을 보면 침이 나오고 그래요. 걸어가는데 상큼해요. 아주 상큼해."(E-W03)

"가로수길 갔을 때 월동 준비한다고 니트 입은 나무 봤을 때,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게 장식이 돼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겨울이 되면 잎이 많이 떨어져서 나무가 [가게들에] 묻힐 수도 있고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화려하게 나무를 감싸주니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는 나무까지 화려하다고 생각했죠… 나무에 입혀진 옷들도 각각 다른 모양이고 하니까, 지나가면서 '어! 나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같이 간 친구랑 하나씩 골라보기도 하고. '나는 아까

지나온 걔가 마음에 드는데?' 이런 말도 나누고."(C-W02)

c) 가로수에 대한 발화와 지칭

개별 가로수를 식별한 경험을 공유한 연구 참여자 C, D, E는 공통적으로 가로수를 지칭할 때 '얘', '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이', '그'라는 지시대명사와 아이의 준말이 합성된 것으로, 인간이나 생물에 주로 쓰이는 말이다. 특히 C는 가로수를 식별하고 주목하며 가로수를 그와 같이 지칭하게 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기존 가로수를 대하는 상황과는 다른 태도와 애정을 가지게 된다고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가로수에 대해 발화하고 생물로 지칭하는 것은 가로수를 하나의 살아 있는 개체로 인식하고 애정을 품고 있음에 대한 무의식적 표현이었다.

> "나무라기보다는, 강아지가 옷 입잖아요. 얘네들도 옷 입었다는 게 뭐랄까. 살아있는 생명을 대하는 느낌이었어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대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는 어쨌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잖아요. 나무도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무생물 대하듯 대하잖아요. 근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하는 게 아니라 '얘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을 대하는 것처럼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C-W02)

2.2. 주행 경험

1) 일과 속 풍경 감상

a) 계절 특정적 경험과 도로 환경 조건

연구 참여자 A와 E는 각각 퇴근길과 등굣길에 차량으로 이동 중 '풍경'을 감상한 경험에 대해 진술했다. 이들 진술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경험은 특정 계절적 시기에 국한된 경험이었다. E의 경우 연중 벚꽃이 피었을 때 퇴근하며 보는 풍경에 대해 진술했으며, A의 경우 여름의 학교 가는 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함께 창밖의 풍경을 회상했다. 두 참여자는 차선의 개수를 언급하며 경험이 일어난 도로 환경을 묘사했다. E는 2차선으로 길이 좁은 데 비해 가로수가 촘촘히 심어져 녹음이 우거지는 길이 펼쳐진다고 진술했으며, A는 6차선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환경에서 이용 차선에 따라 벚꽃 감상이 쉬워진다고 진술했다.

> "저는 여름에 학교 가는 그 길을 정말 좋아해요. ○○○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면 ◇◇대학교 후문까지 쭉 이어지는 2차선 정도의 가로수길이 펼쳐지는데, 나무 간격도 꽤 촘촘해서 여름이 되면 정말 푸르디푸른 길이 펼쳐집니다."(A-W01)

> "출근길이 꽤 넓어요…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꽃이 잘 보이거든요? 퇴근할 때 기분이 더 좋기도 하고 출근할 때는 가로수랑 가장 먼 차선으로 가게 되는데 퇴근할 때는 가까워서요."(E-D01)

b) 풍경 요소의 복합적 감상

연구 참여자 A와 E는 공통적으로 창밖으로 지각한 내용을 풍경이라 표현했으며, 지각하는 요소에 대해서 나열했다. E의 경우 풍경을 감상할 필요조건으로 벚나무의 개화를 꼽았으며, 벚나무와 함께 노을과 달이라는 자연적 요소를 함께 감상했다고 진술했다. A 역시 여름의 무성한 가로수와 함께 조

표 Ⅲ-4 의미 있는 진술에 따른 가로수 경험의 양상(주행 및 조감)

진술의 키워드			의미단위	주제
여름, 학교 가는 길, 2차선, 나무 간격 촘촘, 푸르디푸른 길(A-D01)	봄, 퇴근길, 꽃, 가까운 차선(E-D01)		계절 특정적 경험과 도로 환경 조건	일과 속 풍경 감상
햇빛, 매미소리, 나무, 조깅하는 사람들, 풍경, 생명력, 쨍쨍, 무성함, 기운이 넘치는 환경, 지구/땅의 생명력, 에너제틱(A-D01)	풍경, 기분, 벚나무, 노을, 달(E-D01)		풍경 요소의 복합적 감상	
작음, 울타리, 상태 안 좋은, 액세서리, 나무 낭비, 돈 낭비, 지자체(D-D01)	깍둘썰기로 다져진 플라타너스, 오프제, 레고, 규격화(E-D04)		물체화된 가로수 인식과 비판	일과 속 부정적 경험
자연스럽게 크게 자라는 배롱나무, 생육 환경, 자랄 공간, 관리, 산이나 좋은 환경(D-D01)	자연스러운 나무, 생명체, 물건(E-D04)		생명으로서 가로수 인식과 연민	
벚꽃 속에 갇힌 느낌, 산길, 텅텅 빈 버스 창가, 가지가 툭툭 부딪히는 , 설레고 강렬(A-D03)	산이니까 꼬불꼬불, 빨려 들어가는 느낌, 브이알, 장면, 공기, 꽃냄새, 자연, 살아 움직이는 것들, 체감(D-D03)		산중 벚나무길에서의 몰입	만개한 가로수길 경험
도시고속도로, 동화, 하얀 꽃이 흐드러짐, 장면, 옆 창, 오래, 화려, 생각지도 못한 색(C-D03)			고속도로 이팝나무 가로수 감상	
봄 한정 관광버스(A-D03)	벚꽃이 지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C-D03)	겨울 지나고, 벚꽃 피는 시기, 계절감, 벚꽃구경이 한 몫(D-D03)	계절 인지와 계절제	
가로수 맞닿음, 나무 터널(A-D02)	메타세쿼이아, 좁은 2차선, 터널, 시야 차단(C-D04)	커다란 나무 나타남, 양쪽으로 감싼 느낌, 도시, 다른 분위기, 분리된 느낌(D-D02)	분리된 장소로서 가로수길 인지	울창한 가로수길 경험
그늘-양지, 차 안 시트, 얼굴이랑 몸이 따사로움, 기분 좋음(A-D02)	나무가 울창하게 좁은 길, 메타세쿼이아 길, 서늘해짐, 센 빛, 열기 차단, 오아시스, 피난처(C-D04)	빛이 사이사이, 기분 전환, 따뜻, 기분 좋음(D-D02)	햇빛과 나무 그늘의 촉감	
숲 속이나 산 속, 자연 속에 들어온 느낌(A-D02)	숲, 나무 냄새, 도시(C-D04)	숲, 엇비슷한 느낌, 숲만큼의 감흥은 아님(D-D02)	숲과 연관된 인지	
걸을 때, 나무 전체 안 들어옴, 위에서 한눈에 들어옴, 하나하나, 평면도 수목 표현(C-B01)	위에서 본 그림, 비행기, 밭, 드문드문 건물, 나무가 따닥따닥 붙어있음(D-B01)		평면화된 가로수 지각	조감 경험
똥글똥글, 귀엽게 보임(C-B01)	식물 입장에서 안타까움, 가관, 효과, 좁은 틈, 의외로 많지 않음(D-B01)		평가와 생명 인식	

깅하는 사람들을 함께 지각하며 풍경으로부터 감흥을 얻는다고 진술했다. 두 참여자의 지각 경험은 공통적으로 시각적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나, A의 경우 매미 소리, 버스 내부 환경조건 등을 언급하며 촉각적, 청각적 요소도 버스로 이동하는 중의 지각 경험에 작용하고 있었다.

A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여름의 등굣길 풍경에서 특별한 자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왕성히 생장하고 있는 나무의 무성한 특질과 매미소리, 런닝하는 사람들 등이 존재하는 왕성한 기운의 풍경을 지각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구의 생명력', '땅의 생명력'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지각한 바를 '힘을 북돋아 주는 풍경'이라고 묘사했다.

> "버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아주 쾌적하고 시원한데 밖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밖에는 햇빛이 쨍쨍하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완전히 파랗고 무성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죠. (창밖으로 바라보는) 환경은 기운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랄까. 지구의 생명력, 땅의 생명력을 느꼈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 선글라스 끼고 간편한 운동복 차림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에너제틱하게 생명력 넘치는 풍경에 한몫해주는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내가 역동적인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무언가 하고 싶은 자극을 받고, 힘을 북돋아 주는 풍경이었어요."(A-D01)

> "풍경을 봐요. 기분도 좋고 벚나무도 예쁘고 노을도 지고, 잘하면 달도 보여요."(E-D01)

3) 일과 속 부정적 경험

a) 물체화된 가로수 인식과 비판

연구 참여자 E와 D는 각각 버스 탑승, 주행을 통한 일상적 이동에서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한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가로수가 '오브제' 또는 '액세서리'로 물체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E는 사각 전정을 '깍둑썰기'라고 표현하고 직육면체와 같이 전정된 플라타너

스 가로수를 ‘레고’, ‘고체’에 비유했다. 그는 가로수가 형태적으로 건물과 동질적이라고 평했으며 이러한 가로수를 볼 때 기분이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D는 주로 이동하는 교외 도로에서 묘목 정도로 작다고 인지되는 배롱나무 가로수들이 ‘울타리’와 같이 심긴 데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는 가로수가 ‘액세서리’로서 미화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데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 “(배롱나무 가로수가 심어진 도로를) 보면 가로수가 너무 작아요. 높이가 2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울타리 같아요. 그리고 다 예쁘게 핀 것도 아니에요. 상태 안 좋은 애들이 꽤 있어요. 그냥 ‘액세서리’죠. 예쁜 게 ‘짠!’하면 그만… 그냥 한 철 꽃 보려고 지자체에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길게 안보고. ‘저것은 인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늘 역할도 못 하잖아요… 나무 낭비, 돈 낭비 같아요.”(D-D01)

> “깍둑썰기로 다져진 플라타너스들이… 오브제 같아요, 오브제. 가뜩이나 사람 많고 북적이는 장소에 건물이랑 같이 레고처럼 쌓여 있으니까. 건물 하나 더 껴놓은 것 같이 잘 어울려, 근데 보는 내 마음은 답답해… 원래 나무는 좀 가벼운 이미지인데, 그 가로수들은 각이 져 있으니까 고체 같다고 해야 하나.”(E-D04)

D와 E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진술에서 주체가 가진 나무의 이상적 형상에 대한 관념적 틀이 확인되었다. E는 집합적 대상으로서 ‘나무’가 ‘자연스러워 주변에 블러 처리’를 해주며 ‘가벼운’ 양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각진’ 모양에 ‘무거운 고체’와 같은 사각 전정된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대해 이러한 관념에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 언급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D는 과거 경험 속 배롱나무 종의 ‘자연스럽게’ 자란 형상을 기준으로 삼아 척박한 환경에 밀집되어 심어진 가로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두 참여자 모두 관념 속 ‘자연스러운’ 형상이 아닌 인공적 형상을 한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크게 자라는 배롱나무를 봤잖아요. 이 조그마한 애들도 꽃은 쨍하게 예쁘지만 '더 좋은 곳에 심어졌으면 식물도 좋고 인간이 보기에도 더 아름다울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죠."(D-D01)

"나무는 자연스러워서 주변 환경에 블러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환경이 건물로 가득 찼는데 네모난 게 또 가득 차 있고, 나무가 규격화돼서 그 경계가 너무 잘 보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E-D04)

b) **생명으로서 가로수 인식과 연민**

두 참여자는 '자연스러운' 이상적 가로수와 그에 대비되는 경험 속 실제 가로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통적으로 가로수가 생명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E는 관찰한 가로수가 직육면체의 형상과 무거운 양감을 가졌다는 점이 '생명체' 같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D는 생명에 대한 인식과 연민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가로수의 형상 자체보다는 그러한 형상을 가진 혹은 발현시킨 환경을 문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가로수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게'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그렇게 심어놓으면 얘가 얼마나 오래갈까 회의가 들죠. 나무 생육 환경이 전혀 안 좋아 보이니까. 땅 자체도 도로 시멘트가 있으면 흙은 정말 조금 있으니 자랄 공간이 좁잖아요. 게다가 나무 간격도 좁고… 알아서 잘 클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환경에 심었으면 관리라도 잘해야죠.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산이나 좋은 환경에 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관리를 해줘야죠."(D-D01)

"더 무거운 느낌이고 양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물건 같아요, 생명체가 아니고."(E-D04)

4) 만개한 가로수길 경험

연구 참여자 A, C, D는 인상에 남는 가로수 경험으로 반복적 일과를 수행

하는 생활반경에서 벗어나 꽃이 만개한 경관을 마주한 순간에 대해 진술했다.

a) 산중 벚나무길에서의 몰입

연구 참여자 A, D의 미적 경험은 거주 도시 내 산지의 도로에서 일어났다. 두 참여자는 '커브', '꼬불꼬불', '오르막' 등 도로의 형태와 지형을 밝히며 일반적이지 않은 도로 환경이 독특한 미적 경험을 발생시켰음을 언급했다. 주체는 경사진 곡선의 도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벚나무가 펼쳐지는 광경을 감상하는데, 경사가 있는 곡선 형태의 도로를 지나며 주시하는 대상인 '나무' 또는 '꽃 무성한 데'와의 물리적 거리가 해소되고 있었다. A는 '창문에 벚꽃가지가 툭툭 부딪히는 소리'를, D는 햇빛, 공기, 꽃향기를 언급하며 시각적 자극뿐 아니라 다른 감각적 자극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환경을 체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A는 '벚꽃에 둘러싸인 느낌', D는 '벚나무의 공간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묘사하며 꽃이 흐드러진 환경에 몰입했음을 시사했다. 주요 감각을 살펴보면, A의 경험에서 시각적 자극과 함께 청각적 자극이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자가용 앞좌석을 이용한 D의 경우 당시의 경험을 가상현실 '브이알(VR)'에 비견하며 앞 유리를 통한 시각적 자극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참여자의 몰입 경험은 감각적 차원을 넘어 설렘, '마음에 와닿는 자극'의 정서적 감응을 포함했다.

> "◎산을 타고 내려가는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가 4월쯤이라서 한창 벚꽃이 피는 시즌이었어요. 산길이라서 일자형 도로가 아니라 커브가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꽃이 핀 가로수가 쭉 펼쳐진 ◎산을 텅텅 빈 버스 창가에서 구경하는데 일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벚꽃 속에 갇힌 느낌이랄까. 나무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버스 창문에 벚꽃가지가 툭툭 부딪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라운딩'. 풍성한 벚꽃에 둘러싸인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설레고 강렬했어요."(A-D03)

"거기가 오르막이에요. 산이니까 꼬불꼬불 가거든요? 각도가 올라가니까 벚나무의 공간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일반 평지 도로를 달릴 때는 그냥 '예쁘네'라고 지나갈 텐데 거기는 동굴에 들어가는 느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자극을 받아요, 각도가 만드는 시선 때문에… 앞창 유리창, 햇빛이랑 벚꽃이랑 이렇게 사아악 지나가잖아요. 브이알처럼 그 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유리창에 한가득 벚꽃이 날리고 햇빛이 들이치는 장면이… 꽃 무성한 데가 가까이 다가와요. 이게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 [꽃이 무성한 부분이] 나랑 시선이 맞을 때가 있는 거죠… 더 잘 느끼려고 창문을 내려요. 만약에 창 다 닫혀있으면 어떻게 보면 영상 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미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림만. 근데 창문을 내리면 공기, 꽃냄새, 자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거죠."(D-D03)

b) 고속도로 이팝나무 가로수 감상

연구 참여자 C는 도시 내 이동을 위해 한 도시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처음 지나가던 중 하얗게 만발한 이팝나무 가로수에 관한 강렬한 경험을 회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금 감탄하며 시야의 측면에 흰 꽃이 '흐드러지게 늘어선 장면'을 본 순간 강렬한 놀라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C는 보이는 장면에 매료되어 나무가 옆을 지나갈 때까지 꽃에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팝나무꽃의 하얀 색깔이 갈색·녹색·분홍색·노란색 등의 자연에서 흔히 보이는 색이 아니라고 밝히며 익숙하지 않은 색깔이 더욱 강렬한 시각적 인상을 남겼음을 인지했다. 한편 C의 경험은 시각 외 감각에 대한 묘사는 전무하여 시각이 지배적인 경험이었음을 시사한다.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그 길을 처음 갔을 때 처음 본 거죠. 꽤나 길게 심어져 있었고 동화에 묘사되는 것처럼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늘어선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옆창을 통해 더 오래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흰색은 자연에서 마주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흙색, 갈색 아니면 녹색 아니면 진달래나 개나리같이 분홍색이나 노란색? 근데 생각지도 못한 색을 한꺼번에 많이 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놀라서 벙 찐다고 해야 하나, 화려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도에 있는 가로수는 길게 이어지

잖아요. 멀리서부터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점점 자세히 볼 수 있죠. 멀리서는 수채화 정도 물 탄 느낌이었다가 유화처럼 결도 보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멀리서 그냥 점이 여러 개 찍혀있거나 물결처럼 보였던 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면 꽃잎 모양이 길쭉하다든가 둥글다든가 갈라져 있다거나 이런 게 보이게 돼요. 나무껍질 색깔이라든가… 운전하는 중이니까 그냥 곁눈길에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C-D03)

c) 계절 인지와 계절제

연구 참여자 A, C, D는 모두 가로수에 꽃이 만발한 상황을 진술하며 계절에 대해 언급했다. 세 연구 참여자는 가로수의 꽃이 피는 시기를 계절 변화와 연관해 인지하며 계절 변화가 다가옴에 따라 가로수의 개화를 예상하거나 반대로 만개한 광경 속에서 계절을 기념하려는 인식을 드러냈다. C는 '벚꽃이 지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이팝나무 가로수를 연상한다고 진술했으며, D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벚꽃이 피는 시기로서 사람들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진술했다. A, D의 꽃이 만발한 가로수길을 주행하는 경험은 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계절 현상을 체험하며 계절을 기념하는 계절제(季節祭; seasonal celebration)의 성격을 가진다. D는 애초에 벚꽃 명소로 유명한 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했으며, A는 예기치 않은 벚꽃 구경에 대해 '봄 한정 관광버스'를 타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마치 봄 한정 관광버스를 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관광버스화해도 될 것 같아요."(A-D03)

"벚꽃이 지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하얗게 만발한 이팝나무 가로수가 가끔 떠오릅니다."(C-D03)

"겨울 지나고서 딱 벚꽃 피는 시기가 봄 될 때잖아요. 사람들이 다 '봄이구나' 하는 계절감을 느끼는 데 벚꽃 구경이 한몫하는 것 같아요."(D-D03)

5) 울창한 가로수길 경험

a) 분리된 장소로서 가로수길 인지

연구 참여자 A, C, D, E는 나무가 울창한 길을 지나간 경험에 대해 진술했다. A와 D는 나무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C와 E는 메타세쿼이아라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들이 묘사한 공간은 모두 가로수가 '울창'하거나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공간이었으며, 특히 A와 E는 공간에서 느낀 감각을 묘사하며 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선 길을 '터널'에 비유했다. C와 D는 나무의 울창함과 함께 좁은 길의 폭과 높은 수목의 대비에 대해 언급했다.

직접적으로 분리된 감각을 표현한 D와 E는 각각 '소리와 시야의 차단'과 '다른 분위기', '분리된 느낌'으로 당시 느낀 감각을 묘사했다. D와 E는 가로수길에 들어서기 전 도로 주행 시 보았던 주변 환경의 요소들을 언급했고 공간 내에서 그러한 요소와 대비되며 위요된 감각을 주는 공간에 들어왔다고 인지한 내용을 진술했다. 특히 D는 도시에서 그렇게 큰 나무를 보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도시의 나무가 크고 울창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보였다.

>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가지고 서로 맞닿는 거 있잖아요. 나무 터널같이 되어 있는 곳."(A-D02)

> "주변에 그런 게 전혀 없다가, 가로수도 그만큼 큰 게 전혀 없다가 '빡!'하고 나타났어요. 그냥 도시에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는 그냥 도시였는데 다른 분위기로 갑자기 커다란 나무가 '빠바박' 있어가지고 놀랐죠. '오, 이런 게 있네!' 도시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나무를 보게 된 거니까요… 울창해서 나무가 더 도드라지게 보였어요. 일반 가로수를 볼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도로를 나무가 양쪽으로 감싼 느낌이 드니까 다른 분위기의 공간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리된 느낌이 딱 들었죠."(D-D02)

> "마을 도로 양옆으로 메타세쿼이아가 줄지어 서 있어요. 좁은 2차선에 수직으로 서 있는 높은 나무인데 길 폭보다 나무 높이가 훨씬 크니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위가 어두워져요. 그 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평지였는데 갑자기 벽 있는데로 들어가니까 터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시야가 넓게 펼쳐져서 볼

게 많았는데 길에 딱 들어서면 시야가 차단되니까 신경 쓸 게 사라지잖아요. 오로지 길만 보이고 소리도 차단되니까 신경 쓸 게 조금밖에 없어서 답답하기보다는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그전까지는 옆에 밭 보이고 저기 멀리는 산 보이고 집도 중간에 있고, 차 주차된 것도 다 보이니까."(E-D03)

b) 햇빛과 나무 그늘의 촉감

연구 참여자 A, C, D, E는 빛 또는 그늘이 만드는 촉각적, 시각적 특질을 언급하며 그에 따른 지각 경험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A와 D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과 나무 그늘이 반복되어 '따사로움', '따뜻함'을 느꼈으며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C와 E는 공간 내에서 빛과 그늘의 대비보다는 공간에 들어서기 전후로 대비되는 빛과 그늘의 감각에 대해 진술했다. E는 가로수길 진입 시 어두워지는 감각, C는 서늘해지는 경험을 언급했다. E는 주로 시각적 대비를, C는 시각적 변화와 함께 열기와 시원함을 언급하며 촉각적 대비에 주안점을 두고 진술했다.

"그늘-양지-그늘-양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잖아요. 가로수길이 아무리 빽빽해도 나무와 나무 사이마다 잠깐의 양지가 나타나니까요. 차 안 시트에 앉아서도, 내 위로 그늘이 졌다가 잠깐 햇빛이 내리쬐다가 그늘이 졌다가 햇빛이 비치다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얼굴이랑 몸이 따사롭고 기분이 좋아요."(A-D02)

"더운데 나무가 울창하게 좁은 길에 높은 교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메타세쿼이아길 같은 곳에 딱 들어가면 서늘해지는 경험이 있어요. 어릴 적 초등학교 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길이 길고 빽빽하게 있었거든요? 뙤약볕일 때 앞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엄청 센데, 그 길로 들어가면 눈이 부시거나 너무 환했던 햇빛이 차단되고, 화끈거렸던 열기도 차단되니까 오아시스 같았죠. '와! 시원하다!' 하면서 피난처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C-D04)

"빛이 사이사이로 들어와서 기분 전환되는 느낌이 있었죠. 따뜻한 느낌. 햇빛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D-D02)

c) 숲과 연관된 인지

연구 참여자 A, C, D는 모두 울창한 가로수길의 경험을 숲과 연관해 설명했다. A는 앞서 언급한 나무 그늘과 햇빛이 주는 감각을 설명하며 숲의 경험에 비견했다. C는 길에서 나는 나무의 냄새가 숲에서 나는 냄새와 유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숲 냄새'를 나무가 만드는 후각적 특질로 인식했으며, 또한 도시와 숲을 대비되는 것으로 인식하며 시각적 지각의 대상은 '도시적'인 반면 후각적으로 지각되는 특질은 '숲에서 나는' 냄새라는 점에 대해 인지했다. 앞의 두 참여자는 가로수길과 숲의 경험을 유사성을 중심으로 비교했지만, D는 묘사한 가로수길에서 유사한 감각을 느끼고 이를 즐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숲에 없어야 할' 인공물이 있으므로 가로수길이 숲만큼의 정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

> "숲 속이나 산 속에 있으면, 나무가 위를 가득 채우고 있고, 구멍구멍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느낌을 차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자연 속에 들어온 느낌이라 좋았어요."(A-D02)

> "수목이 있으니까 숲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나무 냄새가 있어요. 넓은 길에 바람이 통하면 숲에 나는 비슷한 냄새가 났죠. 눈앞에 보이는 건 숲이 아니라 분명히 도시같은데 숲에서 나는 숲냄새가 났어요."(C-D04)

> "제가 원래 숲을 좋아해서, 가로수라도 그런 엇비슷한 느낌이 나면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를 내거나, 좀 울창한 느낌이 들면 숲을 보는 느낌을 엇비슷하게나마 받아요… 그렇지만 건물도 있고 숲에 없어야 할 것들이 같이 공존하니까 숲만큼 감흥을 받지는 않아요."(D-D02)

2.3. 조감 경험

1) 평면화된 가로수 지각

연구 참여자 C는 고층빌딩의 카페에서, D는 비행기 이착륙 시 도시의 대지를 조망했을 때 가로수를 관찰한 내용을 진술했다. 이들은 걸을 때 시야에 전체가 들어오지 않는 가로수들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방식을 통해 가로수를 의식적으로 지각하게 되었다. C, D는 시각적 경험을 묘사할 때 각각 '평면도', '위에서 보는 그림'에 비견했으며, 건물, 밭, 길 등과 함께 있는 평면적 요소로 가로수를 식별했다. 또한 C는 '옹기종기', D는 '따닥따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가로수가 평면상에 집합적으로 배열된 형태를 지각했음을 알 수 있었다. C, D 모두 대지에서의 가로수 경험과 조감 시의 경험을 비교했다. 먼저, C는 그가 실내에 들어오기 직전 걸었던 길을 조망했는데, 그는 걸을 때 가로수를 느끼지 못했다는 언급과 함께, 그 이유가 걸을 때 시야에 나무 전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 "걸을 때는 나무 전체가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보게 됐죠… 걸을 때는 나무를 인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나무가 '똥글똥글' 귀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평면도를 그릴 때 수목을 동그랗게 표현하는 이유가 와 닿았어요."(C-B01)

>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비행기에서 이륙 후나 착륙 전에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 육지가 보일 때도 있어요. 밭도 보이고 드문드문 건물도 보이는데, 그때 느끼는 점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아, 의외로 많지 않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나무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다'"(D-B01)

2) 평가와 생명 인식

평면적 대상으로 가로수를 지각한 연구 참여자 C와 D의 평가는 상반되었다. C는 가로수가 '귀엽게' 보인다는 긍정적인 미적 판단을 내렸다. 반면 D

는 조망의 경험에서 본 바를 '가관'이라며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평소 땅 밑에서 가로수를 보면서 가졌던 부정적 인식과 감정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 "식물 입장에서 안타깝죠. 저렇게 붙여 살기 힘들게 심어 놨으면 효과라도 확 있을 수 있게 심든지. 그렇게 식물에 피해를 줘놓고 심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땅 밑에서도 느꼈는데 위에서 보니까 더 가관이었어요… '도시를 계획한 그 면적에 비해서, 땅 면적에 비해서 가로수가 의외로 많이 심어져 있지 않구나'… 도로 면적과 사람 다니는 면적은 넓지만 그 사이사이 좁은 틈에 가로수를 끼워 넣어 심은 것 같았어요."(D-B01)

가로수를 조감하는 경험에서 D의 반응은 생명으로서 가로수 인식에 기인했다. 그는 '식물의 입장'을 고려하여 식물이 '살기 힘들게' 심어졌으며, 식물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행 가로수 조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3. 소결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시민이 실제로 가로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즉 가로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접근했다. 이 절에서는 주체가 진술한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 이론의 해석 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의미 연관에 따라 분석하고 일차 진술과 함께 기록했다. 가로수 경험은 보행, 주행, 기타 경험으로 개략적으로 구조화된 반구조적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용 수단에 따른 미적 양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걸을 때 주체는 공감각적 체험, 일상의 축제, 이완을 위한 감상, 개별 가로수 식별의 4가지 양상으로 가로수를 경험했다. 첫 번째로 공감각적 체험 양상이 드러나는 경험 대부분은 계절에 대한 언급을 동반했다. 공감각적 체험에 속하는 구체적 세부 양상의 첫 번째는 계절, 기후 조건과 공감각적 지각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이를테면 주체의 기분, 좋은 날씨와 광경, 촉감, 냄새, 소리 등이 복합적으로 만드는 경험의 측면을 드러낸다. 주체는 이러한 계절에 따른 공감각적 체험에서 지각하는 특질, 예를 들어 낙엽, 벚꽃, 계수나무 향기 등을 지각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E를 제외하고 모두 가을의 은행 낙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을 진술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체는 계절이 변화했음을 인식했다.

다음으로 계절에 따른 가로수의 변화는 평범한 일상에 축제의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다. 평범한 장소는 벚나무나 이팝나무꽃이 개화하고 은행나무 단풍이 드는 현상과 함께 일시적으로 특별한 장소로 거듭나며,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미적 경험을 즐기는 양상이 드러났다. 계절제의 경험은 공감각적 체험을 포함하는 한편 환경을 경관으로서 감상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계절과 연관된 경험 이외 걸을 때의 경험은 주체의 이완을 위한 감상과 개별 가로수 식별의 두 양상이 드러난다. 이완을 위한 감상에서 주체는 의식적으로 휴식과 안정을 취하기 위해 가로수를 멍하니 응시했다. 가로수는 '자

연', '푸른 것', '덩어리'로 추상적으로 표현되며 가로수에 대한 세부 묘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휴식 목적의 응시에서 주체는 단순화, 추상화된 대상으로 가로수를 인지했다.

마지막 보행 경험의 양상은 개별 가로수의 식별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개체의 새롭고 독특한 특징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주체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해 일상 환경을 벗어날 때 가로수를 식별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주체는 여러 가로수 개체를 비교하고 감상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가로수는 '나무'로 지칭되고 주체는 나무 자체를 화제로 발화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차를 탄 경우 일과 속 풍경 감상,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 경험, 만개한 가로수길 경험, 울창한 가로수길 경험의 4가지가 유의미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과 속 풍경 감상의 경우, 주체는 일상적 이동에서 가로수 자체를 대상으로 감상하기보다 '풍경'을 감상하는 가운데 그 일부로 가로수를 이해했다. 보행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풍경 감상의 양상은 계절과 연관되었다. 이때 도로 환경에 따른 가로수와의 거리가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체는 창밖 풍경의 다양한 요소, 이를테면 행인, 햇빛, 소리, 하늘 등을 복합적으로 감상했다.

두 번째로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서 주체는 공통적으로 '액세서리', '오브제' 등의 사물처럼 조성되거나 전정되는 가로수를 지적했다. 이러한 양상은 식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주체들에게서 나타났으며, 비판 의식의 기저에는 '자연스러운 나무'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가로수가 생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는 특정 가로수가 심어진 환경이 생명으로서 가로수가 살아가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주체는 가로수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양상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만개한 가로수길 경험은 도로 환경의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 먼저 곡면 및 경사가 특징적인 산중 만개한 벚나무길에서 주행

경험은 감각적, 정서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이팝나무를 경험할 때는 산중 도로에서의 경험과 같은 몰입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의 '장면'으로 가로수를 유심히 감상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만개한 가로수길 경험은 모두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 특정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시적 경험으로서 인식되고 기념되는 양상을 포함한다.

마지막 주행 경험의 양상으로 울창한 가로수길 경험은 '터널'로 표현되며 주위와 분리되어 가로수가 독특한 장소감을 만들어내는 인지 경험이다. 이때 주체는 햇빛과 나무 그늘이 반복되며 만들어내는 따뜻한 감촉으로 '기분 좋은' 감각을 즐겼다. 이러한 가로수길 경험을 '숲속'에서의 경험과 비교해 인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행 및 주행 경험 이외에 비행기 또는 높은 빌딩에서 도시 및 가로수를 내려다보는 경험도 존재했다. 주체는 조감을 통해 도시를 '평면도', '위에서 본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가로수가 심어진 모양을 평면적으로 인지했다. 이때 주체는 가로수와 그가 있는 환경에 대한 평가를 드러냈는데, 특히 식물 지식이 있는 주체의 경우 가로수에 대한 생명 인식을 드러내며 도시 환경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렸다.

Ⅳ. 도시 가로수의 미적 경험 해석

앞의 Ⅲ장에서 이 연구가 수집한 경험은 도시민의 일상에 얽혀 있는 가로수에 대한 다양한 미적 양상(aesthetic aspects)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가로수 경험의 모든 양상을 드러낼 수는 없을지언정 도시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양상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자 한다. 우리는 가로를 걸어가며 개화나 단풍으로 아름다워진 일상 환경을 온몸으로 느끼거나, 축제처럼 즐기며, 멍하게 가로수를 응시하며 쉬거나, 어떤 가로수를 관찰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가로수가 있는 풍경을 감상하며 시들거나 심하게 가지가 잘린 나무를 인지하고 인상을 찌푸리곤 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만개한 가로수를 보고 감탄하거나 울창하게 늘어선 길에서 좋은 기분을 느낀 적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점처럼 작아진 가로수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도시민의 일상에 실재하는 가로수 경험을 환경미학의 시각과 방법을 통해 환기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도시민의 삶 속 가로수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해 기술적 미학(descriptive aesthetics)을 활용해 가로수 경험에 대한 기술을 제시한다. 기술적 미학은 시, 소설, 자연문학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 경험을 기술함으로써 간과된 환경에 대한 지각을 안내하고 미적 이해를 넓히는 미학의 한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서사적이고 현상학적이며 환기적이고 때로는 폭로적이기까지” 하다.[1]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일차 자료를 미학적 데이터로 삼아 연구 참여자가 사용한 어휘를 사용해 그의 경험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감각하고 생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미학의 방법으로서 이러한 기술은 어떤 환경에 대한 경험의 과정을 섬세하게 추적하고 간과된 특질을 포착하게 만든다.[2] 즉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가로수에 대한 기술적 미학은

---

1) Arnold Berleant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p.25-39.

도시의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가로수의 어떤 특질을 지각하며 그것이 어떤 인식과 감정을 촉발하는지, 또 어떤 선입관(preconception)이 그러한 인지 경험에 작동하는지 생생히 조명하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가로수의 기술적 미학은 가로수가 도시민의 감각, 인식, 정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며, 가로수와 관계 맺는 도시민의 삶의 영역에 대한 실제적 해석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실제 경험에 대한 기술을 주요 자료로 삼아 이 연구는 환경미학의 시각에서 도시민의 가로수 경험을 해석한다. 환경미학의 관점은 크게 지각 중심 이론과 인식 중심 이론의 두 가지로 분기하는데 이 연구는 각 관점을 이용해 신체를 통한 직접적 지각이 두드러지는 가로수 경험과 가로수에 관한 지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을 해석한다. 먼저, 지각 모델은 즉 직접 신체로 감각한 내용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이 관점이 중점을 두는 미적 방식은 공감각적 참여와 시각적 관조이다. 참여와 관조에 대한 환경미학 이론은 이 연구에서 수집한 가로수 경험의 전반에 나타난 주요 양상인 계절에 따른 공감각적 체험과 풍경 감상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두 양상이 각각 참여와 관조의 미적 방식과 깊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한편, 인식 모델의 환경미학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 미적 이해를 열어주는 긍정 미학(positive aesthetics)과 그와 반대로 부정적 미적, 도덕적 판단을 동반하는 부정 미학(negative aesthetics)으로 나누어진다. 앞서 Ⅲ장에서 나타난 가로수 경험에서 가로수에 대해 주체가 가진 선입관, 이를테면 식물에 대한 과학 지식이나 상식을 고려해 가로수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 모델이 제공하는 지식이 각각 긍정적, 부정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은 가로수에 관한 지식이 상반된 방식으로 작용하는 가로수 경험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통찰을 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각 모델의 신체적 참여와 시각적 관조의 방식, 인식

---

2) Emily Brady (2022), “Global Climate Change and Aesthetics,” *Environmental Values* 31(1), pp.27-46.

모델의 긍정 미학과 부정 미학에서 나타나는 미적 방식을 해석 도구로 삼아 수집한 가로수 경험을 이해한다. 이 장의 1절과 2절에서는 감각 중심 관점을 통해 각각 계절에 따른 공감각적 경험과 풍경 감상에서 도시민이 지각하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3절과 4절에서는 먼저 지식이 안내하는 긍정적 경험, 이어서 지식이 부정적 판단을 야기하는 경험이 전개되는 방식을 고찰한다. 그러나 지각 모델과 인식 모델에서 나타나는 미적 방식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미적 경험은 다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연구는 지각과 인식 모델이 제공하는 해석 틀을 중심으로 하되 정서, 상상력 등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에서의 인간과 가로수의 만남을 보다 적실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1. 계절에 대한 공감각적 참여

이 절에서는 계절에 따른 가로수 경험의 지각적 차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대다수의 가로수 경험은 주행과 보행 경험을 막론하고 계절 변화, 특히 개엽, 개화, 결실, 낙과, 단풍의 경험에 따라 촉발되었다. 특히 보행 경험에서 나타난 계절에 따른 공감각적 체험에서 시각뿐 아니라 다른 신체 감각을 통해 몰입하는 양상이 지배적이다. 주행 경험에서는 가로수가 있는 풍경을 일방향적으로 보는 양상이 두드러지나 일부 주행 경험에서도 공감각적 체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계절 관련 공감각적 경험은 환경미학의 지각 모델이 제시하는 '참여(engagement)'의 방식과 많은 측면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참여미학의 관점에서 도시에서의 계절에 따른 가로수 경험을 일깨우고 해석하고자 한다.

가로수 경험의 주요 변인인 계절 변화는 '일 년을 단위로 일어나는 주기적 변화로서, 지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자연 현상이다.[3] 사계절이 명확한 지역에서 계절의 순환은 인간이 지각하는 도시 환경의 모습에 완연한 변화를 가져온다. 빌딩, 가로등, 전깃줄과 같은 인공물와 달리 식물, 유기체로서 가로수는 기존 환경과 강렬한 대비를 일으키는 시각적 표면 특질(surface qualities)을 드러내는 동시에 시각 이외 다감각적으로 경험되는 특질을 제공한다. 가로수의 계절에 따른 반응은 인지의 배경에 있던 가로수를 전경으로 가져온다. 아래 글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로수길에 대한 연구 참여자 B의 실제 경험의 과정을 그의 어휘를 그대로 사

---

3) Jean-Claude Corbeil & Ariane Archambault (2008),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Edinburgh: Encyclopaedia Britannica, p.328. 계절은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후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기후의 추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비교적 뚜렷이 나타난다. 이 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처럼 사계절이 명확한 지역의 가로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의미하다.

용해 상세히 기술한 것이다. 이 예화는 가을이 오자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던 가로수와 그것이 있는 환경을 새삼 느끼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평소 지나는 거리에 찬 기운이 돌고 낙엽이 지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바람이 불었다 하면 사방이 낙엽이다. 잎사귀는 파도치는 바다의 돛단배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려온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낙엽은 보도에 사르르 안착한다. 어떤 질척임도 끈적거림도 없는 그 착지에 왠지 모르게 흡족하다. 시선을 늘여 나무가 한편으로 늘어선 길을 굽어보면 가을의 광경이 펼쳐진다. 눈앞에 떨어지는 낙엽은 무작위로 춤추는 듯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낙엽들이 땅에 떨어지기까지 비행 곡선은 풍향과 일치한다. 일순간의 편향된 하강은 앞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의 광경에 시각적 리듬을 만든다. 살결이 드러난 볼과 목부터 찬 기운을 느낀다. 레몬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침이 고이는 것처럼, 나는 그 광경을 떠올리면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게 된다. 분명 가로수길은 다른 공기를 지녔다. 가을 특유의 공기가 있는데 이것이 가로수 아래에서 증폭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공기는 냄새이기도 하면서 촉감으로 느껴진다. 숨을 쉬면 향긋한 낙엽 냄새, 흙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은은하고도 쿰쿰하게 발효되어가는 듯한 냄새가 코에 들어찬다. 미네랄의 뉘앙스와 물기 없는 서늘함은 형언하기 어려운 어떤 맑은 냄새를 만들어 낸다. 그 냄새를 듬뿍 들이쉬는 일은 코로, 나아가 가슴으로 시원한 공기의 감촉을 만지는 것이기도 하다. 가을의 온도와 습도가 냄새와 함께 섞여 들어온다. 공기는 또한 상쾌하게 얼굴을 감싸며 서걱거리는 옷소매로 침투하며 닭살을 돋운다(B-W04).

지각 경험을 설명하기 앞서 인식의 차원을 짚어보자면, 이 경험(B-W04)에서 주체가 인식하는 것은 사실 가로수 자체가 아닌 '가을'이다. 공감각적 체험에서 주체는 돌아온 '계절'을 알아채고 '계절'의 특질을 음미한다. 그가 지각한 특질들, 활공하는 낙엽의 움직임과 촉각적 이미지, 피부에 느껴지는 찬 공기, 서늘하고 맑은 냄새는 주체에 따르면 가을의 특질이다. 사실 낙엽이 질 무렵 도시민은 일반적 의미의 가을이 이미 도래했음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이란 통상적으로 양력 9월부터 11월로 이어지는 기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도시에서 주체가 가로수의 변화를 통해 계절을 '실감'한다는 점이다.

화자는 낙엽이 떨어지는 가로수길을 걷는 주체는 다채로운 특질을 지각한다. 그가 실제 경험하는 감각들은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조작적 구분이 무색하게 공감각적으로 지각된다. 그의 경험 방식은 "환경 경험은 진정한 공감각, 감각들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벌리언트의 참여의 방식과 합치된다.[4] 주체는 '질척임과 끈적거림'과 거리가 먼 활공하는 낙엽의 특질과 '파도치는 돛단배처럼' 움직이는 광경의 역동적 특질 등을 감상한다. 낙엽을 밟는 행위는 발에 느껴지는 가로수의 촉감과 그것이 부서지는 소리라는 표면 특질을 생성한다. 그는 낙엽을 부서뜨리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것의 표면 특질을 촉각적으로 지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움직임에 따른 미적 쾌감을 느낀다. 또한 낙엽의 냄새는 서늘한 공기이자 맑은 향미에 섞여 숨 속 깊숙이 파고든다. 낙엽과 바람, 공기가 만들어내는 특질은 그의 말마따나 '뒤섞여 들어 온다'.

공감각적 참여의 경험에서 주체와 환경은 분리되지 않으며 주체는 일방적으로 대상을 관조하지 않는다. 화자가 지각하는 특질은 대상의 표피가 가진 특질을 넘어 신체에 다양한 감각을 통해 침투하며 화자는 그가 보는 광경에 공감각적으로 관여된다. 인간은 신체와 장소의 상호침투를 통해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5] 낙엽이 지는 거리를 걸으며 낙엽의 이미지, 낙엽의 촉감과 소리, 낙엽의 향미가 섞인 공기를 지각하는 도시민은 그가 감각하는 모든 것, 즉 환경과 동떨어질 수 없다. 이때 가로수는 흔히 주행 중 창밖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는 그림과 같은 분리된 대상이 아니다. 벌리언트가 지적했듯, 미적 경험은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구성된다".[6] 공감각적인 참여의 경험에서 도시의 인간은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 그리고 가로수와 통합적으로 존재한다.

---

4) Arnold Berleant (1992), pp.24-25.
5) Arnold Berleant (1992), pp.17-18.
6) Arnold Berleant (1991),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p.49.

주체가 환경과 공감각적으로 통합된 참여의 방식은 보행 경험에서 두드러지나 주행 경험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의 예화는 연구 참여자 A가 여름날 교외의 녹음이 우거진 가로수길을 차로 지나가는 경험을 묘사한 것이다. 이 경험은 차 안에서 신체적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감각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틀어도 차 유리창으로 파고드는 뙤약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울창하고 빽빽한 가로수길로 차가 들어선다. 일순간 직사광선이 차단되자 시원한 해열감이 느껴진다. 나무는 잎가지를 옆으로 넓게 펼쳐 햇빛을 막아준다. 하지만 녹음은 암막이 아니다. 나무들 사이 벌어진 틈새로 빛이 스며든다. 나뭇가지의 고운 체에 거른 햇빛은 변화무쌍하게 반짝이다 사그라든다. 따사로운 소곤거림은 잠깐의 양지에서만 들려온다. 차가 달리는 가운데 나무 사이로 음지와 양지가 반복된다. 내 위로 그늘이 지다가 잠깐 햇빛이 번뜩이다, 다시 그늘이 지다 햇빛이 비치다가 하는 것이 느껴진다. 영화를 보면 숲 지붕의 구멍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는 장면이 있다. 그 연출을, 그 느낌을 나는 차 안 시트에 가만히 앉아서 경험한다. 도시에 있지만 자연 속에 들어온 느낌. 머리 위는 나무가 가득 채우고 있고 나무들 틈틈이 햇살이 기분 좋게 얼굴을 매만진다(A-D02).

달리는 차 안에서 화자는 가로수의 대열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촉감을 느낀다. 그는 햇빛과 그늘이 있는 환경을 시각을 통해 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주로 가로수 또는 환경의 눈에 보이는 표면 특질보다 피부를 통해 느낀 햇빛과 그늘의 촉감을 묘사한다. 이 경험(A-D02)은 위에서 기술한 걷는 경험(B-W04)과 달리 소리나 냄새 등을 포함하는 다감각적 특질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촉각적으로 가로수에 관한 특질을 섬세하게 느끼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로수가 있는 환경과 주체가 있는 환경은 차량에 의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체의 온몸은 자동차의 바깥에 있는 가로수에 관여되어 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주체는 물리적 단절이 무색하게 가로수와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벌리언트가 말했듯 인간과 환경은 연속적이다.[7] 가로수가

구성하는 미적 장 속에 공감각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은 가로수와 연속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계절과 관련된 가로수 경험에서 주체는 무엇에 참여하는가? 들숨에 낙엽 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서늘함은 가로수의 특질인가? 공기의 특질인가?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는 가로수의 특질인가? 햇빛과 어른거리는 나무 그늘이 만들어내는 감촉은 나무의 특질인가? 햇빛의 특질인가? 낙엽과 잎의 생장을 비롯해 발아, 개화, 만개, 결실, 단풍, 낙과 등 식물의 생명 현상은 기후 및 날씨 현상에 연동해 발생한다. 우리가 지각하는 특질은 표면 특질뿐 아니라 날씨와 유기체 가로수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미기후(microclimate)다. 경험의 주체는 미기후에서 느껴지는 특질을 시각 이외 다양한 감각이 결합한 체지각을 통해 온몸으로 느낀다.

가로수의 계절적 특질을 발생시키는 미기후는 계절 변화에 연동되어 있다. 계절은 "해마다 변화하는 지구와 태양의 관계라는 커다란 우주적 리듬에 언제나 녹아있는 생명의 리듬 현상"이다.[8] 태양과 지구시스템, 유기체가 관계 맺으며 발생하는 거시적 기후 현상이 미시적 가로수 경험을 생성한다. 가로수의 계절적 특질은 기후 및 날씨와 이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유기체가 얽혀 발생하는 특질로서 이를 통해 도시민은 계절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지각한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공감각적 참여는 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에 대한 참여이다. 벌리언트는 "우리는 차라리 환경의 연속체이며 그 과정의 통합적 일부이다"라고 했다.[9] 계절에 대한 공감각적 경험에서 우리는 도시 환경의 연속체이며 계절이라는 현상의 통합된 일부이다. 도시민은 계절 변화에 따라 가로수에, 가로수가 관여하는 환경의 미기후에, 미기후에 작용하는 거시 기후에

---

7) Arnold Berleant (1992), pp.3-4.

8) Craig Holdrege (2021) "The Seasons Embodied: The Story of a Plant," *The Seasons: Philosophical, Literary,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L. Fischer & D. Macauley, ed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p.53-67.

9) Arnold Berleant (1992), pp.11-12.

참여한다. 즉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로수는 도시에서 계절에 대한 참여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체로서, 도시민은 일상에서 가로수를 통해 자연 현상에 참여한다.

우리는 이러한 참여 방식을 포함하는 계절적 가로수 경험을 해마다 주기적으로 경험한다. 특히 공감각적 참여 방식을 통해 주체는 계절 현상을 온몸으로 체현한다. 순환하는 계절에 대한 공감각적 참여의 기억은 경험된 지식으로 남는다. 감각적 기억은 도시민으로 하여금 철에 따른 가로수 경험을 회상하고 기대하며, 특정 시기에 가로수가 있는 환경을 환기하게 만든다. 또한 계절에 따른/대한 가로수 경험은 넓은 지역을 아우르며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특히 사계절에 따라 봄의 벚꽃, 여름날의 녹음, 가을의 낙엽, 겨울의 눈을 경험하는 특정 방식, 예를 들어 벚꽃 구경이나 단풍놀이는 문화적으로 각인된 경험적 지식, 즉 관습이 된다.

2. 수동적 관조에서 참여로 이행하는 풍경 감상

앞 절에서 살펴본 참여와 함께 도시 가로수 경험에서 지배적인 다른 지각 방식은 풍경으로서 가로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채집한 가로수가 있는 환경을 '풍경', '장면', '파노라마', '브이알(VR)'을 보는 경험에서는 시각 위주 감상 방식, 즉 관조의 방식이 지배적이며, 이는 신체의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환경을 느끼는 참여와 대비된다. 특히 차량에 탑승한 경우 주체와 가로수의 거리가 멀고 물리적 단절이 심화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시각적으로 보는 관조의 방식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가로수가 있는 풍경을 보는 경험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풍경으로서 가로수 감상은 가로수가 주체와 분리되어 감상되는 관조의 양상을 포함하지만 주체는 경험의 전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 절에서는 도시민이 바라보는 풍경 속 가로수를 환기하고 풍경 감상이라는 시각 위주의 가로수 경험에서 주체가 가로수에 관여하는 여러 양상을 살펴 살피고자 한다.

다음 예화는 연구 참여자 C가 도시고속도로에서 이팝나무가 있는 풍경을 감상한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경험은 가로수를 풍경으로 감상하는 하나의 경험 속에서도 수동적 관조와 보다 주의를 기울여 풍경에 관여하는 능동적 관조가 연속적으로 존재함을 예증한다.

> 해가 번뜩이기 시작한 초여름, 몇 번이고 지나치면 도시고속도로에 색다른 장면이 펼쳐진다. 차 앞 유리로 펼쳐진 것은 흰색이다. 흰색의 면. 흰 꽃이 가로수를 뒤덮어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직선을 표시해준다. 멀리서 그 모습을 목격하고 나는 벙찐 표정으로 외마디 탄성을 내지른다. 눈처럼 선명한 흰색이 흐드러진 장면은 자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이렇게나 많은 양의 흰색이라니. 잎의 녹색, 흙이나 나무의 갈색, 혹은 도시 화단에 심어진 진달래의 자주색도 개나리의 노란색도 아닌, 흰색의 향연이다. 그것은 작은 잡초에 점점이 핀 흰 꽃의 겸손함과도, 뜬구름의 가벼움과도 다른 순전한 화려함과 보들보들한 가벼움이다. 나무 높이의 흰 원단을 길 양쪽으로 길게 풀어놓은

듯하다. 감명은 금세 호기심으로 변한다. 몽실거리는 흰 면의 한 부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옆 창으로 유심히 바라본다. 멀리서 본 장면이 연한 물감으로 채색한 수채화라면 가까이에서 곁눈질로 본 광경은 유화로서 농밀한 붓 터치의 결이 살아나는 듯하다. 막연히 보드라운 느낌의 거대한 면이던 것은 나무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에 꽃이 소복이 쌓인 형상으로 살아난다. 몽실몽실한 꽃의 덩어리는 강판에 곱게 갈린 치즈처럼 가늘고 긴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잎의 초록빛은 그 꽃잎에 잠식당해 간간이 그 빛을 드러낼 따름이다(C-D03).

이 경험(C-D03)의 주체는 계속해서 가로수를 본다. 먼저 그는 '흰색이 흐드러지는 장면'을 보고 감탄하는데 그는 이것을 '흰색의 면'이자 '일직선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팝나무가 만개한 광경을 멀리서 마주했을 때 가로수는 선과 면이라는 기하학적 형식에 따라 인식되는 것이다. 도로 환경 자체는 일직선상의 선과 면이라는 극도로 추상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본래 자연환경은 비선형의 울퉁불퉁한 형상을 가지지만 도로는 그를 기하학적으로 관통하는 매끈한 표면으로 건설된다. 가로수는 그러한 도로를 따라 열식되어 차량의 진행을 시각적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어포던스(affordance)는 지각 주체가 가로수에 대해 인지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만든다. 팀 잉골드(Tim Ingold)가 도로가 "삶이 살아지는 길이기보다 삶을 둘러싼 경계로 만든다"라고 적절히 지적했듯, 가로수가 있는 물리적 조건은 그것을 선이자 평면으로 환원한다.[10]

가로수의 기하학적 배치와 친숙함은 그것을 우리의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어낸다. 위의 경험뿐 아니라 출퇴근길이나 등하굣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등 일상적 가로수 경험에서 도시민은 미적 쾌감을 추구하려는 의도나 가로수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단지 길을 갈 뿐이다.

화자는 이팝나무가 꽃을 피우자 여러 번 주행한 환경을 처음 인지한다. 가

10) Tim Ingold (2009), "Against Space: Place, Movement, Knowledge,"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 pp.29-43.

로수의 수관부가 새로운 색, 특히 주변 녹지와 대비를 이루는 새하얀 색으로 물들자 가로수가 만드는 '면'을 인지한다. 그는 '흰색의 면'이라 표현한 이팝나무꽃의 외적 특질, 즉 표면적 특질을 지각한다. 멀리서 지각한 이팝나무 풍경의 특질은 흰색의 선명함, 화려함 등 대체로 색과 관련된 특질이다. 원거리에서 주체는 많은 양의 흰색 꽃이 만드는 풍경에 압도되었으며, 자연 내지는 유기체에서 그러한 '화려한' 흰색이 생소하고 특별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러한 경험에서 주체는 지각 대상인 가로수와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주체는 가로수가 있는 환경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냄새를 맡는 등 공감각적인 체험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각 지배적 경험에서도 다른 감각을 통해 지각할 법할 특질에 대한 시지각은 가능하다. '보들거리고 가벼운' 느낌은 실제 만질 수 없지만 멀리서도 느껴지는 촉각적 특질이다. 가로수들은 눈앞에 풍경화와 같이 평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고유의 질감과 양감이 완전히 평면되하지는 않는다.

위 경험의 초반에 나타나는 원경의 가로수 감상 방식은 벚꽃길이나 단풍이 물든 길을 한눈에 바라보는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시민은 이렇듯 선형으로 도열한 가로수가 집합적으로 만드는 풍경을 관조하며 미적 쾌감을 느낀다. 이러한 관조의 경험에서 주체는 지각 대상인 가로수와 거리를 가진 채 분리되어 가로수에 시각 외 감각으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걷는 경우에도 멀리 떨어진 가로수를 풍경으로 관조하기도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 인간에 의해 통제되는 내부 환경과 가로수가 있는 외부 환경은 단절되어 수동적 관조의 양상이 두드러진다.[11] 수동적 관조의 방식은 환경에 공감각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주체와 환경을 분리한다.[12]

그러나 주체가 이동함에 따라 물리적 거리는 점차 줄어든다. 위 예화의 화

---

11) Malcom Andrews (2007), "The View From the Road and the Picturesque," *The Aesthetics of Human Environments* (A. Berleant, & A. Carlson, eds), Peterborough, Ont: Broadview Press. pp.276-78.

12) Arnorld Berlenat (1994), "Beyond Disinterestednes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4(3), pp.242-54.

자는 원경이 수채화라면 가까이서 본 풍경은 보다 입체적인 유화에 비유한다. 그는 여전히 가로수의 표면 특질을 감상하지만 그것은 종전의 것보다 훨씬 세부적이다. 가로수를 바로 옆에서 감상하며 주체는 집합적으로 지각하던 나무의 개체 하나하나, 나무의 작은 일부까지 보게 된다. 이처럼 원경의 가로수를 바로 옆에서 감상하는 경험에서 가로수는 더 이상 선이나 면과 같이 평면화·추상화되지 않는다. '보드라운 흰색의 면'은 '강판에 곱게 갈린 치즈처럼 가늘고 긴 꽃잎'의 '몽실몽실한 덩어리'로 구체화한다. 주체가 관조하는 평면은 형상이 된다.

초여름 이팝나무가 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그리고 주체가 그것을 인지한 이래로 이팝나무를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로수의 심층적 특질을 인지할 수 있었다. 주체와 대상 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때 관조는 능동적인 시각적 참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가로수는 계절이라는 거시적 기후 변화를 비롯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생장하고 개화하는 등 생명 현상을 지속한다. 그에 따른 특질 변화는 도시민에게 가로수를 환기하지만 인간이 주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는 무심하게 풍경을 지나칠 따름이다. 도시의 주체가 주의력을 발휘해 풍경을 관조할 때 그는 가로수의 구체적 특질을 능동적으로 지각한다. 이는 칸트적 의미에서 미적 관조, 즉 "어떤 목표가 없이 그것[미적 쾌]이 속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인지적인 힘을 유지"하는 것과 상통한다.[13]

이러한 능동적 관조는 시지각을 중심으로 색다른 지각, 사유, 상상력이 발휘될 가능성을 가지며, 공감각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참여의 방식으로 나타난다.[14] 아래의 예화는 연구 참여자 A가 여름 등하굣길의 버스에서 본 풍경을 보고 듣고 생각한 바를 기술한 것으로, 물리적 거리와 단절이라는 제약

---

13) Immanuel Kant, *Krik Der Urteilskraft*(Hamburg, Felix Meiner Verlag, 1968), §12, Ak.222, pp.60-61.

14) Emily Brady (2003), *Aesthetics of the Natural Environmen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132-36

속에서도 가로수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주체가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여기는 아주 쾌적하고 시원하다. 여름날의 등굣길, 나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버스 안에서 한숨 돌린다. 반면 바깥 풍경은 아우성치는 듯하다. 나무들은 파랗게 완전히 물이 올라 길을 가득 메운다. 햇빛은 쨍쨍하고 매미는 광광 울어댄다. 와중에 무더위를 뚫고 선글라스와 간편한 운동복 차림을 하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사람들도 에너제틱한 풍경에 한몫을 더한다. 이 환경은 기운이 넘친다. 생명력이랄까. 지구의 생명력, 땅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그 풍경에는 모든 것이 살아서 활기차게 움직인다. 버스 안에서 나는 나무, 매미, 조거들처럼 역동적인 무언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고픈 자극을 받는다. 힘을 북돋아 주는 풍경이다(A-D01).

이 경험(A-D01)에서 감상자는 생명력이 넘치다 못해 '아우성치는 듯'한 여름날 가로수길 풍경을 감상한다. 차량 내외부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풍경'이 뿜어내는 소리, 나무와 사람들의 왕성한 형상은 주체를 관조하는 환경과 떨어질 수 없게 만든다. 이는 앞 절에서 소개한 경험(B-W04, A-D02)과 같이 온몸의 감각이 긴밀히 환경에 관여하는 완전한 공감각과는 다르다. 버스 안 주체는 가로수가 있는 환경을 시각 이외 체지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각하지 못하며 주체는 시각과 청각이 지배적인 경험을 한다. 그러나 주체는 풍경에 완전히 공감각적으로 관여할 수 없을지언정 그가 보고 듣는 풍경에 정서적으로 강하게 감응한다. 위 이팝나무에 대한 경험(C-D03)에서 감상자가 가로수에 대해 감탄하고 호기심을 느꼈다면, 이 경험에서 감상자는 풍경에 보다 몰입하여 생명이 가진 힘을 체감하고 자신도 무언가를 행하고픈 동력을 얻는다. 그는 능동적 관조를 통해 가로수가 있는 환경에 감각적, 정서적으로 참여한다.

시각 지배적 풍경 감상의 사례 중에서 체지각이 모두 관여하는 공감각적 양상도 존재한다. 아래 예화는 연구 참여자 D가 교외 산지의 벚꽃 명소를 드

라이브한 경험에 대한 기술이다.

> 내가 사는 도시에는 벚꽃 명소로 알려진 산이 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를 달리면 수백 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진 산자락을 두르는 도로로 이어진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4월 하순에 그 길을 '드라이브스루'하는 상춘객들이 몰려든다. 심드렁하게 친구의 벚꽃놀이 제안에 응하긴 했지만 나도 그 상춘객 중에 한명이었고 조수석에 탄 채 벚꽃이 우거진 길을 따라갔다. 다른 명소에서와 똑같이 공간에 가득 흐드러지는 벚꽃이지만 그곳의 벚나무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산을 오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곡선과 경사, 그것이 만드는 입체적인 시선 때문이다. 벚나무길은 오르막길이고 당연히 편평한 등고선보다는 꼬불거리는 달팽이 껍데기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리라. 돌고 돌아 올라가는 길은 온통 벚나무이고 우리는 그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앞 유리창으로 하얀 벚꽃과 그 하양보다도 더 하얀 햇빛이 쉴새 없이 반짝이며 지나간다. 나무에서 꽃이 무성한 데가 아래로 미끄러지듯 눈높이로 다가온다. 그 넉넉한 꽃무리들은 가까이 왔다가 지나가고, 다시 가까이, 다시 지나가고를 반복한다. 마치 벚꽃의 공간을 브이알로 체험하는 듯 생동감 있고 환상적인 이미지였다. 가끔 크게 자란 나무의 가지들이 문을 열어달라는 듯 창문을 톡톡 치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웠다. 창을 내린다. 공기, 꽃냄새, 자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동시에 다가온다. 자극의 폭발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감각의 폭발보다도 인상에 깊게 남는 것은 마음의 자극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자극은 마음에 가닿았다. 곧고 편평한 보통의 길에서의, 단지 '예쁘네'하고 지나갈 피상적 경험과는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D-D03).

이 경험(D-D03)에서 주체는 달리는 차 안에서 '브이알'과 같은 역동적인 이미지로 벚꽃이 있는 풍경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동시에 빛, 소리, 공기, 냄새를 공감각적으로 지각한다. 이때 벚나무는 앞서 기술한 경험에서의 이팝나무와 달리 '꼬불거리는 오르막길'에 심겨 있다. 이 도로는 선이나 면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자연 지형을 극복한 '곧고 편평한 보통의 길'과 달리 곡선과 경사가 두드러지는 형상을 하고 있다. 대지를 기하학적으로 길들이지 않은 물리적 조건에서 화자는 가로수를 선이나 평면으로 환원하고 무심히 관조하지 않으며 감각적, 정서적으로 몰입한다.

시각 중심적 풍경 감상의 경험에서 가로수와 주체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가로수를 보는 환경의 물리적, 인지적 조건은 가로수를 동떨어진 대상으로 환원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가로수는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추상화되고 평면화되며 주체는 풍경화 속 요소와 같이 가로수를 관조한다. 그러나 가로수의 독특하고 변화하는 세부 특질, 개인의 주의력 등에 따라 가로수는 구체적 실체, 물(things; 物)로 구체화한다. 대상(object)이 인간의 욕망과 필요가 투영된 수동적 대상이라면 물(thing)은 그의 대립 항으로서 자율성을 가지는 존재다.[15] 위 경험에서 감상된 벚꽃(D-D03)이나 이팝나무꽃(C-D03), 무성한 가로수의 녹음(A-D01)은 모두 유기체 가로수가 기후 및 날씨에 긴밀하게 반응해 도시민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이다. 능동적 관조는 구체적 실체, 나아가 자율적인 힘을 갖고 살아 있는 존재로서 가로수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존재하는 환경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로수와 인간의 역량이 발휘될 때 실체 가로수는 도시민의 경험 속에서 풍경 요소로 완전히 납작해질 수 없다. 도시민의 풍경 감상은 수동적 관조와 능동적 관조 사이를 오간다. 똑같이 풍경 속 가로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감각·인식·정서 차원에서 주체가 가로수에 관여하는 방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가로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인간이 어떤 특질을 유심히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로수의 다양한 물적 특질이 발견되고 감상된다. 무심한 관조에서 출발한 풍경 감상은 때때로 감각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실체로 가로수와 관계를 맺는 능동적 관조, 다시 말해 참여로 이어진다. 풍경으로 가로수를 바라보는 도시의 이동 속에서 인간과 가로수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

15) Bill Brown (2001), “Thing Theory,” *Critical Inquiry* 28(1), pp.1-22.

3. 지식에 따라 안내되는 가로수 경험

앞의 두 절에서는 감각적 관여가 촉발하는 미적 경험, 즉 지각 중심 경험을 살펴보았다. 한편 기존에 갖고 있던 인식, 즉 과학 지식을 비롯한 선입관이 가로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양상도 다수 나타났다. 알렌 칼슨은 이처럼 미적 경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식을 자연과학 지식과 상식(common sense)로 구분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과학 지식과 상식으로 따른 경향성이 나타난다. 가로수 또는 식물에 대한 과학 지식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로수에 집중해 뚜렷한 판단을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지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지식에 따라 가로수를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양상도 확인된다.

환경에 대한 경험에서 주체가 감상 대상에 대한 지식이 가진 경우 그는 지식에 비추어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sizing up)'을 내린다.[16] 그러나 이 연구가 앞 장에서 채록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지식이 작용하는 모든 가로수 경험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로수에 대한 미적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로 나누어 가로수 경험을 환기하고 심층 탐구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먼저 가로수에 대한 긍정적 미적 경험을 탐구하고 다음 절에서 부정적 가로수 경험을 자세히 해석한다.

먼저 식물에 관한 과학 지식이 주체를 확장된 지각과 인식, 긍정적 평가로 안내하는 가로수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화는 가로수로 심어진 칠엽수(*Aesculus turbinata*)에 대한 식물학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 본인의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 칠엽수의 눈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칠엽수의 겨울눈을 보고 그 속 비밀을 알게 된 이래로 잎도 없는 칠엽수 가로수길에서 혼자 감탄한다. 웬만한

---

16) Allen Carlson (1995), "Nature, Aesthetic Appreciation, and Knowledg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4), pp.393-400.

도시의 나무들의 눈보다 큰 칠엽수의 눈은 오동통하다. 하지만 복슬복슬한 목련의 겨울눈처럼 마냥 귀엽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갑옷 비늘 같은 덮개들로 겹겹이 싸인 데다 투명한 진액으로 코팅된 칠엽수의 눈은 짙붉은 색이다. 눈의 형태는 안의 무언가를 보호하겠다는 단단한 의지를 표현한다. 겨울눈 안에는 심지어 그 무언가를 수북이 감싼 솜털까지 존재한다. 겨울눈의 보호 대상은 나무의 이름이 알려주듯, 일곱 개의 쪽잎이다. 겨울눈은 앞으로 돋아날 아기 쪽잎들을 이리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눈을 볼 때마다 그곳에 6~8장이나 되는 쪽잎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일단 돋아나면 그 쪽잎들은 봄과 여름 새 A4용지 길이를 족히 넘길 만큼 크게 자라나고 일곱여 장이 모여 커다란 부채꼴을 만든다. 더위가 무르익을 무렵 칠엽수 잎의 장대함을 익히 알기 때문에 조그만 겨울눈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진다. 성장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봄에 칠엽수를 마주칠 때면 잠시 멈춰 잎을 피워낼 겨울눈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연구자 본인의 경험 기술).

화자는 칠엽수라는 특정 종에 대한 지식, 특히 겨울눈의 형태학적 특징과 기능, 나무 이름의 의미 등을 알고 있다. 그는 가로수 길도 하나의 가로수 전체도 아닌 겨울눈이라는 일부분에 주목한다. 그가 실제로 인지하는 특질은 겨울눈의 아주 세부적인 표면 특질로서, 덮개가 구성하는 눈의 구조, 진액의 점성과 광택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경험은 보이지 않는 특질에 대한 감상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겨울눈 안 솜털은 해부하지 않는 한 길을 걸으며 지각할 수 없다. 그는 식물형태학 지식을 가지는 동시에 과거 겨울눈 내부 구조를 관찰한 경험이 있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당장 보이지 않는 특질을 상상한다.

여름철 커다란 잎도 겨울눈을 감상하는 시점에는 지각하기 불가능한 대상이다. 겨울눈에서 잎이 돋아나 자라야만 지각 가능한 특질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가로수길에서 칠엽수의 잎을 본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경험된 지식으로서 보이지 않는 특질을 연상하게 만든다. 과학 지식과 경험된 지식이 함께 작용하여 여러 장치를 동원해 보호되는 어린 쪽잎들이 장대한 부채꼴의 잎으로 변모하는 과정과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듯 과학지식과 경험된 지식이 작용하는 경험에서 감각한 내용을 다시 발생시키는 상상력이 발휘된다.[17] 감각적 상상력은 곧 재생산적 상상력으로서 과거의 지각을 되살려낸다. 화자가 해부를 통해 자세히 보았던 칠엽수 눈의 내부와 매 여름에 보았던 칠엽수의 잎을 연상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재생산적 상상력에 해당한다.

과학 지식이 연료가 되어 발휘되는 또 다른 상상력은 생산적 상상력으로 인간의 지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창조적 상상력이다.[18] 겨울눈이 잎으로 자라는 생명 현상의 과정이나 그것이 응축한 성장의 에너지에 대한 감상은 이러한 창조적 상상을 통한 것이다. 가로수에 대한 과학자들의 산문은 과학 지식이 열어주는 가로수와 환경의 창조적 차원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해스컬(David Haskell)은 뉴욕의 한 콩배나무 가로수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지하철의] 이 움직임은 나무의 일부가 된다. 도시는 콩배나무 안에 있다. 콩배나무는 진동을 받아 흔들리면 뿌리를 더 뻗어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데 훨씬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 따라서 도시의 나무는 시골의 사촌보다 더 단단하게 땅을 움켜쥔다. 나무줄기는 움직임에 반응하여 둘레가 굵어진다. 내부에서는 목질부를 이루는 세포들이 더 촘촘하게 자라 벽을 강화한다… 식물의 삶, 땅의 진동, 바람의 하품이 나누는 대화가 몸을 얻으면 나무가 된다.[19]

해스컬은 지하철이 끊임없이 땅의 울림을 만드는 대도시에서의 가로수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하지만 그가 기술한 식물의 움직임은 실제 지각한 것이 아니다. '뿌리의 움켜쥠', '지하철 진동에 대한 식물의 반응', '촘촘히 강화되는 세포' 중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지각 척도에서 보거나 느낄 수 없다. 이는

---

17) Emily Brady (1998), "Imagination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pp.139-147.
18) John Dewey ([1934]1980),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pp.272-74.
19) 해스컬 (노승영 역, 2018)『나무의 노래』, 서울: 에이도스, p.226-27. (D. Haskell [2018], *The Songs of Trees: Stories from Nature's Great Connectors*, London: Penguin.)

생태학 및 생물학 지식을 통해 확장된 지각이다. 가로수는 대개 정적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해스컬은 과학 지식이 자극하는 상상을 통해 가로수의 섬세한 움직임을 발견하고, 식물의 삶과 땅, 바람의 상호작용이 물화된 생태적 존재로 가로수를 이해한다.

해스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과학 지식은 지각되지 않는 범위(땅밑)과 척도(세포)의 식물의 특질에 대한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과학 지식에 기반한 상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서 가로수에 대한 선입견에 균열을 만들며 잎을 보호하고 온전히 피워내려는 의지 또는 뿌리를 움켜쥐려는 나무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를 땅의 진동과 대기의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행위주체(agent)로 소개한다. 미학자 로널드 헵번에 따르면 "상상력은 우리 앞의 자연 대상에 대해 유연하게 주의력을 이동하게 만들며… 판에 박힌 방식으로 대상을 고착시키고 낡은 방식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게 해준다".[20]

이렇듯 가로수 지각이 과학 지식으로 확장될 때 주체는 가로수의 존재를 새삼 인식하며 정서적으로 크게 감응한다. 이 절의 첫 부분에 인용한 사례에서 화자는 나무에 대한 경이감에 감탄하는 한편 그를 '응원'하며 정서적 친밀감을 드러낸다. 해스컬 역시 위 산문에서 가로수를 생태적 시각에서 섬세하게 관찰하며 경이로움, 나아가 숭고함을 느낀다. 그들의 경험은 "과학 지식은 꽃에 대한 흥미와 신비로움과 경이감을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물리학자 파인만(Richard Feynman)의 지적과 상통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과학 지식은 가로수에 대한 지각적, 정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데 작용한다.

환경미학의 긍정 미학에 따르면 적절한 미적 감상이란 환경을 피상적으로 감상하는 데서 벗어나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21] 위에서 기술한 연구자

---

20) Ronald Hepburn (1984), "Contemporary Aesthetics and the Neglect of Natural Beauty," *Wonder and Other Essays: Eight Studies in Aesthetics and Neighbouring Field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108-30.

본인과 해스컬의 경험에서 가로수에 대한 과학 지식은 그것의 속성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지각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특질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예시는 환경 자체의 적절한 서사(narrative)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각적 감수성을 넘어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모델의 긍정 미학의 이론을 뒷받침한다.[22] 즉 가로수에 대한 과학 지식에 따라 도시의 인간은 비인간-생물인 가로수 자체의 서사를 상상력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지식이 개입되어 가로수에 대한 이해나 감수성이 특정 방식으로 고착되는 경험도 있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 D의 경험을 기술한 것인데, 이때 지식은 자연과학 지식이라기보다 사회 일반에 공유되는 실용적 상식이다.

> 특별히 힘든 하루가 있다. 무언가에 짓눌리는 하루가 그렇다. 때로는 몰려오는 일을 처리하느라 허덕거린다. 때로는 머릿속 복잡한 생각에 진이 빠진다. 일이나 생각에 짓눌릴 때는 도망갈 구석이 없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든지, 눈에 뭐가 봬 건 무슨 냄새가 나건 생각에 갇혀 있을 뿐이다. 짓눌림에 옴짝달싹 못하는 때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바로 멍때리기다. 푸른 자연을 보면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들었으므로 무조건 나무를 본다.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와 탕비실에서 길 건너 가로수를 멍하니 바라본다. 나무의 머리통이랄까. 둥그런 푸른 덩어리를 시야에 중앙에 두고 초점을 흐린다. 멍…. 어디론가 향할 때나 길에 있으면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 쉬운 가로수를 선택한다. 고개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며 먼발치에 있는, 하지만 너무 멀지 않은 최적의 나무를 찾는다. 그리고 나면 또 멍…. 멍때리기는 일종의 명상이라고 생각한다. '아, 저런 나무구나' 혹은 '내가 나뭇잎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비움의 순간. 단지 내 호흡만이 느껴진다. 내가 숨을 쉬는지 마는지 의식도 못 하고 내달린 하루에 숨 쉴 틈을 주는 것이다. 컴퓨터와 노트북을 보느라 긴장하던 눈의 힘이 풀리고 생각이 비워지니 잡생각에 옥죄던 머리의 통증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내 응급처치는 효과가 있다.

---

21) Allen Carlson (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pp.131-72; Yuriko Saito (1998), "Appreciating Nature on Its Own Terms," *Environmental Ethics*, 20(2), pp.135-149.

22) Allen Carlson (1995), pp.393-400.

힘든 하루, 나는 또 가로수를 찾는다(D-W03).

가로수 경험 방식 중 특히 이 연구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방식은 나무를 보고 '멍 때리는' 것이다. 일상에서 누적된 신체와 정신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식물', '나무', '자연', '숲'을 멍하게 바라보는 것은 일부 연구 참여자에 한정되는 방식이 아니다. '녹음을 보면 (눈의) 피로가 풀린다'라는 과학 기반 상식과 이러한 휴식의 문화는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된다. '푸른 자연'을 보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경험을 통해 이는 감각적 기억, 즉 경험된 지식으로 자리한다. 위 예화(D-W03)의 주체에게 도시에서의 휴식과 이완은 가로수를 멍하니 응시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멍한 응시의 방식은 정서와 앞서 제시된 과학 지식에 따른 미적 경험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실용적 고려에 따라 가로수를 멍하니 응시할 때 주체는 냄새나 잎의 모양 등의 자세한 표면 특질을 지각하기보다 초점을 흐리고 가로수를 바라본다. 가로수는 휴식 목적의 지각에서 구체적 특질을 잃고 추상화된다. 이러한 경험에서 주체가 가진 '푸른 자연'의 관념은 자율적 실체로서 가로수와는 거리가 멀다. 휴식을 위한 멍한 응시의 기저에 자리하는 자연에 대한 인식은 눈앞 가로수의 '푸르른' 특징에 몰두하게 한다. 지식은 주체가 가로수 자체의 속성, 긍정 미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가로수 '자체의 적절한 서사'를 발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작용한다. 가로수는 인간에게 이완을 제공하는 '자연', '식물' 혹은 '푸른 것'에 대한 관념에 들어맞는 추상적 대상으로 환원된다.

이처럼 가로수를 인지하는 우리의 방식은 일상미학자 오시 나카리넨(Ossi Naukkarinen)이 설명한 일상적 태도, 즉 "일과(routine), 익숙함, 연속성, 정상 상태, 습관, 순응의 느린 과정, 심지어 피상성(superficiality)과 반쯤의 의식 상태로 채색되어 있는 것"과 일치한다.[23] 주체는 가로수를 표면 특질을

[23] Ossi Naukkarinen (2013), "What is 'Everyday' in Everyday Aesthetics?," *Contemporary Aesthetics* 11(1), p.14.

피상적으로 보는 대신 자신의 신체 자체를 감지하고 내면에 침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 방식은 가로수 자체의 서사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직접 경험한 기억 그리고 상식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의례적으로 반복된다. 도시 어디에나 편재하는 가로수는 휴식이 필요한 도시민의 일상에 꿰어진다.

지식은 가로수에 대한 미적 지평을 열어주기도, 정해진 방식으로 고착시키기도 한다.[24] 특히 이 연구의 사례는 식물학 및 생태학 지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가로수의 세부 특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의 깊은 관찰은 앞 절에서 보았듯 가로수를 평면적 대상에서 물(things)로 구체화한다. 또한 도시민은 과학 지식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가로수의 특질과 특성을 상상해 인지한다. 지식이 인도하는 상상을 통해 주체는 가로수를 고정된 대상이 아닌 자율적 존재로 본다. 지식이 안내하는 가로수 경험을 통한 존재론적 환기를 경험할 때 주체는 그에 대한 경이로움, 숭고, 애착 등 풍부한 정서를 느낀다. 반면 어떤 지식, 특히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실용적 지식은 이와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심신 이완을 위한 수단으로써 가로수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는 멍한 응시의 경우 가로수의 구체적 특질과 자율적 특성은 인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경험은 주의력이나 상상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도시의 주체는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 역동적 존재로서 가로수와 감각적, 정서적으로 긴밀히 관계맺을 수도, 필요에 따라 표피적 대상으로 가로수를 마주하고 안식을 얻을 수도 있다.

---

24) Patricia Matthews (2002),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0(1), pp.37-48.

4. 부정적 경험과 미적 판단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주체가 가로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그는 지식을 토대로 가로수를 이해하고 미적 평가를 내린다. 때로 그 평가는 부정적이다. 일부 연구 참여자는 일상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창밖 가로수의 어떤 특질을 보고 비판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한 양상은 식물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D와 E에게서 나타났으며 모두 '생명'에 대한 관념과 연관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밟는 체험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동반한 가로수 경험을 그 기저에 작동하는 다양한 인식에 따라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 예화는 연구 참여자 E가 버스를 타고 하교하는 길에 집 주변 대로의 가로수를 본 경험에 대한 기술이다.

> 시험을 보고 지쳐 버스를 실려 집에 돌아오는 길, 맨날 지나다니는 집 근처 대로의 플라타너스들이 깍둑썰기 되어 있었다. 버스 옆창을 향해 서 있는 내게 길 따라 네모진 나무들이 슝 지나갔다. 깍둑썰기된 나무들이 레고블록 같았고 주변 빌딩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무는 빌딩에 꼭 맞는 부속품처럼 규격화된 채 박혀 있었다. 당시 정면으로 본 그 풍경은 이상하게 내 기억 속에서 항공사진으로 떠오른다. 그때 레고블록을 어떻게 조립하면 이런 제품이 나올지 상상해 본 것일까? 아무튼 그 풍경을 떠올리면 갑갑함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모든 경계가 너무 선명한 직육면체들. 빌딩도 네모, 나무도 네모로 온통 각진 세상. 나무는 원래 네모가 아니다. 나무는 무겁지도 않다. 나무는 생명체다. 나무는 자연스럽게 각진 도시를 블러 처리해주며 주변 환경과 섞인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도시의 오브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아직도 가지치기 철마다 직육면체 플라타너스가 돌아온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레고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그렇듯 빌딩, 나무, 도로는 잘 맞물린다, 자기들끼리는. 하지만 보는 내 마음은 조금 답답하다(E-D04).

이 경험에서 주체는 나무에 대한 선입관에 비추어 사각으로 전정된 가로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가로수는 화자의 입장에서 '생명체로서 나무'의 특

질을 갖지 않는다. 그의 관념 속 이상적 나무는 무거운 양감을 갖지 않고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섞인다. 반면 그가 현실에서 지각한 가로수는 레고, 부속품, 오브제에 비견되며 생명이 없는 무생물로 취급된다. 그에게 문제시되는 점은, 가로수가 주변 도시 환경을 '블러 처리'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와 유사한 '사각형' 내지 '직육면체'로 나타나 답답함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경험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인식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그가 나무에 대해 가진 경험적 지식이다. 이때 그의 선입관이 나무의 외관, 즉 시각적 '이미지'라는 점이 중요하다. 가로수를 시각적으로 관조하는 화자는 그가 보는 표면 특질이 그가 가진 나무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다. 이때의 선입관은 앞 절에서 다룬 경험들과 달리 보이지 않는 가로수의 특질이나 생태적 속성을 창조적으로 상상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대신 주체는 재생산적 상상을 통해 기존 인식과 대조되는 특질을 집중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한다. 경험의 주체는 지각과 이해를 확장하는 생산적 상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부정적' 특징을 예민하게 지각하고 인식한다.

또한 이 부정적 경험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긍정적 경험에서는 언급되지 않던 제3의 존재로서 지자체가 등장한다. 화자는 전정된 가로수의 부정적 특징이 관리 및 조성의 행위 주체로서 지자체가 개입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는 매년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지속적 관리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가로수에 대한 미적 판단이 가로수와 관련된 인간 행위 주체에 대한 판단을 동반하는 것이다.

> 외곽도로를 달리다 쨍한 진홍색으로 피어난 배롱나무들을 목격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목격한 것은 좁은 도로 양옆 가드레일 뒤로 빼곡히 심어진 2m도 채 되지 않을 듯한 작은 나무들이다. 아직 위로 쑥쑥 자라야 할 묘목들이 서로의 틈바구니로 가녀린 가지를 옹색하게 뻗고 있다. 가로수가 심어진 곳은 한쪽은 경사진 사면, 한쪽은 가드레일 너머 아스팔트 도로인데 뿌리 내릴 흙이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이 마당에 나무 간격 사이는 너무 좁아 그 한 줌 흙

을 움켜잡기 위해 뿌리들이 뒤엉킬 것이 분명하다. 이 와중에도 악을 쓰듯 어린 나무들은 예쁜 꽃을 피워냈지만 힘없이 축 늘어지고 잎이 누렇게 뜬 나무들도 있다. 내가 예전 보았던 배롱나무는 눈앞 가로수들과 달리 너른 공간에 심어졌기 때문에 주저 없이 둥그렇게 가지를 뻗은 모양새였다. 그 나무는 이들처럼 좁은 틈새에서 뒤틀리듯 자랄 필요가 없다. 병해충이라도 한번 돈다면 도미노처럼 연이어 앓아누울 것이 분명했다. 나무가 살아가는 생육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냥 한철 꽃을 피워낼 용도로 지자체가 심은 가로수는 한마디로 액세서리다. 어린 나무들은 한여름의 도로를 장식하지만 그러한 삶이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까? 이중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정도 밖에 안되는 환경에 심었으면 관리라도 잘해야 자연스럽게 자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동안에도 '짜잔!'하고 줄줄이 이어지는 가로수들이 안타깝다. 나무 낭비, 돈 낭비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D-D01).

위 예화(D-D01)는 연구 참여자 D가 보도가 없는 교외 도로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며 인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 경험의 주체 역시 바로 이전에 소개한 경험과 같이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라는 환경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그의 선입관은 생태학 지식에 토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로수가 뿌리를 뻗기 어려운 좁은 공간, 병충해에 취약한 조밀한 간격 등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의 부적절한 특징에 주목한다. 그러한 환경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가로수가 '쑥쑥 자라야 할 묘목', 즉 살아 생장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경험에서 '생명체'란 표면적 이미지, 이를테면 각진 형태나 무거운 양감을 갖지 않으며 주변 환경과 잘 섞이는 외관을 지시했다. 반면 이 경험에서 나무는 '옹색하게나마 가지를 뻗고', '악을 쓰듯 꽃을 피우고', '힘없이 늘어지거나 앓아누울' 수도, '주저 없이 가지를 뻗을' 수도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 즉 화자는 자율적 힘을 가진 생명으로 가로수를 인지한다.

이 경험에서도 재생산적 상상을 통한 비교 의식이 나타난다. 주체는 과거 경험에서 본 배롱나무와 비견해 눈앞 환경과 가로수의 대조적 특질에 주목한다. 그가 떠올리는 나무에 대한 선입관은 바람직한 환경에서 자란 배롱나무

인데 그는 외관을 설명하며 '주저 없이 둥그렇게 가지를 뻗은' 점을 강조한다. 이 경험에서 상기되는 나무에 대한 이미지는 정적이고 표피적이기보다 동적이며 나무의 행위성을 함축한다. 경험의 주체는 자율적 힘을 발휘하는 나무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미적 판단을 내린다. 반면 외곽도로에서 본 나무는 '틈새에서 뒤틀리게', 즉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게 자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주체는 부정적이다.

이 경험에서 주체는 가로수에 인식과 연민을 느낀다. 그에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미적 평가를 받는 '예쁜 꽃'은 화자에게는 '악을 쓰듯' 안간힘을 쓰며 피워낸 결과물로서 안타까움을 유발한다. 그는 전정된 가로수 사례(D-D01)에서 경험의 주체가 가로수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가로수에 대해 염려한다. 앞의 경험의 화자가 가로수를 외형과 용도의 측면에서 레고블록, 오브제 등 사물에 비유했다면, 이 경험에서 화자는 '액세서리'라는 표현을 통해 지자체가 생동하는 존재를 사물로 수단화하는 것을 비판한다.

생태학 지식과 그에 따른 생명 인식에 토대한 이 부정적 경험에서 미적 판단은 아름답거나 추한 것의 문제를 넘어 옳거나 옳지 못한 것의 문제가 된다. 이 경험의 주체는 앞 절에서 언급한 생태학자 해스컬과 마찬가지로 가로수를 자체의 역량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 이러한 생태적 관점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미적 반응은, 에밀리 브래디(Emily Brady)가 지적하듯 '미적 쾌에서 윤리적 고려로 변화'한다.[25] 긍정 미학은 정확한 과학 지식을 통해 자연이 '그 자체로' 능동적 힘을 발휘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미적 경험에 가치를 둔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가로수가 척박한 '생육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서사'를 상상하게끔 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감상될 수 없다.

기후 변화와 부정 미학의 상관 관계를 탐구한 브래디는 '상상 활동을 통해 디스토피아적 내러티브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26] 앞의 칠엽수의 눈을 바

25) Emily Brady (2022), p.35.
26) Emily Brady (2022), p.38.

라본 사례와 반대로 화자의 주체의 상상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응축된 생명의 성장이 아닌 생존하지 못하는 미래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부정적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은 도덕적 판단을 동반하며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 마르시아 이튼이 지적했듯 "미적이며 동시에 도덕적인 감수성은 '이 상황이 과감한 행동을 요청한다'거나 '주의 깊은 접근이 요청된다'와 같은 판단"을 동반한다.[27] 위 경험에서는 주체는 지자체가 생명으로서 가로수를 미화의 수단, 즉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또한 가로수의 삶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무가 잘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의 실천을 낭비적 실천으로 판단하고 '관리'에 대한 요구를 표한다.

이 사례는 도덕적 판단에는 생태학 지식 등 과학지식과 그에 따른 가로수에 감각적, 정서적 관여가 전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태적 인식에 기반한 가로수의 부정적 경험은 도덕적 판단을 동반하며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 경험을 야기한 행위 주체, 대개 지자체를 지목하거나 비판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듯 가로수의 경험에서 생태적, 도덕적 고려가 개입하는 경우는 Ⅱ장 2절에서 살펴본 가로수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요구하는 시민 참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강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태적으로 크게 손상되는 가로수에 대한 경험은 '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생태적 문제로 제기된다. 혹은 지자체의 벌목 결정에 반대하는 가로수 구명 운동 역시 가로수에 대한 미적-도덕적 판단에 따라 도시민이 정치적으로 행동한 사례이다. 부정 미학에서 지적하듯 긍정적 미적 반응은 부도덕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지만 부정적 미적 반응은 부도덕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판단하도록 한다.[28] 즉 가로수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따라 도시민은 도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27) Marcia Muelder (2001), *Merit, Aesthetic and Ethic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92.
28) Emily Brady (2022), p.40.

국내 가로수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면 부정확한 과학 지식이나 특정 특질에 대한 지각이 가로수의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추동하며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했다. 가령, 수양버들은 꽃가루로 오인된 씨앗털이 또한 병원균을 옮기고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도시민의 민원이 폭주했고,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해 나무를 벌목했다. 동시대 사례로서, 은행나무 열매는 가을철 악취의 주범으로 공론화되며 꽃눈 가지치기, 기계식 열매걷이 등으로 지자체의 개입을 통해 부정적 특질을 제거되는 방향으로 도시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1990년대까지 있었던 은행 열매를 보호하자는 여론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가로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도시민의 가로수 경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행정 주체의 거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환경을 변화시켜 왔다. 유리코 사이토가 강조했듯 미적 경험, 특히 부정적 경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정치적 파급력을 가진다.[29] 이때 도시를 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민의 인식의 유형, 예를 들어 생태학 지식, 나무에 대한 관념, 과학적 사실과 다른 통념,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부정적 감수성에 따라서 변화의 방향은 다르다. 부정적 경험은 가로수의 도덕적 고려에 따라 생태적 특성을 보호하거나 철저히 미적·실용적 고려에 따라 그것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끈다.

---

[29] Yuriko Saito (2017), *Aesthetics of the Familiar: Everyday Life and World-mak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28.

Ⅴ. 결론

가로수는 도시 인프라로서 도시 전역에 배치되어 도시민의 삶이 펼쳐지는 길의 구조를 형성하고 미관을 생산하며 공기의 구성에 관여한다. 가로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이 지각 가능한 척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편재할 수 있었으나 바로 그 점에서 또한 도시민은 가로수를 쉽게 지나친다. 이러한 '식물맹'[1]의 경향은 인문학 분야에도 그대로 나타나며 가로수를 비롯한 식물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는 지금,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식물을 배제한 채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으며, 특히 도시에서 인간은 가로수가 구성하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지만 쉽게 간과되어 온 가로수에 주목했으며, 비인간-생물이자 식물인 가로수와 관계 맺는 도시민의 삶의 영역을 환기하고 해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인간이 도시에서 가로수를 비둘기나 고양이처럼 개체(군)로 대면하기보다 포괄적인 환경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미학의 시각에서 가로수와 인간의 만남에 접근하고 해석했다. 접근의 단계에서 먼저 이 연구는 가로수 경험이 발생하는 거시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 검토를 통해 근대 이전 유럽의 맥락과 근현대 한국의 맥락을 두루 살폈다(Ⅱ장). 다음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제 가로수 경험에 직접적으로 접근했으며, 동시대 도시민이 가로수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미시적인 가로수 경험을 수집했다(Ⅲ장). 해석에 단계에서는 접근 단계에서 성취한 역사문화적 조건에 대한 이해와 실제 가로수 경험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가로수의 경험을 환기하고 해석했다. 가로수에 대한 다양한 감각, 인식, 정서를 일깨우고자 수집한 경험을 재구성한 미학적 기술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경험

---

1) Mung Balding & Kathryn JH Williams (2016), "Plant Blindness and the Implications for Plant Conservation," *Conservation Biology*, 30(6), pp.1192-99.

의 양상을 종합해 환경미학의 지각 모델, 인식 모델의 이론을 활용해 해석했다(Ⅳ장).

근대 유럽에서 가로수는 외관상 전근대 산책로의 가로수 모델, 즉 단일 수종을 일정한 규모와 간격으로 선형 도로에 배열하는 형태를 유지한 채 공학적으로 표준화되어 전 세계 도시로 이식되었으며 동시대 가로수 역시 이러한 표준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 가로수 실천, 이를테면 수종 선정, 조성, 관리 방법 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한국의 경우 20세기 후반까지 녹지의 양적 확대에 목표를 두어 도시가 일부 수종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때 시대별로 채택된 수종들, 가령 수양버들, 현사시나무,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등과 관련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가로수 경험이 발생해 왔으며 나무의 반영구적 속성에 따라 이는 동시대 도시민에게도 유효하다.

이 연구는 도시민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동시대 가로수 경험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했다. 앞선 문헌 검토를 통해 거시적 맥락에서 교통수단이 가로수 경험의 방식을 좌우하는 주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고려해 보행, 주행, 기타 경험을 분류해 질문하는 반구조적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진술은 해석적 현상학적 분석(IPA;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을 거쳐 유의미한 가로수 경험의 양상을 도출했다. 이 연구에서 발굴한 도시민이 실제 지각하고 인식하며 정서적으로 느낀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걸으며 벚나무나 이팝나무의 개화나 은행나무의 단풍과 낙과 등으로 변화한 도시 환경을 계절에 따라 공감각적으로 체험하거나, 일상 속 축제로 즐겼으며, 멍하니 가로수를 보며 휴식하거나, 진기한 특징을 가진 특정 가로수를 유심히 관찰했다. 차량에 탑승한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가로수가 있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으며, 때로 보기 좋지 않은

특질을 인지하고 비판했다. 만개한 가로수길을 즐기거나, 울창하게 늘어선 길에서 공감각적으로 나무 그늘을 느끼기도 했다. 주행 또는 보행 외의 경우로서 가로수를 조감할 때 원으로 평면화된 가로수를 보며 평가를 내리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수집된 가로수 경험의 양상을 환경미학의 지각 중심, 인식 중심 관점에 따라 해석해 도시 가로수의 네 가지 미학적 의미를 발견했다. 첫째, 도시민은 도시에서 가로수라는 비인간 생물, 미기후, 계절이라는 자연 현상에 참여한다. 계절이라는 주기적 기후 변화에 따른 날씨의 변화와 가로수의 생명 현상은 일상에 피상적으로 존재하는 가로수를 인지의 배경에서 전경으로 불러온다. 가로수가 연관된 환경 변화에 공감각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시각적 광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온몸의 감각으로 가로수와 관련된 촉감, 냄새, 공기, 소리 등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이때 가로수는 분리된 객체가 아니며 도시민은 유기체와 기후 환경에 연속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도시민의 가로수가 있는 풍경 감상은 수동적 관조에서 시각적 참여로 이행한다. 주로 차를 탈 때 도시민은 가로수가 있는 풍경을 시각적으로 관조한다. 가로수를 선과 면으로 환원하는 기하학적 배치는 주체로 하여금 가로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 도시민은 대체로 가로수를 수동적으로 지각한다. 하지만 가로수가 계절 변화에 반응하거나 개인이 미적 의지를 발휘할 때, 다시 말해 가로수와 주체가 각기 역량을 발휘할 때 도시민은 가로수를 평면적, 추상적 요소가 아닌 구체적 실체로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공감각적 관여가 제한되는 시각 지배적인 관조의 방식으로 가능한 가로수에 대한 능동적 참여이다.

셋째, 가로수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서 지식은 가로수에 대한 미적 지평을 열어주기도, 정해진 방식으로 고착시키기도 한다. 경험의 주체가 식물학이나 생태학 등 과학 지식을 가질 경우, 지식을 토대로 감각적 회상, 즉 재생산적 상상을 통해 기존의 지각과 인식을 환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주체는 창조적

상상을 통해 지각할 수 없는 가로수의 자율적 특성을 상상해 인지할 수 있다. 주체는 이러한 생산적 상상을 통해 유기체 자연으로서 가로수의 '그 자체의 적절한 서사'를 찾아내 미적 지각과 이해를 확장한다. 반면 심신 이완에 대한 실용적 지식은 도구적 관점에 따라 가로수를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진 존재이기보다 단순한 표피적 대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가로수에 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발굴한 부정적 경험의 사례들은 지식의 유형, 나무에 대한 이상형, 생태학 지식, 부정확한 통념, 사회적 감수성과 인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로수 경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때는 긍정적일 때보다 도시민은 문제를 개선해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회정치적 파급력을 가진다. 이때 부정적 평가가 어떤 지식에 기반하느냐에 따라 가로수의 문제는 미적 고려를 넘어 도덕적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연구가 환경미학적으로 수집하고 해석한 가로수 경험의 양상은 곧 인간이 가로수와 관계 맺는 양상에 다름 아니다. 이 연구는 인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풍부한 경험을 발생시키는, 즉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행위주체(agent)로서 가로수를 환기한다. 도시는 행위주체로서 가로수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 세계이다. 즉 이 연구는 가로수 경험에 대한 환기와 해석을 통해 도시를 인간이 비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인간 너머의 도시(more-than-human city)"[2]로 재발견한다.

이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가로수가 도시의 일상적 삶에 다양한 질감을 생성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도시의 비인간-생물이자 식물인 가로수와 인간의 관계를 재발견했다. 이 연구가 규명한 가로수의 경험은 도시 정책에서 가로수를 수단화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가로수의 삶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에서 식물에 대한 인간의 환경 경험을

---

2) Bruce Braun (2005), "Environmental Issues: Writing a More-than-human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Heography* 29(5), pp.635-50.

다루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해석한 미적 양상은 가로수 경험의 일부분이며 조명되지 못한 더 다양한 가로수 경험의 사례도 존재한다. 이 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가로수에 대한 연구가 환경미학적 관점에서 검토되고 도시민의 가로수 경험에 주목하는 인문학적 연구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인용 문헌

Andrews, Malcom (2007), “The View From the Road and the Picturesque,” *The Aesthetics of Human Environments* (A. Berleant, & A. Carlson, eds), Ont: Broadview Press.

Balding, Mung & Williams, Kathryn (2016), “Plant blindness and the Implications for Plant Conservation,“ *Conservation Biology* 30(6), pp.1192-99.

Beamish, Anne (2018), “A Garden in the Street: the Introduction of Street Trees in Boston and New York,“ *Studies in the History of Gardens & Designed Landscapes* 38(1), pp.38-56.

Berleant, Arnold (1985), “Toward a Phenomenological Aesthetics of Environment,” *Descriptions* (H. Silverman and D. Idhe ed.), Albany: SUNY Press, pp.112-28.

_____, Arnold (1991),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_____, Arnold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_____, Arnorld (1994), “Beyond Disinterestednes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4(3), pp.242-54.

Bernard, Leon (1970), *The Emerging City: Paris in the Age of Louis XIV*.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Brady, Emily (1998), “Imagination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pp.139-147.

_____, Emily (2003), *Aesthetics of the Natural Environment*,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_____, Emily (2022), “Global Climate Change and Aesthetics,” *Environmental Values* 31(1), pp.27-46.

Braun, Bruce (2005), “Environmental Issues: Writing a More-than-human Urb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9(5), pp.635-50.

Brown, Bill (2001), “Thing Theory,” *Critical Inquiry* 28(1), pp.1-22.

Budd, Malcolm (2002),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Carlson, Allen (1977), "On the Possibility of Quantifying Scenic Beauty," *Landscape Planning* 4, pp.131-72.
_____, Allen (1979), "Appreciation and the Natural Environment,"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7(3), p.267-75.
_____, Allen (1981), "Nature, Aesthetic Judgment, and Objectivity,"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40(1), pp.15-27.
_____, Allen (1995), "Nature, Aesthetic Appreciation, and Knowledg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3(4), pp.393-400.
Carrol, Noël (1993), "On Being Moved By Nature: Between Religion and Natural History," *Landscape, Natural Beauty and the Arts* (S. Kemal & I. Gaskell,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44-66.
Corbeil, Jean-Claude & Archambault, Ariane (2008), *Britannica Visual Dictionary*, Edinburgh: Encyclopaedia Britannica.
Davies, Deborah (2019), "Subterranean to Skyline—Street Trees as Boundary Agents in the Composition of the Street Section," In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Proceedings* 20(1), p.26.
Dewey, John ([1934]1980), *Art as Experience*, New York: Perigee.
Dorion, Par Noëlle (2013), "Petite histoire des alignements a` Paris du XVIe` sie`cle au XIXe` sie`cle," *Jardins de France* 626, pp.7-9.
Dümpelmann, Sonja (2019), *Seeing Trees : A History of Street Trees in New York City and Berl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Eaton, Marcia (2001), *Merit, Aesthetic and Ethic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Evelyn, John (1879), *The Diary of John Evelyn*, London: Bickers.
Forrest, Mary & Konijnendijk, Cecil (2005), "A History of Urban Forests and Trees in Europe," *Urban forests and trees*, Berlin, Heidelberg: Springer, pp.23-48.
Fisher, John Andrew (1998), "What the Hills are Alive with: In Defense of the Sounds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pp.167-79.

Haskell, David (2018), 『나무의 노래』 노승영 옮김. 서울: 에이도스, 원제 *The Songs of Trees: Stories from Nature's Great Connectors*. London: Penguin. 2018.

Harvey, David (2019),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자본이 만든 메트로폴리스 1830-1871』, 김병화 옮김. 파주: 글항아리. 원제 *Paris, capital of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2004.

Hepburn, Ronald (1984), "Contemporary Aesthetics and the Neglect of Natural Beauty," *Wonder and Other Essays: Eight Studies in Aesthetics and Neighbouring Field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p.108-30.

_____, Ronald (1996), "Landscape and the Metaphysical Imagination," *Environmental Values* 5(3), pp.191-204.

Heyd, Thomas (2001), "Aesthetic Appreciation and the Many Stories about Nature,"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1(2), pp.125-37.

Holdrege, Craig (2021), "The Seasons Embodied: The Story of a Plant," *The Seasons: Philosophical, Literary,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L. Fischer & D. Macauley, eds). New York: SUNY, pp.53-67.

Holmes Rolston III (1995), "Does Aesthetic Appreciation of Landscapes Need to be Science-based,"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35(4), pp.374-86.

Ingold, Tim (2009), "Against Space: Place, Movement, Knowledge," *Being Alive: Essays on Movement, Knowledge and Description*, London: Routledge, pp.29-43.

Isambert, François-André., et al (1829), Recueil général des anciennes lois françaises depuis l'an 420, *Jusqu'à la Révolution de 1789, t. XIV*, Paris: Belin-Leprieur.

Jones, Owain & Cloke, Paul (2008), "Non-human Agencies: Trees in Place and Time," *Material Agency: Towards a Non-Anthropocentric Approach* (C. Knappett & L. Malafouris, eds.), Boston: Springer, pp.79-96.

Kant, Immanuel (1968), *Krik Der Urteilskraft* (Hamburg, Felix Meiner Verlag), §12, Ak.222.

King, Nigel & Horrocks, Chistine (2013), 『질적연구에서의 인터뷰』, 김미영

외 역. 서울: 현문사, 원제 *Interviews in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Ltd, 2010.

Kostof, Spiro (2009),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양윤재 옮김. 서울: 공간사. 원제 *The City Shaped: Urban Patterns and Meanings through History*. Thames & Hudson Ltd, 1991.

Landau, Bernard (1992), "La fabrication des rues de Paris au XIXe siècle: Un territoire d'innovation technique et politique," *Les Annales de la recherche urbaine* 57(1), pp. 24-45.

Laurian, Lucie (2019), "Planning for Street Trees and Human-nature Relations: Lessons from 600 years of Street tree Planting in Paris",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8(4), pp.282-310.

Lawrence, Henry (1988), "Origins of the Tree-Lined Boulevard," *Geographical Review* 78(4), pp. 355-74.

_____, Henry (2008), *City trees: A historical geography from the renaissance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y*. Charlottesville;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Lazzaro, Claudia & Lieberman, Ralph (1990), *The Italian Renaissance garden: from the conventions of planting, design, and ornament to the grand gardens of sixteenth-century Central Italy*.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Lynch, Kevin (1984), *Good City Form*. MIT press.

Marshall, Frederick (1852), "The Champes Elysees: From the French," *Ainsworth's Magazine* 22, pp.401-03.

Martinelli, Roberta & Parmini, Giovanni (1996), *A Renaissance Fortification System: The Walls of Lucca*. Maria Pacini Fazzi Editore.

Matthews, Patricia (2002), "Scientific Knowledge and the Aesthetic Appreciation of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60(1), pp.37-48.

Muelder, Marcia (2001), *Merit, Aesthetic and Ethica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Naukkarinen, Ossi (2013), "What is 'Everyday' in Everyday Aesthetics?," *Contemporary Aesthetics* 11(1), p.14.

Parsons, Glenn (2002), "Nature Appreciation, Science, and Positive Aesthetic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2(3), pp.279-95.

Saito, Yuriko (1998), “Appreciating Nature on its Own Terms,” *Environmental Ethics* 20(2), pp.135-149.
_____, Yuriko (1998), “The Aesthetics of Unscenic Natur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6(2), pp.101-11.
_____, Yuriko (2007), *Everyday Aesth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Yuriko (2017), *Aesthetics of the Familiar: Everyday Life and World-making*.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Sepänmaa, Yrjö (1993), *The Beauty of Environment: A General Model for Environmental Aesthetics*, Environmental Ethics Books.
Smith, Jonathan (2011),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Health psychology review* 5(1), pp.9-27.
van den Bosch, Konijnendijk (2016), “Tree Agency and Urban Forest Governance,” *Smart and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5(2), pp.176-88.

권상수, 구우서, 박정기, & 이용문 (1980) “부산시 가로수의 생태에 관한 연구,”『석당논총』4, pp.75-84.
김대관, 윤여창 (1996) “한국의 가로수 현황과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산림경제연구』4(2), pp.37-50.
김백영 (2006) “서양의 모방과 전통의 변용: 일본 근대 도시 형성과정의 이중적 경향,”『일본연구논총』23, pp.407-449.
김상연 (2019), “환경, 신체, 참여: '적절한 자연 경험'을' 위한 벌리언트와 뵈메의 제안,”『미학』85(1), pp37-68.
김정환 (1982) “서울시내 가로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북산림포럼 (2011),『경북명품가로수를 활용한 도시이미지 제고방안』
김해경 (2018), “일제강점기 경성 내 가로수에 대한 일고찰,”『서울과 역사』98, pp.145-185.
대원엔지니어링 (2012),『옥천군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계획』.
박동숙 (2019),『질적 인터뷰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상명 외 2인 (2006), “감성공학에 의한 운전자의 가로경관 평가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대한교통학회지』24(3), pp.10-22.

박은진, 강규이 (2010), “경기도 도시가로수의 탄소저장량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한국환경생태학회지』, 24(5), pp.591-600.
배정오, 김정규, 김재봉, & 박재주 (1986), “대기오염에 대한 가로수의 내연성 연구,”『환경위생공학』 1(1), pp.97-107.
산림청 (1973),『임업통계요람』, 제6호.
산림청 (1985),『임업통계요람』, 제15호.
산림청 (1989),『임업통계요람』, 제19호.
산림청 (1991),『임업통계연보』, 제21호.
산림청 (1996),『임업통계연보』, 제26호.
산림청 (2001),『임업통계연보』, 제31호.
산림청 (2002),『임업통계연보』, 제32호.
산림청 (2006),『임업통계연보』, 제36호.
산림청 (2009),『가로수 조성·관리 대책』.
산림청 (2018),『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
산림청 (2019),『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산림청 (2022),『가로수 조성·관리 추진계획』.
서울역사박물관 (2015),『대경성부대관』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9).『서울의 전차』,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환경연합 (2022),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한 작은 안내서』, https://seoulkfem.or.kr/.
성민웅 (1976), “진주시 가로수의 연 (Pb) 오염에 관하여,”『식물학회지』 19(4), pp.107-110.
송석호, 김민경, (2020) “서울시 가로수 역사와 수목 고찰,”『한국전통조경학회지』 38(4), pp.58-67.
이병주 외 2인 (2006),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보도경관 설계모형에 관한 연구,”『대한교통학회지』 24(6), pp.119-27.
이석래 (1988), “가로수의 역사Ⅵ,”『고속도로』 36, 한국도로공사, pp.71-77.
정성관, 박경훈, 박진수, & 김희년 (2000), “가로수관리정보체계를 위한 코드부여방법에 관한 연구,”『한국지리정보학회지』 3(1), pp.57-68.
정지용 (1941), “아스팔트,”『백록담』제5권.
조정송 & 배정한 (1994), “환경미학과 ‘참여’ 개념의 구조와 문제: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미학』 19(10), pp.225-59.
최병길, 나영우, & 권오섭 (2014) “GIS 를 이용한 가로등 및 가로수의 저탄소 정보 관리,”『대한공간정보학회지』 22(1), pp.55-62.
현빙허 (1934), “적도,”『조선중앙일보』.

『강원도민일보』(2010. 04. 10.), “봄마다 ‘닭발 가로수’ 흉물”.
『경향신문』(1966. 09. 19.), “자취 감춘 가로수 언제심나”.
『경향신문』(1969. 10. 18.), “가로수”.
『경향신문』(1962. 06. 06.), “다시 고개 든 흰불나방”.
『경향신문』(1963. 03. 29.), “봄이 지나도 가로수의 잎구경을 할 수가 없다”.
『경향신문』(1984. 5. 24.), “전시용 가로수 한달못돼 고사”,
『뉴시스』(2004. 05. 04), “진주 수십년된 플라타너스 자르자 때아닌 ‘가로수 논쟁’”.
『동아일보』(1933. 05. 01.), “심금을 울린 문인의 이 봄”.
『동아일보』(1937. 07. 03.), “위생시설을 완비하라”.
『동아일보』(1967. 08. 07.), “노후 가로수 30% 연대 고사 우려”.
『동아일보』(1977.05.21.),“꽃가루 날리는 수양버들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
『동아일보』(1991. 10. 17.),“꽃가루 가로수 퇴역”.
『동아일보』(1994. 09. 09.), “한밤 가로수 은행 훑어가 몰염치한 행위 자제하길”.『국민일보』(2002. 10. 04.), “길 위에 떨어진 은행열매 악취로 관광객에 불쾌감”.
『동아일보』(1963. 08. 28.), “흰불나방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기고 갉아먹은 영등포의 가로수”.
『동아일보』(1979. 01. 27.), “푸른 가로, 9억 들여 조성”.
『동아일보』(1979. 05. 22.), “전시효과에 치우친 즉흥자연보호”.
『동아일보』(1988. 4. 11.),“수양버들 현사시 교체”.
『라펜트』(2021. 12. 17.), ““우리는 나무와 숲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부산 나무권리 선언”.
『매일경제』(1982.06.07.), ““푸른 서울가꾸기” 사업 속성수에만 집착”
『매일경제』(2008. 12. 18.), “직사각형, 반원형, 타원형... 서울시 가로수도 디자인”.
『서울신문』(2007. 09.15.), “은행 따기 행정 잣대 각각”
『오마이뉴스』(2004. 05. 29.), “멀쩡한 플라타너스 61그루, 왜 베었을까?”.
『조선일보』(1932. 05. 04.), “도시미 보식육백주의 가로수륙천본”.
『조선일보』(1939. 11. 8.), “금일이 입동”.
『조선일보』(1961. 01. 14.), “벌거숭이 가로수”.
『조선일보』(1981. 03. 27), “말라 죽어가는 가로수
『조선일보』(1983. 02. 19.), “몽당 가로수”.

『한겨레』(2021. 02. 09.), “90살 향나무 제멋대로 벤 대전…53살 양버즘 살리기로 한 서울”
『새성북신문』(2016. 09. 04), “플라타너스 나무 지켜낸 성북동 주민들 ‘자축’”.

Abstract

The Experience of Urban Street Trees
: An Environmental Aesthetical Approach

Soyeong Park

Advised by Professor Jeong-Hann Pa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rban street trees are trees located along urban streets that we pass by every day. Street trees as an urban infrastructure are engaged in the lives of urban residents structurally, aesthetically and climatically. But we tend to overlook them as they are plants that are immobile and unthreatening. In the field of humanities, there is also a tendency of 'plant blindness' while street trees are on the periphery of the discussion compared to human and animal. However, as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merge today, street trees are becoming even more vital for urban lif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pects of urban life fundamentally engaged with the street trees, this study aims to reveal and explain the experience of people with urban street trees.

This study approaches and interprets the experience of the street tre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aesthetics, considering that citizens experience them as a environment rather than individual objects. First,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where the experience of street trees was placed. In modern Europe, street trees were standardized technically and transplanted into cities around the world. Korea also accepted this standard. By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had focused on areal expansion of green areas. This meant that few species dominated cities. Social experiences specific to Korea appeared according to planting and management of a few dominating species. In modern Europe and Korea, the practice of uniformizing the shape and tree species of street trees influences historical and cultural conditions of the experiences of contemporary urban residents.

The next step of the study involved discovering and analyzing the contemporary experience of street tre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street tree experience including walking, driving, and other experiences as mode of transportation was a crucial factor for experiencing street-trees according to existing literature. In order to derive significant aspects of the experience of street trees, interview statemen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of meaning through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IPA). Accordingly, the experiences of street trees of urban residents was found as follows. When walking, the study

participants were either a) synesthetically experiencing the street trees depending on the season, b) celebrating seasons in everyday life, c) gazing at the street trees for relaxation, and d) identifying street trees individually or appreciating its characteristics. When in a moving car, the study participants described their experience as either e) appreciation of the scenery, f) negative evaluation, g) experiencing the fully bloomed trees, or h) experiencing the avenue like a thick forest. Finally, in the case of bird's eye view overlooking street trees from airplanes or buildings, the experience was accompanied with i) the process of evaluation while looking at the street trees flattened into circles.

For interpretation, the study described the experiences collected in interviews using Arnold Berleant's 'descriptive aesthetics' to awaken the senses, cognition, and emotions regarding various street trees, and found the following meanings using the theory of environmental aesthetics. First, urban residents engage with the natural phenomenon of the street trees as non-human being, the microclimate, and the seasons in urban conditions. The subject who synesthetically engages in the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street trees goes beyond appreciating them through visual sights and feels complex senses related to street trees. In such situation, street trees are not separate objects, and urban residents exist continuously in the environment.

Second, the appreciation of the landscape with street trees shifts from passive perspective to visual engagement. The geometric arrangement reduces street trees to lines and planes so

that urban residents need not pay attention to street trees. However, when street trees respond to seasonal changes or when individuals demonstrate willingness to engage aesthetically in other words, when street trees and subjects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urban residents experience street trees as specific living entities, not flat or abstract elements.

Third, knowledge can open up the aesthetic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for street trees. When the subject of experience has scientific knowledge such as botany or ecology, the subject recognize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s of trees through creative imagination and find the proper narrative of the tree itself. On the other hand, practical knowledge on mental relaxation caused street trees to be perceived as simple and superficial objects based on an instrumental perspective rather than seeing the trees for their own attributes.

Finally, information also acts as a criterion for negative evaluation of street trees. According to the cases discovered in this study, various information-based negative experiences occur depending on knowledge such as ideal type of tree, ecology, inaccurate common sense, and social sensitivity and cognition. In particular, when the evaluation of the experience of street trees is negative, urban residents mobilize political power to improve the problem and change the urban environment. In that case, aesthetic judgment can move toward moral judgment based on the underlying knowledge.

The study illuminates and interprets the aspect of the street tree

integrated into an urban life. This study discovered street trees as agent that exercises daily influence on humans and creates rich aesthetic dimensions. Also, the city appears as 'more-than-human city' as humans interact with non-human agents such as street trees. However, aspects addressed in this study address only some of the experiences of street trees and there are many more cases beyond what has been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xisting research on street trees w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aesthetics, and humanities research focusing on the urban residents' experience of the street trees will be expanded.

Keywords : Street Tree, Urban Environment, Aesthetic Experience, Environmental Aesthetics, Synaesthetic Engagement, Aesthetic Contemplation, Aesthetic-Moral Judgment, More-than-human City

Student Number : 2020-20954